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정답과
해설

1강 독서의 본질

지문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본문 9~10쪽

01 ③
02 ㉠ 확인하기(Recite)
 ㉡ 한옥의 가치에 관한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거나, 답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

■ **SQ3R과 CSQ3R**

해제 >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한 전략적 독서 방법인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확인하기, 재검토하기라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SQ3R의 변이형인 CSQ3R은 시각 바꾸기가 추가된 것으로서, 책의 내용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SQ3R 또는 CSQ3R을 활용함으로써 능동적 읽기 습관과 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주제 > 전략적 독서 방법인 SQ3R과 CSQ3R

구성 >

- 1문단: 전략적 독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SQ3R
- 2문단: SQ3R의 5단계
- 3문단: SQ3R의 변이형인 CSQ3R
- 4문단: SQ3R 또는 CSQ3R의 효과적 활용 방법 및 의의

01 ③ 2문단에 따르면, SQ3R의 ‘재검토하기(Review)’는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훑어보고 정리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글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활동도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 따르면, SQ3R을 활용하여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읽음으로써,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습관과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SQ3R 또는 CSQ3R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SQ3R 또는 CSQ3R의 각 단계들이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SQ3R의 변이형인 CSQ3R은 자신이 저자라면 독자들에게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각 바꾸기(Change perspective)’가 추가된 것이다.

02 이 학생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명확히 기억하는 단계인 ‘확인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책의 중심 내용인 한옥의 가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말로 표현하거나, 답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11~12쪽

01 ⑤
02 (1) ㉠: 독서 목적의 부합성
 ㉡: 내용의 타당성
 ㉢: 내용의 신뢰성
 ㉣: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
 (2) ㉢, 이유: 후설의 이론이나 사례에 대해 인용한 논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논문 제목을 밝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형식 논리학과 후설의 선형적 논리학**

해제 > 이 글은 논리학의 기본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형식 논리학과 후설의 선형적 논리학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형식 논리학은 주장이나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 구조의 정합성을 중시하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이후 명제 논리와 술어 논리로 발전했다. 그러나 형식 논리학은 사고의 구조적 타당성은 분석하지만, 논리 판단의 궁극적 근거는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설은 논리 판단이 인간 의식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며,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사고의 선형적 구조를 밝히려 했다. 선형적 논리학은 논리 판단을 단순한 기호 조작이 아니라, 의식 속 의미 구성 활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논리학을 인간 사고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학문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후설의 선형적 논리학은 논리 판단의 근원적 조건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 > 형식 논리학의 특징 및 한계와 논리학을 인간 의식과 사고의 본질로 확장한 후설

구성 >

- 1문단: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 명제 논리·술어 논리의 개념
- 2문단: 무모순성의 개념
- 3문단: 후설의 형식 논리학 한계 비판 및 선험적 논리학의 특징

01 ⑤ 3문단에서 “직관은 단순한 감각적 인상이나 본능적 통찰이 아니라, 언어나 기호의 매개 없이 의식이 대상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는 행위”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논리학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1문단에서 “명제 논리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들을 ~ 복합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술어 논리는 명제 논리에 비해 ~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포착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일관성, 즉 무모순성에 초점을 둔다.”, “설령 전제가 거짓이라 해도, 그 안에서 모순 없이 결론이 도출된다면 논리 구조는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논리의 규칙들은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선험적 구조, 즉 보편적 인식의 형식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2 (1) ③: 후설의 논리학이 ‘인간의 사고 과정과 논리학’이라는 탐구 주제와 잘 맞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독서 목적의 부합성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⑥: 무모순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덧붙여 풀이한 내용이 앞뒤가 잘 맞아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한 것이다.

⑦: 구체적 사례를 인용하고 논문 제목을 밝혀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한 것이다.

⑧: 개념 정의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여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글의 체계적인 구성이나 전개 방식을 평가한 것이다.

(2) ⑦, 후설의 이론이나 사례에 대해 인용한 논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논문 제목을 밝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으로 이해하기 3 예시 답안

본문 13~15쪽

01 ②

- 02** ③: 믿는 체하기 놀이
⑥: 사용상의 내용
⑦: 의미론적 내용(명제)

■ 허구 이야기와 믿는 체하기 놀이, 불완전 명제 이론**가**

해제 > 이 글은 월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월턴에 따르면, 허구 이야기 속 허구 문장은 명제인 의미론적 내용은 비활성화되고, 놀이 규칙에 따른 사용상의 내용만을 전달한다. 독자들은 허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놀이의 소품으로서 그 문장을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허구 문장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놀이를 작동시키는 소품이므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될 수 없다.

주제 > 월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

구성 >

- 1문단: 의미론적 내용과 사용상의 내용
- 2문단: 월턴의 ‘믿는 체하기 놀이’ 이론과 허구 문장의 특징
- 3문단: 허구 이야기에 대한 인식과 감정 반응
- 4문단: 허구 문장의 참·거짓 판단 불가능성

나

해제 > 이 글은 불완전 명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구 문장도 일반 문장처럼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지만, 허구적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명제를 표현한다. 허구 문장은 불완전 명제이지만 독자의 인식과 감정 반응을 촉발하는 근거가 되며, 이에 대한 참·거짓의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지니기 때문에, 허구 이야기는 언어의 규칙에 지배받는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 > 불완전 명제 이론

구성 >

- 1문단: 불완전 명제 이론의 개념
- 2문단: 허구 문장을 통한 인식과 감정의 촉발
- 3문단: 허구 문장의 참·거짓 판단 가능성
- 4문단: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서의 허구 이야기

01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월턴은 허구 이야기를 ‘믿는 체하기 놀이’로 보면서 허구 문장이 어떤 사태를 지시하는 명제가 아니라 놀이를 작동시키는 소품이며 독자나 청자는 놀이 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문장의

사용상의 내용만을 받아들인다고 본다. 이에 대해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도 허구적인 부분이 비어 있는 형태이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월턴의 입장을 비판한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독자가 그 내용을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연극 공연 중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배우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 않으며, 월턴은 이에 대해 독자나 청자가 허구 이야기를 참이나 거짓을 따지는 언어 행위가 아닌 놀이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월턴은 허구 문장을 거짓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독자나 청자가 허구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다.

③ (가)의 4문단에서 월턴은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사용 의도와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다. 즉 월턴의 이론에서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 전달되는 것이므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월턴은 허구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이 비활성화되며, 문장 자체가 놀이를 작동시키는 소품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즉 ‘한양’과 같은 실제 대상을 포함한 문장이라도 문장 자체가 놀이의 소품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02 (가)에 따르면, ‘허구 역설’ 현상은 관객이 영화 감상을 ‘믿는 체하기 놀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관객은 영화 속 대상이 실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상의 내용’에 따라 그 상황을 현실인 양 받아들이며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에는 ‘믿는 체하기 놀이’, ㉡에는 ‘사용상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나)에 따르면,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이 허구적인 부분이 비어 있는 형태이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이러한 불완전 명제가 우리의 인식 행위와 감정 반응의 촉발점이 된다고 본다. 관객의 감정적

반응은 허구적 표현에 담긴 불완전한 ‘의미론적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촉발되는 것으로, 허구적 상황을 다룬 영화적 표현들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강 독서의 방법 | ① 사실적 읽기

지문으로 이해하기 1 예시 답안

본문 17~19쪽

- 01 ④
- 02 ⑤
- 03 ㉠: 유도 와전류
㉡: 표피 효과
㉢: 얇아

■ 전류 밀도의 개념과 특징

해제 ▶ 이 글은 도선이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이유를 전류 밀도와 표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에 따라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의 열에너지 발생은 변화한다. 또 교류 전류에서 자기장과 유도 와전류가 만들어 내는 표피 효과에 의해 전류 분포가 변하며 이는 고주파 교류 전류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는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가 핵심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주제 ▶ 전류 밀도와 표피 효과의 개념 및 물리적 특징

구성 ▶

- 1문단: 전류와 전류 밀도의 기본 개념
- 2문단: 표피 효과의 원리와 개념
- 3문단: 전류 밀도와 표피 효과를 고려한 설계 사례

01 ④ 1문단과 2문단에서 전류 밀도에 의해 도선에서 열에너지가 증가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3문단에서 이를 고려한 공학적 설계 방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류와 전류 밀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발생하는 원리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소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전류에 대한 여러 이론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설이나 실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유도 와전류에 대해 소용돌이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⑤ 2, 3문단에 따르면, 고주파 전류는 표피 효과로 인해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가 주로 흐르는 표면층의 저항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3문단에서는 전도성이 낮은 알루미늄선의 외측(표면)을 전도성이 좋은 구리로 감싸 열 발생을 줄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도성이 좋은 구리 선의 표면을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루미늄으로 감싸는 것은 표피 효과를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였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1문단에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넓으면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라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에서는 리츠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서로 상쇄하여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전체 단면적에 전류가 더욱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03 ㉠: 2문단에서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며,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유도 와전류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유도 와전류’가 적절하다.

㉡: 2문단에서 “도선의 경우 유도 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하고 도선 표면에서는 전류 흐름이 촉진되어,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표피 효과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표피 효과’가 적절하다.

㉢: 2문단에서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

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유도 와전류도 강해져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표피 효과에 의해 δ 는 ‘얇아’지는 것이 적절하다.

2강 독서의 방법 | ② 추론적 읽기

지문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21~23쪽

- 01** ③
02 ⑤
03 ③

■ 소비 이론

해제 > 이 글은 케인스, 프리드먼, 모딜리아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의 크기로,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한다.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가 수준, 그리고 미래 소득도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미래 소득과 관련하여 프리드먼은 항상 소득 이론을, 모딜리아니는 생애 주기 이론을 주장하였다.

주제 >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

구성 >

- 1문단: 소비와 가처분 소득의 관계
- 2문단: 케인스의 소비 함수와 두 가지 소비 성향
- 3문단: 평균 저축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 4문단: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 5문단: 프리드먼의 항상 소득 이론
- 6문단: 모딜리아니의 생애 주기 이론

01 ③ 2문단에서 케인스의 소비 함수는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1차 함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 함수에 나타난 소비와 가처분 소득 사이의 관계에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소비 함수를 도출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가처분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이 저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소득은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이므로,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1문단에서 소비와 가처분 소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계에 따를 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하게 된다.
- ④ 3문단에서 평균 저축 성향은 1에서 평균 소비 성향의 값을 뺀 나머지와 같다고 했으므로, 어떤 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이 0.7이라면 그 나라의 평균 저축 성향은 0.3이 된다.
- ⑤ 4문단에서 소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물가 수준 등이 소비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02 ⑤ b 는 한계 소비 성향이다.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커진다는 것은 소비의 증가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보다 작다는 1문단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은 1이 된다고 했다.
- ② 2문단에서 평균 소비 성향은 주어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C/Y_d 라고 했다. 이는 케인스의 소비 함수에서 선분 OF 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 ③ 2문단에서 a 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이며, ' $a > 0$ '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a 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 ④ 2문단에서 b 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저축한다고 가정한 것이며, 이 가정이 현실과 부합한다고 했다.

03 ③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항상 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보다 훨씬 작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

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딜리아니 역시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 ② 프리드먼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 자신의 항상 소득을 고려해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다.
- ④ 모딜리아니는 소비자들이 현재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특히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커질 것을 예상하여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 ⑤ 항상 소득을 강조한 프리드먼과 달리, 모딜리아니는 소비자들이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다.

2강 독서의 방법 | ③ 비판적 읽기

지문으로 이해하기 ③ 예시 답안 본문 25~26쪽

- 01 ④
- 02 ① 정의는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절차의 공정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② 정의는 행복의 총량을 높이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롤스와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해제 ② 롤스는 공정의 측면에서 정의를 바라보며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의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매킨타이어는 이를 비판하며 공동체와 관련지어 정의를 설명하였다. 그는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공유되는 덕목의 수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킨타이어의 관점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 ② 롤스와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비교

구성 >

- 1문단: 공정의 측면에서 정의를 바라본 롤스의 정의관
- 2문단: 공동체와 관련지어 정의를 바라본 매킨타이어의 정의관
- 3문단: 덕과 자기실현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관점
- 4문단: 매킨타이어에 대한 비판과 매킨타이어의 관점의 의의

01 ④ 4문단에 따르면, 매킨타이어는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그의 관점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전통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롤스는 사회가 정의로울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구상하였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롤스는 정의를 합리적 개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도출하는 것이자,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각 공동체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매킨타이어의 관점은 모든 공동체의 체계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였고,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없이는 어떠한 윤리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개인의 자아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02 ① 롤스는 정의가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으므로, 공리주의가 다수의 행복 극대화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절차의 공정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 점을 비판할 것이다.

② 매킨타이어는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공리주의가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을 경시한 점을 비판할 것이다.

2강 독서의 방법 | ④ 감상적 읽기**지문으로 이해하기 ④ 예시 답안**

본문 28~29쪽

01 ②

02 리히텐슈타인은 특정 순간의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 로이 리히텐슈타인

해제 > 이 글은 1960년대 미국에서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팝 아트의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의 예술적 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회화에 도입하여 전통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 양식을 제시하였다. 그는 벤데이 도트 기법, 만화의 패널 재구성, 텍스트 요소 활용 등을 통해 고유한 예술 작품을 완성해 냈다. 그의 대표작 「과광」은 대중 매체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재해석한 작품으로, 리히텐슈타인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 준다.

주제 > 리히텐슈타인의 팝 아트적 시도와 표현 기법

구성 >

- 1문단: 1960년대 미국에서 팝 아트의 등장 배경
- 2문단: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회화에 적용한 리히텐슈타인의 표현 기법
- 3문단: 만화의 패널과 텍스트 요소를 활용한 리히텐슈타인의 표현 기법
- 4문단: 「과광」이라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에 대한 평가

01 ② 2문단에서 리히텐슈타인의 회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만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대중문화의 기계적 재현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예술 양식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리히텐슈타인이 회화를 대량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은 수작업과 반복적 과정을 거친 독창적 예술 작품이다.
- ③ 리히텐슈타인은 전통적 회화 규범에서 벗어난 예술 실험을 한 작가이다. 그가 회화에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거나 화가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역설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 ④ 리히텐슈타인은 고전적 주제를 벗어나 만화·광고 등 대중매체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전통 회화의 기법과 고전적 주제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

난 실험적 양식을 제안한 것이다.

⑤ 리히텐슈타인의 작업은 회화 외부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 매체를 예술과 접목한 것이므로 순수 회화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

02 3문단에서 리히텐슈타인은 원작 만화의 패널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여러 패널 가운데 특정 장면을 선택해 확대하거나 서로 다른 장면을 병치하거나 재배열하기도 하면서 특정 순간의 정서적 긴장을 극대화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 3문단: 라플라스 법칙과 폐포의 붕괴
- 4문단: 계면 활성제의 분비와 폐포의 유지

01 ④ 2문단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계면 활성제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면 장력이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폐포의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싸여 있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폐포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쉽게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폐포가 작아질수록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폐포는 I형 폐포 세포와 II형 폐포 세포가 얇은 세포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2 강 독서의 방법 | ⑥ 창의적 읽기

지문으로 이해하기 **5** 에시 답안 본문 31~33쪽

- 01** ④
- 02**
 - 라플라스 법칙에 따르면 폐포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압이 커지기 때문이다.
 - 폐포가 작아질수록 II형 폐포 세포가 분비하는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져 폐포의 표면 장력이 줄어들고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03 ④

■ 폐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

해제 > 이 글은 폐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폐포의 신진성과 표면 장력이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폐포의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압을 설명하는 라플라스 법칙은 폐포의 표면 장력과 반지름과의 관계를 통해 작은 폐포가 더 쉽게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폐포를 구성하는 II형 폐포 세포가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여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약화시켜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므로,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주제 > 폐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

구성 >

- 1문단: 폐포의 구조와 신진성
- 2문단: 폐포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

02 폐포가 안정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큰 폐포보다 작은 폐포는 같은 공기압일 경우 허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폐포라 하더라도 허탈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폐포를 이루고 있는 II형 폐포 세포가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는데, 계면 활성제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방해하여 폐포의 표면 장력이 줄어들고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03 ④ <보기>에서 미숙아가 겪는 호흡 곤란 증후군의 경우 대부분이 II형 폐포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II형 폐포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계면 활성제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할 것이다.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계면 활성제를 보충해 폐포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폐포의 허탈을 막으려는 치료 방법이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 ①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는 것은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경향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폐포가 오그라들려는 경향이 커진다면 늘어나는 정도인 신진성은 작아질 것이다.
- ② II형 폐포 세포는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므로 II형 폐포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면 계면 활성제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미숙아의 경우 인공 계면 활성

제를 투여하여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는 계면 활성제를 보충할 수 있다.

③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면 폐포의 표면 장력이 낮아져 폐포의 허탈이 일어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인공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여 폐포 내부의 공기압을 증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⑤ 폐포의 오그라들려는 힘과 폐포 내부의 공기압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 산소와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을 수렴하며 이는 설계 과정 전반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특정 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장 이전에도 신체적·환경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하나의 방식을 통해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설명하였다.

⑤ 2문단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사용자의 배경, 능력, 문화적 요건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와 대응 방식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3강 독서의 분야

지문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본문 36~37쪽

01 ②

02 ⑤

■ 인클루시브 디자인

해제 ▶ 이 글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자인은 미적 요소 외에도 기능, 사용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물리적·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가 인공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 ▶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

구성 ▶

- 1문단: 디자인의 한계와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등장
- 2문단: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특성과 핵심 요소
- 3문단: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의의

01 ② 1문단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소외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하나의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수의 사용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는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

02 ⑤ ㉠에서 안내 방식에 대한 옵션을 다양화한 것은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든 관람객이 해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차이를 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표준화된 하나의 사용 방식을 활용하여 소외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을 한 것에 해당한다. 다양한 사용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해당한다.

② ㉠은 소외를 줄이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지만,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③ ㉠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④ ㉠에서 단말기의 위치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지문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38~40쪽

01 ②

02 ③

■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형평 운동

해제 ▶ 이 글은 백정이 당한 차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평 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 시대 양천제에서 가

장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백정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받았다. 이에 백정들은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통해 평등과 인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계 경쟁 속에 백정에 대한 반감도 커져 반대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약자 간의 분열을 보여 준다.

주제 ▶ 백정에 대한 차별과 형평 운동의 전개

구성 ▶

- 1문단: 조선 시대의 신분제 구조
- 2문단: 백정의 사회적 지위와 차별
- 3문단: 형평사 결성 및 형평 운동의 시작
- 4문단: 형평 운동과 사회적 연대
- 5문단: 형평 운동에 대한 반발
- 6문단: 갈등의 본질과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

01 ② 3문단에서 백정은 자신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실질적인 신분 해방을 위해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사회 운동 단체들과 합세하여 평등권을 주장하는 운동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정이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 운동을 한 것이지, 사회 운동 단체들이 형평 운동으로 형평사를 조직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형평 운동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인권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관노비에 해당하는 공천인 칠반은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정한 자유를 누린 반면, 사노비에 해당하는 사천인 팔반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모든 신분제가 명목상 폐지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당시 대부분의 양민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장사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했다고 하였다.

02 ③ 양민으로 구성된 균중들이 시대를 돌아다니며 형평사원들의 집을 찾아 습격한 것은 백정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노동 시장에서 백정이 자신들의 경쟁자로 다가온 것에 대한 공포와 적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독립 회복을 위한 대중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형평 운동은 다양한 대중 운동에서도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조직의 확산을 도모했다고 하였다.
- ② 6문단에서 형평 운동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백정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④ 5문단에서 양민들은 자신의 경쟁자로 다가온 백정 출신에 대해 공포를 느꼈으며, 그로 인한 적의가 형평 운동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일제는 소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백정의 사회적 계급이 유지되길 바라며 백정 출신들을 도수장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며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입장은 폭력 사태 해결에 힘쓰지 않았던 경찰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문으로 이해하기 3 예시 답안

본문 41~44쪽

- 01** ⑤
- 02** ⑤
- 03** ①

■ 가상 메모리

해제 ▶ 이 글은 가상 메모리의 개념과 구현 방법을 다루고 있다.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가상 메모리는 컴퓨터가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두고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페이지로 나누어 페이지 단위로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방법인 페이지징을 많이 사용한다. 필요한 페이지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기 위해서는 페이지 교체를 위한 규칙이 요청되는데, 여기에는 FIFO, LRU, LFU 등의 방법이 있다.

주제 ▶ 가상 메모리의 원리와 구현 방법

구성 ▶

- 1문단: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 2문단: 가상 메모리의 필요성
- 3문단: 가상 메모리 중 하나인 페이지징 방식
- 4문단: 페이지징 방식의 원리
- 5문단: 페이지 교체의 의미와 절차
- 6문단: 다양한 페이지 교체 방식

01 ⑤ 1문단에서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후 처리하고, 처리가 끝나면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당장 사용할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컴퓨터에는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 장치와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주기억 장치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보조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크다.
- ② 1문단에서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 장치와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주기억 장치가 있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보조 기억 장치에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당장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불러와 저장해 놓고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보조 기억 장치는 영구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서 복사해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고 처리한다고 했으므로 두 기억 장치에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02 ⑤ 2문단에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 중 당장 구동시킬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상 메모리가 보조 기억 장치의 저장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가상 메모리를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분은 보조 기억 장치에 두고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 장치로 불러서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하고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것을 페이징이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상 메모리

를 위해 페이징을 할 때는 보조 기억 장치의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단위로 분할한다.

② 2문단에서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 중 당장 구동시킬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두는 방식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상 메모리는 프로그램의 필요한 부분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 메모리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저장 용량이 구동할 프로그램 전체를 올리기 충분치 않을 때 활용한다.

④ 2문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상 메모리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상 메모리는 저장 용량이 작은 주기억 장치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03 ① 6문단에서 FIFO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먼저 교체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현재 페이지 프레임은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인 B0, A2, A1, B3으로 채워진 상태이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페이지 프레임에 머문 페이지는 주기억 장치에 세 번째로 들어온 페이지인 A1인데 이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2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페이지 A3을 실행하려면,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데 FIFO를 따른다면, 삭제 대상은 페이지 프레임에 가장 오래 머문 A1이고 그것은 페이지 프레임 2에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2에 들어갈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5문단에서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찼을 때 새로운 페이지의 사용이 필요해지면 기존의 페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저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FIFO를 따르든 다른 방법을 따르든, 현재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은 가장 나중에 사용한 페이지인 B0, A2, A1, B3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③ 6문단에서 LRU를 따른다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보기>에서 현재 페이지 프레임은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인 B0, A2, A1, B3으로 채워진 상태이다. 이 4개의 페이지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는 B3이므로 이제 이 페이지가 삭제될 차례이다.

④ 4문단에서 페이지 부재란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6문단에서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주기억 장치에는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고, A0, B2, A1, B3, B0, B3, A1, A2, B0의 순서로 페이지가 실행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LRU를 따른다면,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은 처음 4개의 페이지가 실행될 때에는 A0, B2, A1, B3으로 채워지고, 다음으로 페이지 B0을 실행할 때 최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초의 페이지 부재는 두 번째로 B3이 사용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B0이 사용될 때 발생했다.

⑤ 6문단에서 LFU는 '최소 빈도 사용'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교체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LFU를 따른다면,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은 처음 4개의 페이지가 실행될 때에는 A0, B2, A1, B3으로 채워지고, 다음으로 실행될 페이지 B0은 페이지 프레임에 없으므로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다. 이때 A0, B2, A1, B3은 모두 1번씩 사용되었으므로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으로 FIFO를 쓸 경우 가장 먼저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 A0이 삭제 대상이다.

4장 독서의 태도

지문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본문 46~47쪽

- 01 ②
- 02 ②

■ 디지털 읽기

해제 > 이 글은 디지털 읽기를 인쇄물 읽기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읽기는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화면에 제시되는 텍스트를 읽는 것이다. 디지털 읽기는 인쇄물을 읽을 때

와 달리 독자의 초점이 여러 텍스트로 옮겨 가기 쉽다. 또한 디지털 읽기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읽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디지털 읽기의 특징은 우리의 독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경우 스크롤 방식으로 읽을 때 인쇄물을 통해 읽을 때보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정확성은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 인쇄물을 읽는 것보다 독자의 인지적 부담이 크다. 읽기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독자의 주의력이 분산되기도 쉽다.

주제 > 디지털 읽기에 대한 이해

구성 >

- 1문단: 디지털 읽기의 상황
- 2문단: 여러 텍스트를 옮겨 가며 읽기 쉬운 디지털 읽기
- 3문단: 스크롤하며 읽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는 디지털 읽기
- 4문단: 디지털 읽기가 독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01 ② 3문단에 따르면, F형 읽기 패턴은 디지털 읽기에서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 스크롤 방식으로 읽는 것은 텍스트가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점검하려는 경우에 편리한 것이지,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된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텍스트에 접근하거나 탐색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독자의 초점이 주어진 텍스트에서 벗어나 다른 텍스트로 옮겨 가기 쉽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인쇄물 읽기는 주로 문자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텍스트에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2차원적 시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동일한 텍스트를 읽을 때 인쇄물을 통해 읽는 것보다 화면에서 스크롤 방식으로 읽는 것이 속도는 더 빨라지지만 정확성은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가 인쇄물을 읽을 때보다 읽기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 더 자주 일어나 독자의 주의력이 쉽게 분산된다.

02 ② 2문단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는 독자가 다른 텍스트로 쉽게 이동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텍스트에 접근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한다고 하였지만, 4문단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구현된 디지털 텍스트

는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케이팝 산업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사전과 영상을 검색했다는 내용을 통해 탐색하는 과정이 수월해 독자의 인지적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구현된 디지털 텍스트 읽기 상황에서는 독자가 읽고 있는 텍스트와 추가적으로 탐색한 텍스트를 서로 연결하며 읽는 다문서 읽기 수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인터넷 사전을 검색하고 하이퍼링크로 ‘케이팝’과 ‘케이팝의 현황’에 관한 텍스트를 연결하여 읽었다는 내용을 통해 다문서 읽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스크롤하며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방식은 텍스트가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점검하려는 경우에 편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케이팝 현황’을 다룬 텍스트를 스크롤해서 훑어보고 발표에 활용하겠다고 한 내용을 통해 텍스트가 읽을 가치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점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멀티태스킹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독자의 주의력이 분산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케이팝의 현황’을 다룬 텍스트의 첫 문단만 읽고 영상을 검색하다가 물건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독자의 주의력이 분산되기 쉽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구현된 디지털 텍스트는 독자가 어떤 정보를 선택할지 지속적으로 판단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여러 영상 링크 중 제목만 보고 필요한 영상을 찾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통해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다양한 정보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판단을 많이 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복잡계 경제학

해제 > 이 글은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에서 현대 경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 변화와 세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미국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등장한 복잡계 경제학은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식적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또한 비정형성, 창발, 자기 조직화 능력 등의 개념을 통해 현대 경제에서 불확실성과 상호 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주제 > 현대 경제에 대한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

구성 >

- 1문단: 복잡계 경제학의 등장 배경
- 2문단: 현대 경제의 복잡성과 비정형성
- 3문단: 창발을 통한 시장 질서의 형성
- 4문단: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자기 조직화 능력

01 ⑤ 자발적으로 나타난 시장의 질서는 내부의 구성 요소 각각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으로 오직 전체 수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로 고착은 기술뿐 아니라 정책, 제도,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고 하였다.

② 창발은 새로운 질서, 구조, 성질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시장의 질서는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복잡계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현대 경제에서 외부의 지시나 하향식 통제로 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식적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기술 선택에서는 효율성보다는 경로 의존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02 ③ 쿼티보다 입력 효율이 우수한 자판 배열이 개발된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기술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곧바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경제의 비정형성이 해소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로 의존성이란 어떤 선택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그 초기 선택의 제약을 받는 특성이다. 쿼티 자판 배열보다 입력 효율이 높은 자판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문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48~49쪽

01 ⑤

02 ③

03 불확실성, 상호 작용, 변화 가능성

쿼터 자판 배열이 초기 선택이 되었고, 이 초기 선택이 그 이후의 선택을 제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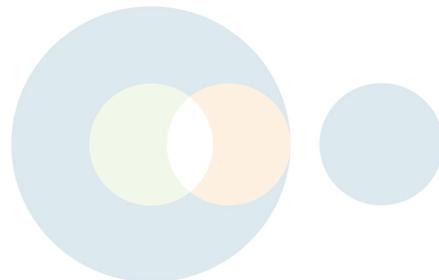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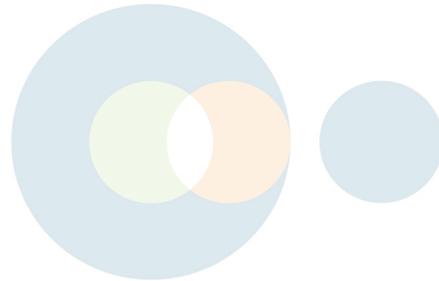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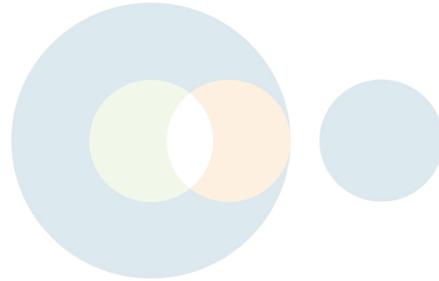
②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술의 가치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다. 쿼터 자판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쿼터 자판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의 학습 비용은 익숙한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는 경로 고착의 주요 요인이 된다.

⑤ 쿼터 자판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경로 의존성과 관련된다. 초기에 이용자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 역시 경로 의존성이 작용한 것이다.

03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유기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 통제가 아닌, 불확실성과 상호 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EBS



01 인문·예술 본문 54~5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 하이데거의 존재론

해제 > 하이데거는 유물론과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며,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한 서양의 전통 철학을 비판하며,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으로 분류하고,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였다. 인간이 사물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

주제 > 하이데거의 존재론

구성 >

- 1문단: 유물론과 주관적 관념론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 2문단: 시간과 존재를 관련지어 이해한 하이데거의 관점
- 3문단: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 4문단: 서양의 전통 철학과 대응설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 5문단: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과 그의 관점의 의의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 따르면, 대응설은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응설이 사물을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있는 실체라고 바라본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따르면,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는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고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4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였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④ 4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다른 존재 가능성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고,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하이데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이데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②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를 주체가 정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고, 현존재와 사물의 만남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의미가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인간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⑤ 하이데거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체를 거부하고, 현존재와 사물의 만남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철수는 자전거 체인이 끊어지기 전에는 자전거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이때의 자전거는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는, 자전거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현존재의 인식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며, 인간과 사물의 만남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를 살펴보며 자전거의 사양을 파악할 때는, 자전거를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므로, 자전거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 ③ 철수는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면서도 자전거라는 도구 자체를 의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자전거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하이데거는 사물, 즉 도구적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하며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02

인문·예술

본문 58~61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③

미니멀리즘 음악

해제 > 이 글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과 그 미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 음악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 것의 반복'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미니멀리즘 음악은 라 몬테 영의 배음 활용이나 스티브 라이히의 위상 변위 기법처럼 단순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안의 미세한 음향적 차이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감상자는 작곡가가 설정한 서사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소리 자체의 순간적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게 되며,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드러내는 작법을 통해 전통적 음악이 유지해 온 주제 중심적 서사를 해체한다. 결국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음악은 고정된 구조의 재현이 아닌 미세한 차이를 경험하게 하는 개방적인 미적 형식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주제 > 미니멀리즘 음악의 미학과 감상 방식의 변화

구성 >

- 1문단: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
- 2문단: '같은 것의 반복'과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 3문단: 라 몬테 영의 배음을 통한 차이의 생성
- 4문단: 스티브 라이히의 위상 변위를 통한 차이의 생성
- 5문단: 감상 방식의 전환과 음악 개념의 새로운 정의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 '그 자체로 존재함'을 중시한다. 또한 최소한의 음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 구조를 실현한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음악의 개방적 구조는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특정 의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미니멀리즘 음악이 특정 상징이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구조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여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나 화성 전개를 축소하고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며, 5문단에 따르면,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달라지는 음향을 직접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난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 전달보다 감상자의 감상 경험 그 자체를 중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2문단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음색과 강세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 감상자가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한다. 따라서 단순한 음형이나 패턴의 반복이 소리 자체의 순간적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작곡 전략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반복되는 가운데 매 순간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 내고, 4문단에 따르면, 위상 변위를 통해 동어 반복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5문단에 따르면, 감상자는 미리 정해진 주제를 알아맞히기보다 지금 울리는 음들의 강도와 위상의 미묘한 변화를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제시된다. 따라서 감상자가 선율 자체를 기억하기보다 연주 과정에서 경험한 예측하기 어려운 청각 사건들을 통해 음악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와 화성 전개를 축소하여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하고, 5문단에 따르면, 음악적 경험을 전통적인 음계나 화성 구조의 틀을 넘어 음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체감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하며 감상자를 능동적 참여자로 만든다. 따라서 외부적 서사보다 음악적 요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감상자가 매 순간 발생하는 음악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소나타 형식에서처럼 제시부의 주제가 발전부에서 변주된 후 재현부에서 회귀함으로써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이다. 이는 주제의 강조를 통해 음악 전체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은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음색의 미세한 차이나 미묘한 위상의 변화 같은 음향적 차이가 드러나 감상자가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반복으로, 표면적 동일성 속에서 미세한 음향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성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 작곡가가 의도한 주제를 강화하는 반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이 작곡가의 의도를 감상자가 수동적으로 재확인하게 만드는 반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를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 존재에서 음들의 강도와 미묘한 위상의 변화를 온전히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나게 한다.

③ ㉠에서 반복 과정 중 주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의 목적은 반복을 통해 새로운 주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 중심적 서사를 해체하고 감상자가 소리 자체의 미세한 변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반복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음악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고 내재적 과정을 추구하는 것은 미니멀리즘 음악이 지닌 ㉡의 특징이다. 반대로, 외부적 서사나 상징을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확인 및 강화하는 것은 전통적 서양 음악이 지닌 ㉠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은 소나타 형식에서처럼 제시와 발전, 재현을 거치는 과정으로, 동일한 패턴의 기계적 반복이라기보다 주제의 변주와 전개가 포함된 구조이다. 또한, 미니멀리즘 음악이 기존의 복잡한 화성 전개와 서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해체한다는 점에서, ㉡이 화성 구조의 반복을 통해 서사적 전개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 따르면, ㉠은 연주자가 완전 5도 관계의 두 음을 가능한 오래 지속시키는 작품으로, 감상자는 두 음 속에 포함된 배음들의 전개와 조합을 경험하며 표면적으로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배음 구조에 의해 세기, 강세, 높이가 미묘하게 변하는 음의 지속을 통해 깊이를 탐구하게 된다. 반면 4문단에 따르면, ㉡은 동일한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이 점차 어긋나게 되는 위상 변위 기법을 사용해, 두 악기의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 내는, 패턴의 시간적 중첩에 의한 음들 간 어울림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작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한 연주자가 피아노와 같은 단일 악기에서 두 음을 길

게 누르는 방식으로, 동일한 두 음의 지속 속에서 배음 구조에 의한 세기, 강세, 높이의 미묘한 변화라는 음 자체의 속성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 반면 ⑥는 동일한 패턴을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연주해 악기들 사이의 관계 변화로 새로운 사건을 생성한다.

② ⑥의 핵심 기법은 위상 변위로, 이는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하여 점차 어긋나게 만드는 기법이다. 즉 ⑥는 연주 행위의 미세한 속도 차이로 인해 두 개의 동일한 패턴이 어긋나며 변화를 이끌어 낸다.

③ ④와 ⑥는 모두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작곡가가 설정한 서사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전통적 감상법에서 벗어나,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의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집중하고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⑤ ④의 배음 전개와 그에 따른 세기, 강세, 높이의 미묘한 변화는 완전 5도라는 음 간격의 정수비와 배음 구조에서 비롯된 음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반면, ⑥에서의 변화는 동일한 패턴을 연주하는 여러 악기에게 서로 다른 속도로 연주하도록 하는 위상 변위라는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생성된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 따르면, 베르그송은 진정한 시간을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각 속으로 녹아들어 새로운 상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질적인 흐름으로서의 '지속'이라 보고, 이를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이고 공간화된 시간과 구별하며, 진정한 시간은 주체의 내면에서 체험되는 흐름 그 자체라고 보았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동어 반복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5문단에 따르면, 음악은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매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를 감상자 각자가 경험하도록 여지를 열어 두는 미적 형식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 감상자가 경험하는 것은 작곡가의 의도를 충실히 재현하는 소통이라기보다 각자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고유한 시간의 흐름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공간화된 시간'은 모두가 동일하게 측정하고 인지하는 객관적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지속'은 주체의 내면에서 체험되는 고유한 시간의 흐름이다. 미니멀리즘이 보편적 주제를 거부하고 감상자 각자의 고유한 청각적 경험을 중시하

는 것은 '공간화된 시간'의 질서보다 내면에서 체험되는 '지속'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베르그송의 철학과 연결된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전통적인 시간관은 시계가 가리키는 객관적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며, 진정한 시간은 주체의 내면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지속'이다. 5문단에 따르면, 전통적 음악 감상은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 중심적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인 반면, 미니멀리즘 음악 감상은 지금 울리는 음향의 미세한 변화를 내재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통 감상을 외부의 객관적 구조 인식에, 미니멀리즘 감상을 내면의 고유한 시간적 실재 체험에 대응시킬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공간화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 나열된 분석 가능한 구조이며, '지속'은 나눌 수 없는 시간의 질적인 흐름이다. 2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구조적 차이가 거의 없는 반복 속에서 감상자가 주제나 구조를 분석적으로 찾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달라지는 음향의 흐름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패턴이 공간화된 시간 속 분석을 무산시키고 감상자가 나눌 수 없는 시간의 질적 흐름에 몰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베르그송의 '지속'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 융합하며 끊임없이 이질적인 상태로 변모하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2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미니멀리즘 음악에서 감상자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음형의 반복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나는 음악적 사건을 경험하며 고정된 주제나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음향의 흐름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만나는 것은 고정된 음향 객체가 아닌 변모하는 운동성 자체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03

인문·예술

본문 62~65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⑤

■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 마리탱과 메스너를 중심으로
해제 ▶ 이 글은 자연법 개념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자연법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도덕규범으로 설정되며, 실정법과 구별된다. 고대 스토아학파에 의해 체계화된 자

연법사상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인간 이성이 신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체계화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본성에 내재된 내면적 질서로 해석하고, 이를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철학적 기반으로 보았다. 요하네스 메스너는 자연법을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며, 자연법이 개인적 성찰을 넘어 사회 제도와 정책의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의 마무리에서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이해를 비교하면서, 두 입장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 자연법의 개념과 발전 과정 및 현대 사회에 갖는 의의
구성 ▶

- 1문단: 실정법과 자연법의 개념과 관계
- 2문단: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와 발전 과정
- 3문단: 자크 마리탱의 자연법
- 4문단: 요하네스 메스너의 자연법
- 5문단: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의 의의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은 고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 그 이전에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한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고 로마 시대, 중세 아퀴나스까지 자연법 이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 마리탱과 메스너로 이어지는 현대적 논의까지 다루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마리탱과 메스너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며 논쟁의 과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사회적 통념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법의 사상적 발전 흐름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공시적 관점이 아닌 통시적 관점이다.
- ⑤ 한계 제시나 대안 모색보다는 각 사상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신의 뜻에 따라 정해진 영

원법의 일부로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주로 국가에 의해 ~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에서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 자리 잡게 되었고”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과 5문단을 통해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메스너가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본 것은 사회 제도와 정책을 통해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구조로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 제도와 정책을 보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과 5문단을 통해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은 마리탱에게 있어서 개인의 내면적 각성이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과 5문단을 통해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은 인간의 도덕적 성찰과 이성적 자각이 사회 정의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과 5문단을 통해 사회 제도와 정책이 자연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메스너가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을 통해 자연법이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성격이 있다는 마리탱과 메스너의 공통적 인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의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를 통해 실정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의 “실정법은 입법 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를 통해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당시 나치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만든, 강제력을 가진 실정법임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실정법은 입법 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를 통해 나치 독일이 제정한 법률은 국가의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된 이상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실정법임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의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침해한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자연법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해진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의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를 통해 전후 국제 사회가 나치 독일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단죄한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 ㉡, ㉢은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원리이자 보편적 규범으로 보았다. 또 철학자 A는 도덕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자연법을 가변적 질서로 보았다. 하지만 철학자 B는 도덕을 허구라고 보면서 자연법을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가변적 질서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통해 ㉠은 자연법을 신의 영원법의 일부인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하지만, 철학자 B는 도덕을 부정하고 자연법 역시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을 통해 ㉡은 인간 본성·이성에 근거해 자연법의 보편성을 인정하지만, 철학자 A는 그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을 통해 ㉢은 인간 본성·이성에 근거해 자연법의 보편성과 인권적 의미를 긍정하지만, 철학자 B는 자연법 자체를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④ 4문단을 통해 ㉣은 자연법이 사회 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철학자 A는 자연법이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04 인문·예술

본문 66~69쪽

- 01 ① 02 ⑤ 03 ④ 04 ②
- 05 ④

■ 예술과 표현의 관계

해제 ㉠ 이 글은 ‘표현’의 개념을 예술과 관련해 탐구하면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크로체와 콜링우드 제시한 견해는 예술을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직관적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톨스토이가 대표하는 견해는 예술을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보지만, 예술가와 관객의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는 예술 작품 자체의 표현성을 강조한다. 랭어는 예술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을 상징화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사성 이론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근거로 음악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감정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거나 표현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점을 지닌다. 즉 이 글은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와 그 한계 구성 ㉢

- 1문단: ‘표현’이라는 말의 사용과 예술
- 2문단: 표현을 예술가의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
- 3문단: 표현을 예술가의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의 한계
- 4문단: 표현을 예술가의 감정 전달 행위로 보는 견해와 그 한계

- 5문단: 표현을 예술 작품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
- 6문단: 랭어의 견해와 그 한계
- 7문단: 유사성 이론의 내용과 그 한계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예술과 표현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을 설명한 후, 각 견해의 끝부분에서 해당 견해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 글에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의 관점을 비교하거나, 이를 절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⑤ 이 글에 특정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 작품 창작에 있어 예술가의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서 크로체는 예술을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콜링우드는 ㉗를 주장했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 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그런데 예술이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된 특수한 기능의 산물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과 예술을 다르게 본 것이다. 따라서 이는 ㉗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콜링우드는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㉗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크로체는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

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직관되기 이전의 것에 대한 크로체의 관점을 드러낸 것일 뿐, ㉗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서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는 일반인과 다른 예술가의 능력을 나타낸 것일 뿐, ㉗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03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문단에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예술은 예술가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고,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기>에서 A 평론가는 예술가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A 평론가가 ㉘를 평가한다고 할 때, 예술 작품이 지니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고 했으며, A 평론가는 예술의 본질과 직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술의 본질과 직관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크로체는 예술을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고 했으며, A 평론가는 예술 창작 과정에서 직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술 창작 과정에서 직관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서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표현을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했으며, A 평론가는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㉘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크로체는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된다고 했으며, A 평론가는 현실 세계를 일어하는 예술가의 독창적 관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독창적 관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했고, 3문단에서 콜링우드는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 속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콜링우드가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과 몸동작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가 A가 자신이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을 경우, 이를 표현이 아니라 전달을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볼 것이다.

③ 4문단에서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색·소리·움직임·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다고 했다. 따라서 슬픈 감정으로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들은 감상자 C가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톨스토이는 작곡가 B가 예술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볼 것이다.

④ 6문단에서 랭어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용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고 했다. 따라서 감상자 C가 작곡가 B가 만든 곡에서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은, 곡의 형식이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⑤ 7문단에서 유사성 이론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고 하면서,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사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화가 A가 그린 그림에서 사람들이 환희를 알아본다면 이는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이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조용하는’에서 ‘조용하다’의 뜻은 ‘둘 이상의 사물이 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다.’이다. 따라서 이를 ‘어긋나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환기된’에서 ‘환기되다’의 뜻은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가 일어나게 되다.’이다. 따라서 이를 ‘불러일으켜진’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의 ‘간과하는’에서 ‘간과하다’의 뜻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이다. 따라서 이를 ‘놓치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의 ‘각인된’에서 ‘각인되다’의 뜻은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이다. 따라서 이를 ‘새겨진’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의 ‘탐지하는’에서 ‘탐지하다’의 뜻은 ‘숨겨지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자세히 살펴 알아내다.’이다. 따라서 이를 ‘알아내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05

인문·예술

본문 70~74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②

■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

해제 ▶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건이 개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전과 인지를 바탕으로 플롯을 구분하였다. 그는 비극의 인물이 고귀한 신분 인물로서 인간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관객들은 자신과 유사한 인물인 주인공이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 카타르시스에 대해 윤리학적, 정신 분석학적, 인지적 해석은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비극론은 현대의 많은 예술 분야에 사용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 ▶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

구성 ▶

- 1문단: 비극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아리스토텔레스
- 2문단: 플롯의 핵심 요소인 반전과 인지
- 3문단: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
- 4문단: 카타르시스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
- 5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대한 비판 및 그의 비극론의 의의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희극이라고 하였다. 희극이 주인공의 영웅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이나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명명하였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하며, 비극이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하층 계급의 인

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비극을 통해 관객의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은 플롯의 연결을 통해 인지적 즐거움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카타르시스가 사람들에게 쌓여 있는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맑게 만들어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고 본다.
- ③ ㉠은 카타르시스를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하는 것으로 보고, ㉡은 카타르시스를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을 분출하여 해소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은 억눌려 있던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하여 분출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은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고 보았다.

03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플라톤은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비극이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되는 성품을 함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문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한 플라톤에 비해 문학의 긍정적 효과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

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이 비극에서 자신과 유사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공포를 느낀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관객이 공포를 느낀다고 볼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주인공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고, 악행이나 악덕이 아닌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크레온이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인간적 결함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이 개연성을 갖춰야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앞선 사건으로부터의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이몬의 죽음은 하이몬과 안티고네가 열렬히 사랑했다는 앞선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더 큰 불행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연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반전으로 보았고,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인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크레온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것은 인지로, 안티고네를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반전으로 볼 것이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급변하다’는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⑥는 ‘이어지는’과 바꿔 쓸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함양하다’는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④는 ‘기르는’과 바꿔 쓸 수 있다.

③ ‘과잉되다’는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아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③은 ‘넘치는’과 바꿔 쓸 수 있다.

④ ‘해소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④는 ‘없애는’과 바꿔 쓸 수 있다.

⑤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⑤는 ‘채우게’와 바꿔 쓸 수 있다.

06

인문·예술

본문 75~78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⑤

■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이론

해제 ▶ 이 글은 독일의 철학자 프레게와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동일성 명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프레게는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명제가 ‘셋별은 셋별이다.’와 달리 단순한 동어 반복이 아니라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과 지시체 외에 ‘뜻’이라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반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동일시하며,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러셀은 동일성 명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드러내고, 프레게가 제시한 ‘뜻’이 없어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제 ▶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에 대한 프레게와 러셀의 이론

구성 ▶

- 1문단: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구별
- 2문단: 동일성 명제 간의 정보 차이

- 3문단: ‘뜻’의 객관성
- 4문단: 프레게 이론에 대한 러셀의 비판적 입장과 그 입장의 한계
- 5문단: 기술 이론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의 개념
- 6문단: 기술 이론에 의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의 해결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b와 동일하다.’와 같은 동일성 명제가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프레게와 러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프레게와 러셀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이론들을 통합하고 있지 않다.
- ② 쌍별과 개밥바라기를 동일성 명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으나, 이 사례를 통해 동일성 명제의 장점이나 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④ 동일성 명제와 관련하여 프레게와 러셀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들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동일성 명제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정보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뜻’을 통해서 ‘이름’이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레게가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름’의 정보를 파악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 명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프레게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고 하였다.
- ⑤ 6문단에서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였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기술 이론에 따르면, ‘쌍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명제에서 ‘쌍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이며,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쌍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문장의 ‘쌍별’과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였으며, 위장된 이름은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된다고 하였다.
- ② ‘쌍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의 금성을 말하는 것이다.
- ③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위장된 이름을 제거하여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할 수 있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서 프레게는 ‘뜻’을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았다고 하였고,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5문단에서 러셀은 ‘진정한 이름’을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된 이름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프레게는 ‘뜻’을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레게에 따르면 ‘뜻’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 있으나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이 아니다.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 대상은 ‘지시체’이다.
- ② 5문단을 통해 러셀이 동일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이론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러셀은 동일성 명제들의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의 개념을 사용하여 동일성 명제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을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서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레게가 말한 ‘뜻’은 언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관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⑤ 3문단에서 ‘뜻’은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으로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혔다고 하였다. 그러나 5문단에서 ‘진정한 이름’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 있다고 하였으므로, ‘진정한 이름’은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프레게는 ‘육이오 전쟁’과 ‘한국 전쟁’이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러셀은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라고 보기 때문에 ‘육이오 전쟁’과 ‘한국 전쟁’ 모두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그 대상 자체가 의미라고 볼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프레게는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는 명제보다 ‘육이오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는 명제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것이다. 러셀은 기술 이론에 따라 ‘육이오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는 명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는 명제와 구분된다고 볼 것이다.

② 프레게는 ‘뜻’을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에 비유하여 ‘육이오 전쟁’의 ‘뜻’을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으로, ‘육이오 전쟁’의 관념을 관찰자의 망막에 비친 영상으로 비유할 것이다. 한편 러셀은 ‘육이오 전쟁’을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진정한 이름이 아닌 위장된 이름으로 볼 것이다.

③ 프레게는 ‘육이오 전쟁’이라는 단어의 ‘뜻’을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볼 것이므로 ‘뜻’이 없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러셀은 ‘육이오 전쟁’이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된다고 볼 것이다.

④ 러셀은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 하였으므로, ‘육이오 전쟁’, ‘한국 전쟁’과 같은 위장된 이름을 기술 이론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장재, 정이와 주희의 철학

해제 > 이 글은 성리학의 사상적 전개를 다룬 글이다. 북송 시대의 철학자인 장재와 정이의 철학을 설명한 다음, 이들의 철학과 주희의 성리학의 관련성을 서술하고 있다. 장재는 ‘기’를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으로 보며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정이는 ‘이’를 만물의 본질로 보고 인간 내면의 성찰과 수양을 강조하였다. 주희는 이들의 사상을 종합하여 ‘이’를 본체로, ‘기’를 그 발현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기론을 확립함으로써 성리학의 철학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주제 > 장재, 정이와 주희의 철학

구성 >

- 1문단: 북송 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장재와 정이
- 2문단: 장재의 ‘기’ 중심의 철학
- 3문단: 정이의 ‘이’ 중심의 철학
- 4문단: 장재·정이 사상을 종합한 주희의 철학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정이는 ‘이’를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 존재의 본질 자체로 보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감정이 존재의 본질인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따르면, 장재는 ‘기’를 존재의 근원으로 보았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정이는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니므로 인간의 본성 또한 본래 선하다고 보았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장재는 ‘이’는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기’ 안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3문단에 따르면, 정이는 모든 존재에 ‘이’가 내재한다고 보았다.
- ⑤ 1문단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을 대표하는 북송 시대의 철학자로 장재와 정이를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장재는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고 인간은 화육이라는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인’을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화육이라는 우주의 작

07 인문·예술

본문 79~82쪽

- 01 ③ 02 ② 03 ① 04 ③
- 05 ③

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재는 ‘인’을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이라고 하였다. ‘인’은 본성이지, 부여된 의무가 아니다.
- ③ 장재는 ‘인’의 본성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 ④ 장재는 ‘인’을 외부적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 ⑤ 장재는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며 ‘인’을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이라고 보았다. ‘인’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장재는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는데, 주희 역시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주희는 천인합일을 강조한 장재의 관점은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장재는 인간의 본성을 천도와 합일된 순수한 것으로 보았다. 장재가 인간 본성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③ 주희는 우주에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라고 보았다. 이는 우주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한다는 장재의 ‘화육’ 개념을 주희가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주희는 ‘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 ⑤ 정이는 인간은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존천리 거인욕’의 수양론을 내세웠다. 주희 역시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의 ‘갑’은 ‘이’와 ‘기’ 사이에 위계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주희는 ‘이’는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주희는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위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에서 주희가 ‘이’를 본체로, ‘기’를 수단으로 보아 그 상대적 우선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희는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본다.
- ② 주희는 ‘이’는 선하더라도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에 편차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 ④ 주희는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라고 보며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 ⑤ 주희는 ‘이’를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 ‘기’를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사단과 칠정을 대등하게 본 것은 아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주도하다’는 ‘앞장서서 조직이나 무리를 이끌다.’라는 뜻이다. ㉠은 ‘이끌었는데’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인문·예술

본문 83~87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⑤
- 05 ①

■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해제 > 이 글은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가 주창한 ‘현대의 신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롤랑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중 매체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하나의 기호로 보고, 여기에는 보이는 의미 외에 특정한 사회적·이념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현대의 신화’라고 하였다. 바르트는 대중 매체를 통해 ‘현대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이념이 주입되기 때문에 수용자는 모든 문화 콘텐츠의 배후에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역사적 조건, 이념적 작용 등을 파악하여 능동적인 해석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 > 롤랑 바르트의 ‘현대의 신화’의 개념과 특성

구성 >

- 1문단: 롤랑 바르트의 '현대의 신화'의 개념
- 2문단: 바르트가 분석 도구로 활용한 소쉬르의 기호학
- 3문단: '1차 기호 체계'와 '2차 기호 체계'
- 4문단: '자연화'의 개념과 효과
- 5문단: 잡지 표지를 통해 본 '자연화'의 사례
- 6문단: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은 롤랑 바르트가 명명한 새로운 신화의 개념인 '현대의 신화'에 대해 프랑스의 잡지 표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대중 매체와 신화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롤랑 바르트의 이론과 그것의 기반이 된 소쉬르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신화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④ 대중 매체가 전통적 신화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에 사회적·이념적 함의가 담겨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현대의 신화'로 새롭게 명명한 롤랑 바르트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롤랑 바르트가 제시한 개념인 '현대의 신화'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전통적 신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을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차 기호 체계'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 소쉬르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2차 기호 체계'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의미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특정 이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차 기호 체계'는 '2차 기호 체계'에서 다른 새로운 기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기표로 작용하게 된다.
- ② '2차 기호 체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의미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 ③ '1차 기호 체계'는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으로 결합하는 단

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2차 기호 체계'는 현재 시점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기호 체계'에 사회적·이념적 함의가 덧붙여져 형성되는 것이다.

⑤ '1차 기호 체계'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특정한 의도가 담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다. '2차 기호 체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기호 체계'에 의도가 담긴 이념적 함의가 덧붙을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 '현대의 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를 자연화하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호에 덧붙여진 의미를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대의 신화'는 하나의 기호에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콘텐츠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현대의 신화'는 허구를 바탕으로 이념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기호를 통해 은밀하게 전파하는 것이다.
- ③ '현대의 신화'는 의미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감추기 때문에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④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기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지만 특정 이념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 신화는 일상 기호에 사회적·이념적 함의를 덧붙여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보이게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포스터 속의 파티 장면은 특정한 생활 양식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삶의 방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수용자가 이를 보편적인 현실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특정한 이념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아파트 광고 포스터는 일상적 장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순수하면서도 중립적인 진실이 아니라 이면에 특정한 이념을 담고 있다.

- ② 광고 문구는 ‘성공’, ‘안락함’이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채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다.
- ③ 아파트의 외형적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이념적 함의를 차단하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함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④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반응이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홀은 메시지가 수용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잡지’ 표지 사진도 생산자가 의도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해석 방식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홀에 따르면 잡지 표지 사진을 접하는 수용자에 따라 해석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용자가 항상 협상적 해석이나 대립적 해석을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홀은 대중 매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홀은 수용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해석 방식이 달라져서 메시지에 담긴 생산자의 의도가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2차 기호 체계가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 ⑤ 우세적 해석의 경우 생산자의 의도가 그대로 수용되므로 잡지 표지 사진을 본 수용자는 생산자의 의도대로 프랑스를 인종 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로 받아들일게 된다.

같은 종에 속한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는 성차별주의나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DNA 구성을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DNA는 피부색처럼 도덕적으로 무의미한 생물학적 사실일 뿐이다. 셋째, 인간의 정교한 언어,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 등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종 중첩 논증’에 취약하다.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부족하지만 동물처럼 대우하지 않으며, 일부 영장류 동물은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정신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 차별주의를 정당화하려면 이러한 종 중첩 논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제 > 종 차별주의와 종 중첩 논증

구성 >

- 1문단: 종 차별주의
- 2문단: 성차별주의나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종 차별주의
- 3문단: 생물학적 근거에 의한 종 차별주의 옹호
- 4문단: 고차원적 정신 능력에 의한 종 차별주의 옹호
- 5문단: 종 중첩 논증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과 3문단의 종 차별주의 옹호 근거와 달리 4문단에서 제시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인데, 5문단에서 그것은 종 중첩 논증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 차별주의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종 중첩 논증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종 차별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4문단에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제시되었지만, 5문단에서 그것은 종 중첩 논증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 ② 4문단에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인간의 배타적인 특성으로 제시했고, 5문단에서 그것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곧 인간의 배타적 특성이 도덕적인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 ③ 5문단에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있고 그것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그것은 인간의 배타적인 특성이 아니다.
- ④ 5문단에서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다고 말한 것은 종 차별주의가 여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09 인문·예술

본문 88~92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④
- 05 ④ 06 ③

■ 종 차별주의와 종 중첩 논증

해제 > ‘종 차별주의’는 우리 종의 이익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로는 첫째, 단순히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문단에서 종 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될 수 있다면 종 차별주의는 옹호되고, 이는 종에 따른 다른 대우는 차별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 ② 3문단에서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5문단에서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고차원적 정신 능력에서 동물과 중첩된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같은 성별이나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각각 성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인데, 2문단에서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인간은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리 잘 먹여 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에” 사육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에게는 허용한다고 말했다. 즉 인간에게는 있지만 동물에게는 있지 않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가 있으므로 종에 따른 차별이 아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에서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인간 종에 속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대우받을 이유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각 종의 이익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인간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므로, 종에 따른 차별은 도덕적으로 옹호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1문단에서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인간과 다른 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이유라고 주장해야 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인간 중에서 못 가진 존재도 있다. 따라서 그것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은 인간 종만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③문단에서 DNA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⑥ 3문단에서 “피부색이 같으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⑦ 4문단에서 “우리가 박쥐라면 아마도 위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 ⑧ 4문단에서 자의식과 자존감을 말한 다음에 5문단 시작할 때 “인간의 배타적 특성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05 관점이나 내용 비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는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없어서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대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대우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B는 동물이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A도 인정하는 말로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대화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중첩된 인간으로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기는 향후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생길 수 있지만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화이다.
- ② 어디서 중첩되는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중첩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 ③ 중첩되는 인간은 동물과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똑 같기에 동물을 인간과 일관되게 대우해야 한다는 대화이므로 적절하다.

⑤ 중첩되는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일관적이기는 하나 그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0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과학자에 따르면, ‘갓 태어난 인간 아이’는 ‘중첩된 인간’이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그런 중첩된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문제시한 것뿐이지, “인간에게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자는 주장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학자는 침팬지도 성인 인간과 같은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가지는 데 반해, 아기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므로, 그의 주장은 “종 중첩 논증”을 지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② 과학자의 주장은 고차원적 정신 능력은 인간뿐만 아니라 침팬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배타적 특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④ 과학자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갓 태어난 인간 아이는 대부분의 동물보다 그 능력을 못 가지고 있으므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못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갓 태어난 인간 아이’는 ‘대부분의 동물’보다도 합리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므로, 인간 아이를 동물과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 달리 자연법칙 위반 사건의 가능성은 현재 0이다. 흄의 의도는 종교 부정이 아니라 종교가 이성보다 신앙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주제 > 기적적 사건에 대한 흄의 견해

구성 >

- 1문단: 기적적 사건
- 2문단: 초자연적 사건
- 3문단: 흄의 기적 논증
- 4문단: 프라이스의 반박
- 5문단: 종교의 기초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있는가?”가 흄의 문제의식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3문단에서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흄의 관심은 기적에 대한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과 기적의 가능성의 비교이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아니다.
- ③ 5문단에서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흄은 종교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적은 종교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는 흄의 문제의식이 아니다.
- ④ 2문단에서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적은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되는가는 흄의 문제의식이 아니다.
- ⑤ 3문단에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흄의 관심은 기적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이지 기적의 증언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서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첫 번째 가설은 거짓이거나 속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초자연적

10 인문·예술 본문 93~95쪽

- 01 ① 02 ⑤ 03 ① 04 ①

■ 기적적 사건에 대한 흄의 견해

해제 > 기적적 사건은 단순히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이다. 철학자 흄은 기적 증언의 신뢰성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증언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실제 기적이 일어났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자연법칙은 오랜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사람들이 속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라이스는 복권 당첨 같은 낮은 확률 사건을 예로 흄을 반박했지만, 복권 당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증언은 거짓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긴 하지만,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꼭 초자연적 힘 때문은 아니다.

② 2문단에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느 것이든 전혀 기적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법칙의 사례가 아닌 사건이라고 해서 꼭 기적적 사건인 것은 아니다.

③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사건은 4문단에서 말한 복권 당첨의 예처럼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일어나기에 아주 힘든 일”은 “자연법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몹시 어려운 까닭은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 2문단에서 “기적적이라고 불려야 하는 사건은 자연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마법사가 ‘초자연적 힘’으로 일으킨 사건은 기적적 사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벼락에 맞았지만 살아 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니 기적적 사건은 아니다.

ㄴ.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경제를 빠르게 재건한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기적적 사건은 아니다.

ㄷ. 당첨 확률이 백만분의 1인 로또에 두 번 연속 당첨된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기적적 사건은 아니다.

ㄹ.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헛것을 본 것이므로 기적적 사건은 아니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3문단에 따르면,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 ㉠가 거짓일 가능성

은 1만분의 1이고 ㉡의 가능성은 6분의 1의 1만 제곱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낮지 않으니 흠은 ㉠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 거짓일 가능성이 ㉡의 가능성인 6분의 1의 1만 제곱보다 낮으면 그 증언은 믿을 수 있다.

③ 프라이스는 4문단에서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보다 큰 사건으로 흠의 주장에 반론을 펼친다. 따라서 ㉠가 거짓일 가능성도 ㉡의 가능성보다 크니 흠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프라이스는 4문단에서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보다 큰데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니 흠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의 가능성보다 크니 흠의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⑤ 흠은 ㉡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니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프라이스도 이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니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다.

11

인문·예술

본문 96~99쪽

01 ④
05 ②

02 ④

03 ⑤

04 ①

■ 기원 본질주의

해제 ㉠ 나는 박쥐나 책상이 될 수 없었고, 다른 부모를 가질 수도 없었다. 만약 부모가 한 달만 늦게 아이를 가졌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원 본질주의’의 핵심이다. 나의 모든 가능한 삶이 공유하는 시작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원이다. 나의 경험이나 유전자는 나의 고유한 특징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일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원, 즉 나를 만든 특정 접합자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크립키의 논증에 따르면, 내가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했다면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곳에서 태어나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 접합자의 원자들이 재할용되어 동일한 배열의 또 다른 접합자가 형성된다면 두 아이 모두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나의 기원조차도 생각만큼 고유하지 않을 수 있다.

주제 > 기원 본질주의**구성** >

- 1문단: 내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이유
- 2문단: 기원 본질주의의 정의
- 3문단: 경험이나 유전자가 나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는 이유
- 4문단: 크립키의 기원 본질주의 옹호 논증
- 5문단: 기원 본질주의에 대한 가능한 반론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와 같은 문제를 던지고, 2문단에서 기원 본질주의라는 중심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다음에 3문단에서 경험이나 유전자가 나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4문단에서 크립키가 중심 이론인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문단에서 기원 본질주의에 대한 반박 사례가 제시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현상 관찰로 볼 수 있지만, 그다음 문단에서 원인, 법칙, 예외 등은 나오지 않는다.
- ② 1문단과 3문단은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장을 제시하고 재반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글은 가설과 실험적 검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1문단과 2문단은 일반론과 구체적 사례 관계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철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에 대한 이론으로 기원 본질주의를 제시한다. 그 이론이 직관적임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이론에 대한 반박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기원 본질주의의 매력과 그에 대한 철학적 반박”이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원의 다양성 속에서 접합자의 정체성이 기원 본질주의를 이끄는 소재이지만, 그것은 중심 화제가 아니다.
- ② 1문단에서 실재와 다른 세계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던지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중심 화제가 아니다.

- ③ 접합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정체성이 기원 본질주의의 핵심 내용이므로 유연성의 역할은 중심 화제가 아니다.
- ⑤ 3문단에서 유전자는 나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므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중심 화제가 아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은 5문단에서 언급되는데, 거기서는 서로 다른 접합자가 동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동일한 접합자로부터 서로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다른 누구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모두 할 가능성이 작지만, 그럼에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므로, 나의 인생 경험은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3문단에서 “일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라고 말했다므로 유전자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성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했다므로,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갈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4문단의 크립키에 따르면, “나는 실제로 유래한 것 외의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므로, 크립키는 내가 유래한 접합자와 동일한 또 다른 접합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크립키는 “나는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5문단은 “내 접합자가 애초의 접합자와 ‘재활용’ 접합자로 두 번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생”기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둘 다 “한 대상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과 ㉡ 모두 한 대상이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이므로, 똑같은 두 대상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전제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접합자의 기원에 관심이 있는데, 이 기원은 대상 내부의 것이다. 따라서 ㉠은 한 대상의 정체성은 그 대상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 모두 한 대상이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대상이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다면 정체성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⑤ ㉠은 기원 본질주의를 주장하므로 한 대상의 정체성은 그 대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은 기원 본질주의를 비판하므로 그런 전제를 갖지 않는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가 두 달을 기다려 낳은 d'는 d와 접합자가 다르므로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정체성이 다르다. 따라서 d와 d'는 정체성이 다르므로 d는 항의할 수 없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c'는 c와 기원이 같으므로 c와 c'는 정체성이 같다. 따라서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c'는 c와 기원이 같으므로 같은 접합자에서 생겼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접합자에서 생겼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d와 d'는 서로 다른 접합자에서 생겼다. 따라서 같은 난자에서 생겼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c(c')와, d와 d'는 모두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는 d와 달리 자신만의 고유한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에서 흔히 사용되며, 특히 생명 윤리 분야에서 안락사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이 논증은 필연적인 미끄러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류일 수 있다. 수북한 머리카락 중 한 올이 빠진다고 해서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연속선상에 명확한 구분 점이 없다고 해서 사소한 것과 끔찍한 결과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중간 지점에서 멈출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락사의 경우, 그 정의와 민주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이 논증은 때로 불가피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제 >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구성 >

- 1문단: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정의
- 2문단: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일상적 사례
- 3문단: 생명 의료 윤리 영역에서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 4문단: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정당성
- 5문단: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오류 가능성
- 6문단: 수사법으로서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되므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므로 무엇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증이므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신중론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④ 1문단에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므로,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⑤ 1문단에서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를 때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모든 사회 변화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12

인문·예술

본문 100~103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④

05 ①

■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해제 >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사소한 첫 발걸음이 결국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논증 방법이다. 베트남전의 도미노 이론이나 알코올 의존증처럼 일상생활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로 보면 미끄러지는 연속선에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정당한 논증이 된다. 그러나 4문단의 대머리 논증은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지만 오류이다. 따라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류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5문단에서 추가적인 주장 없이 “꼭 미끄러진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논증은 오류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왜 미끄러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③ 5문단에서 안락사를 예로 들어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라고 했으므로, 우려하는 사건의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④ 5문단에서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중간에 멈출 수 있다면 비탈길이 반드시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⑤ 5문단에서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연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몹시 나쁜 결과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03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4문단에서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 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도 대머리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머리카락이 한 올이 빠진 것과 한 올이 더 빠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 ㉡ 모두 의미 있는 구분 점이 없다는 점에서 같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6문단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보수주의적 입장이 수사법으로 쓸 때를 말하는 것이지 ㉡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은 4문단에 따르면 모호함 때문에 생기므로 확실성

답 ①

을 보이는 데 쓰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에서 ㉠을 정의할 때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했으므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도 대머리와 대머리가 아닌 것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므로 결과를 예측하는데 쓰이지 않는 것이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쓰이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서 ㉡은 오류라고 말했다. 그러나 5문단에서 ㉡이 오류인 것처럼 ㉠도 오류일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때 오류인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언제나 오류인 것은 아니다.

⑤ 4문단에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 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했고 바로 이어 대머리 논증을 말하고 있으므로, ㉠과 ㉡ 모두 연속선상의 구분 문제를 다룬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5문단에서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그런 평평한 땅에 해당하므로 <보기>와 같은 논증이 오류라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원하리라고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보기>와 같은 논증이 오류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② 초기 14일 내의 배아라고 해도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 대한 실험에 반대하는 근거가 되므로, <보기>의 주장과 같은 주장이 된다.

③ 배아를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비판은 초기 14일 내의 배아에 대한 실험을 옹호하는 근거는 되지만, <보기>와 같은 논증이 오류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⑤ 3개월 된 태아는 초기 14일 내의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만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인간에 가깝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초기 14일 내의 배아와 갓 태어난 아이 사이에 의미 있는 경계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논증이 오류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다.

답 ③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는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의미와 가깝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췌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 ④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므로 의미가 다르다.
-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의 물을 온통 다 흐리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연쇄적인 영향을 뜻하는 ㉠의 의미와 다르다.

13

인문·예술

본문 104~107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⑤

■ 주희의 행적을 따랐던 조선의 사대부들

해제 > 이 글은 주희를 추종한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의 행적을 따랐던 문화적 유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황과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시를 자주 짓거나 「무이구곡도」를 반복적으로 제작하였다. 반면 이이와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의 무이정사나 「무이도가」를 동경하는 단계를 넘어서 조선식 구곡을 경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노론 계열 문인들은 구곡 경영을 통해 주희로부터 이이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노론이 이어 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주제 > 주희를 추종한 조선 사대부들 내의 문화적 유행

구성 >

- 1문단: 주희를 추종한 조선의 사대부들
- 2문단: 이황과 그를 따랐던 사대부들의 「무이도가」 향유 양상
- 3문단: 이이와 그를 따랐던 사대부들의 「무이도가」 향유 양상
- 4문단: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노론 계열 문인들의 구곡 경영의 양상과 목적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3문단에 따르면, 이이가 지은 「고산구곡가」를 주제로 이이가 죽은 뒤에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에 의해 「고산구곡도」가 그려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무이도가」는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주희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화가들이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도를 그렸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이산은 일찍부터 도교의 성지로 알려졌으나 주희가 은거하면서부터 더욱 유명해졌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무이산의 아홉 굽이 계류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구곡의 실경을 묘사한 「무이도가」를 지었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 따르면, 조선식 구곡의 경영은 주희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 3문단에 따르면, 이황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의 「무이도가」를 자연을 마주하여 느끼는 흥의 발현이자 성정 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 보았다. 한편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무이도가」를 학문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담고 있는 시로 보았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주희의 행적을 따라 성리학을 기반으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사대부 사회의 문화적 유행이었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무이산에 은거하며

무이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은 주희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였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이황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시를 자주 지었다. 4문단에 따르면,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 중 노론 계열 문인인 김수증이 아들, 조카들과 함께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곡운구곡가」를 지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 따르면, 이황과 그의 학풍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무이구곡도」를 주희의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인 무이산을 대신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모사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익이 글에서 「무이구곡도」는 주희의 초상화와 같아서 빠짐없이 자세히 그려 내어야 한다고 한 것은 「무이구곡도」를 주희의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을 대신하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 따르면, 「무이도가」를 자연을 마주하여 느끼는 흥의 발현으로 본 것은 이황과 그의 학풍을 따랐던 사대부들의 평가이다. 그리고 이들은 「무이구곡도」를 주희의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인 무이산을 대신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모사에 치중하였다. <보기>에서 권섭은 화양동 계곡의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그린 「화양구곡도」를 높이 평가하고 「무이구곡도」에 대해서는 허황되고 과장된 그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노론 계열의 권섭이 「무이구곡도」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자연을 보고 느낀 흥을 담은 「무이도가」를 재현하지 못해서라고 본 것은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를 따라 구곡을 설정하여 경영하고 그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도를 그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노론 계열 가문 출신인 권신응의 「화양구곡도」는 구곡의 재현을 위해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주희는 무이산에 은거하며 무이정사를 짓고 학

문을 닦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희를 따라 경관이 빼어난 조선의 특정 지역에 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시열이 은거했던 곳에 문인들이 화양서원을 지은 것은 주희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노론 계열 문인들은 구곡 경영을 통해 주희로부터 이이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노론이 이어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론 계열 문인들에 의해 그려진 「고산구곡도」는 이러한 노론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시열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곡을 경영한 것은 노론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노론 계열 문인들은 구곡 경영을 통해 주희로부터 이이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노론이 이어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론 계열 가문 출신인 권신응의 「화양구곡도」는 주희와 이이의 학문적 계보가 송시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보’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을 가지고서 모임 따위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지참(持參)’이다.

01 ③

02 ④

03 ③

04 ③

■ 리더십 이론

해제 ▶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다.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하고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는 업무 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성원의 성숙도인 역량과 의지에 따라, 리더가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번스는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바스는 그의 주장을 계승 및 발전시켰다.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이며 특징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데시와 라이언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 다양한 리더십 이론

구성 ▶

- 1문단: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본 피들러의 관점
- 2문단: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
- 3문단: 변혁적 리더십을 중시한 번스와 리더십의 조합을 강조한 바스
- 4문단: 로크, 데시와 라이언의 리더십 이론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 따르면, 바스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피들러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다고 보았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

가 모두 높을 때는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번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에서 피들러는 리더가 가진 스타일을 업무 지향적 스타일과 관계 지향적 스타일로 구분하고,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상황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문단에서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이론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피들러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합성으로 표현하였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연성으로 표현하였다. 둘 다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한 자질을 타고나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② 피들러는 구성원의 성향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고 보았고,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업무 능력보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더 중시한 것은 아니다.
- ③ 피들러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고 본 것이지만, 리더가 구성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피들러는 권력이 클수록 리더십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리더가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보았다. 허시와 블랜차드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동기 부여를 많이 할수록 리더십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써야 효과가 커진다고 보았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문단에서 피들러는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업무 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는 업무 지향적 리더의 성과가 높고,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지향적 리더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 따르면, 데시와 라이언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물적 보상이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 P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을이 제공한 추가 수당이라는 보상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갑이 경영하는 기업 K의 구성원들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의지가 높다. 2문단에 따르면,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의지만 높을 때는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② 4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을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P는 구성원들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로크는 을이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2문단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의 역량만 높을 때는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 데 효과적이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번스는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업무 역할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번스는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2

사회·문화

본문 114~11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④

■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해제 > 이 글은 정보 획득의 한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및 역선택 문제와 시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킨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역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정보를 가진 쪽이 비용을 들여 자신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호 발송 전략이 있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정보가 많은 상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상대가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선별 전략을 구사한다. 더불어 반복적인 거래에서 좋은 평판을 구축하는 것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의 해결책이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주제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와 해결 방안

구성 >

- 1문단: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원인
- 2문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
- 3문단: 역선택 문제의 해결 방안 ① - 신호 발송
- 4문단: 역선택 문제의 해결 방안 ② - 선별
- 5문단: 역선택 문제의 해결 방안 ③ - 평판 구축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5문단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가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리고,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이를 통해 공급자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리뷰 및 평점 제도는 정보를 적게 가진 소비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판매자의 품질, 신뢰도 등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 따르면,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보험 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

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즉 역선택으로 인해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예상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신호 발송의 예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긴 보증 기간이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즉 품질 보증 제도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기업이 자신의 상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발송 장치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보험 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평균적 위험 수준에 맞춰진 보험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객에게는 비싸므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고객이 보험 시장을 이탈하는 원인이 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개별 품질을 모르고 평균적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 가격보다 품질이 좋은 상품의 판매자는 시장을 떠나고 품질이 낮은 상품만 남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02 중심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 상황은 보험 회사처럼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 역선택 문제를 일으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3문단에 따르면 자신의 생산성을 잘 아는 우수한 구직자도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를 발송해야만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보 우위만으로 유리한 거래 조건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 따르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비용을 들여 신호

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이 이 신호를 관찰하고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 한다. 즉 신호 발송 균형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과 정보가 부족한 쪽 모두 현재의 선택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에 비용이 들고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어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다. 즉 정보 비대칭은 현실에서 경제 주체마다 정보 획득에 드는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어 역선택이 심해질수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 전략을 통해, 정보가 많은 상대방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서 ㉠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것은 숨겨진 특성을 지닌 경제 주체의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전제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은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다른 여러 상품을 설계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른 상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전략이므로, 위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즉 ㉠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비용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특성에 따라 차등적이어야 의미가 있다. ㉢ 역시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제공하는 선택지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상대방에게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전략이므로, 비용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숨

겨진 특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이나 상품 보증과 같은 일정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은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고 취하는 행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4문단에 따르면, ㉠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주도하는 전략으로, 상대방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정보 우위의 상대방이 어떤 것을 고르는지 보고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 행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5문단에 따르면, ㉡은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가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방법이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3문단~5문단에 따르면, ㉠~㉡은 모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이 모두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3문단에 따르면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다. 만약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모두가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는 더 이상 생산성을 구별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호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진다. 따라서 신호가 구별의 기능을 하려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높은 교육 수준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비용이 차등적이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3문단에 따르면,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

수한 특성을 가진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 따르면, 신호 발송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이며, 정보가 부족한 쪽은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신호 발송 비용이 특성에 따라 차등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신호의 유효성 때문이며,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신호 발송 비용이 차등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다.

㉢ 신호 발송 비용이 모든 구직자에게 낮아진다면, 우수한 특성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들까지 모두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즉 신호를 통한 숨겨진 특성의 구별 기능이 사라지게 되므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 3문단에 따르면,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배치된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3문단에 따르면, 신호 발송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인 보험 가입자가 정보가 부족한 쪽인 보험 회사에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다. 하지만 <보기>의 '운전 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보험 가입자의 숨겨진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보험 회사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자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이를 자발적 신호 발송이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보기>에서 저위험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저위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역선택이 줄어들어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 2문단에 따르면,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를 많이 가진 쪽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보기>에서 보험 회사는 가입자들의 개별 사고 위험 수준을 알지 못한 채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결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만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③ 보험 회사가 가입자 개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단일한 보험료를 책정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역선택 문제의 해결 방안인 평판 구축은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가 좋은 평판을 쌓아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방법이다. 장기 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라는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무사고라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저위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03 사회·문화 본문 118~121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②

■ 행정 대집행

해제 ▶ 이 글은 행정 대집행의 성립 요건과 절차, 위법한 행정 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나 제삼자가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작위 의무,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등 엄격한 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집행 절차는 사전 통지인 계고, 실행 시기와 비용을 알리는 영장 통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실행, 그리고 비용 징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토지·건물의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철거 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는 퇴거 의무가 철거 의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집행을 인정한다. 위법한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일단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주제 ▶ 행정 대집행의 요건, 절차, 권리 구제 방안

구성 ▶

- 1문단: 행정 대집행의 개념과 법적 근거

- 2문단: 행정 대집행의 요건
- 3문단: 행정 대집행의 절차
- 4문단: 대집행의 대상으로서 토지·건물의 인도
- 5문단: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
- 6문단: 행정 대집행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필요성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1문단에 따르면,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그 자체로는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의무 부과와 그것의 강제 집행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요한다. 따라서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자동적으로 해당 명령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강제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5문단에 따르면, 대집행이 이미 실행된 뒤에는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소송은 건물을 철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이익이 상실된다. 따라서 대집행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대집행의 선행 절차인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근거한 공법상 의무이나, 개인 간의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의 약정으로 인한 건물 철거 의무의 경우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그 의무가 대체적 작위 의무이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용인된다. 즉 행정 대집행은 공익적 필요성이 높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 수단이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행정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사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즉 계고는 비상사태나 위험의 절박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문단에 따르면, ㉠은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와 같은 부작위 의무가 위반된 결과로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어 그 작위 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대집행의 대상은 ㉠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위반 결과로 생긴 작위 의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 의무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는 모두 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이나 제삼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므로, 이에 대한 의무는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은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의무이므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 없는 소극적 의무이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은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토지·건물의 인도 의무는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를 대집행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행위, 즉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철거 의무자의 퇴거는 주된 의무인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퇴거는 주된 의무인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로서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행정 대집행은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뢰가 있다면 강제 집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거 의무는 여전히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지만,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

③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을 완화하여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 대집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철거 의무의 범위에 퇴거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⑤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비대체적 작위 의무인 퇴거 의무의 대집행을 인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5문단에 따르면,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기>에서 A는 B에게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부과했으므로, B는 이러한 비용 납부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집행 실행이 이미 완료되어 건물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비용 납부 명령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 따르면, B는 철거 의무를 지는 동시에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가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행위는 철거 의무의 대집행 과정에 포함되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건물의 철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 의무이며, 행정 대집행은 이러한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A의 철거 명령이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행정 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투기 위해서는 대집행의 실행이 끝나 버리기 전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면, 계고나 통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B가 공법인 건축법에 따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대체적 작위 의무, 비례의 원칙 충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집행은 적법하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 A의 대집행은 적법하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⑥의 '수반하다'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겼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⑥를 '따르므로'로 바꿔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따르므로'라고 바꿔 쓸 때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따르므로'로 바꿔 쓰면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 '따르다'가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③의 '징수하다'는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거두어들이는'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③ ③의 '위반하다'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어기어'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④의 '통지하다'는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알리는'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⑤의 '납부하다'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다.'의 뜻을 지니므로,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의 뜻을 지닌 '치러야'와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케인스 경제학은 한계를 드러냈고, 이후 신케인스학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 대신 기준 금리를 조정하는 현대 통화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며,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고 현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IS-MP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와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성이 경제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주제 > IS-LM 모형과 현실적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IS-MP 모형의 의의와 특징

구성 >

- 1문단: 고전학파와 케인스 경제학의 시각 차이
- 2문단: IS-LM 모형의 기본 개념과 IS 곡선의 특징
- 3문단: LM 곡선의 개념과 경제의 균형점
- 4문단: IS-LM 모형의 활용과 한계 및 IS-MP 모형의 등장
- 5문단: MP 곡선의 특징
- 6문단: IS-MP 모형과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의 의의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을 통해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정하는 것은 경제 변수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외생적 결정이 아니라 소득 등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내생적 반응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통해 케인스는 시장의 자율 조정 실패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통해 20세기 초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을 통해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을 통해 고전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을 바탕으로 IS-LM 모형(㉠)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04 사회·문화 본문 122~126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⑤
- 05 ③

■ 거시 경제 이론의 변천 및 IS-LM과 IS-MP 모형 비교·분석
 해제 > 이 글은 근대 이후 거시 경제학 이론의 전개 과정을 다루며, 특히 고전학파, 케인스 경제학, 신케인스학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강조했으나, 대공황 이후 케인스는 정부의 총수요 관리 필요성을 주장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보여 주고, 5, 6문단을 바탕으로 IS-MP 모형(㉔)은 금리 조정을 통한 현실적 정책 효과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을 통해 중앙은행을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 것은 MP 곡선임을 알 수 있다.
- ② 5문단을 통해 MP 곡선은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민 소득의 변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기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 지를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을 통해 IS-LM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 주므로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을 모두 분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2, 4문단을 통해 두 모형 모두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문단과 5문단을 통해 LM 곡선과 MP 곡선은 모두 우상향함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총수요와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이때 중앙은행이 높아진 소득에 반응하여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존의 정책(MP 곡선)을 그대로 따르는 곡선상의 이동일 뿐, 정책 기조 자체가 변하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다. 즉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목표치를 수정하는 등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MP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을 통해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 때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② 5문단을 통해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총수요 위축으로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므로,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내부 요인(국민 소득이나 금리의 변화)에 따른 조정이므로, MP 곡선상에서 금리가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현상이다. 즉 MP 곡선을 따라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MP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MP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을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축적 기조로 선화하는 것은 국민 소득이나 금리 같은 내부 요인의 변화가 아닌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생 변수(정책 기조)의 변화이고 긴축이므로, MP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⑤ 6문단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줄여 IS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총수요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때 MP 곡선은 변함이 없으므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MP 곡선과 만나는 교차점(균형점)은 기존의 E점에서 MP 곡선을 따라 왼쪽 아래(좌하향)로 내려오게 된다. 따라서 균형 금리와 국민 소득은 모두 낮아지게 된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외생적으로 고정하여 시장 밖에서 경제를 규율하는 주체로 상정된다. 이 모형에서 이자율은 통화량 공급과 화폐 수요의 균형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결과일 뿐, 중앙은행이 직접 목표로 삼아 조정하는 정책 변수가 아니다. 반면 <보기>와 같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직접 정책 목표로 삼아 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을 경제 내부 주체로 설정하는 IS-MP 모형의 정책 운용 체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을 통해 팬데믹 초기 불확실성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총수요 위축을 가져왔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케인스가 말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한 총수요를 관리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 ③ 6문단을 통해 IS-MP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되어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기준 금리를 조정함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한국은행이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병행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경제 주체의 기대를 중시하는 IS-MP 모형의 분석적 시각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6문단을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실물 경제로 확산하지 못한 것은 불확실성으로 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보유(保有)’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의미하는 단어는 ‘점유(占有)’이다.

05

사회·문화

본문 127~131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④

05 ②

■ 착오 송금

해제 ▶ 이 글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문제인 착오 송금을 다루고 있다.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 은행은 단순 중개자 역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어 송금인이 직접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되지만, 실제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든다. 수취인의 입장은 선의와 악의로 나뉘며, 선의의 경우 민사상 반환 의무만 있으나, 악의의 경우 횡령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판례 또한 반환 거부 및 소비 행위를 불법 영득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은행은 착오 송금을 한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제도적 보완책으로 예금 보험 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송금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착오 송금 문제는 송금인·수취인·은행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개인 차원의 신중함과 공공 차원의 제도적 완성이 모두 요구된다.

주제 ▶ 착오 송금 문제의 원인과 쟁점 및 제도적 보완

구성 ▶

- 1문단: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인한 착오 송금 문제의 발생
- 2문단: 착오 송금 발생 시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와 현실적인 한계
- 3문단: 법률적 관점에서 착오 송금인의 권리와 수취인의 의무
- 4문단: 수취인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 5문단: 악의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판례
- 6문단: 착오 송금 관련 은행의 역할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 7문단: 착오 송금 문제가 갖는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의 의미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의 화제에 대해 착오 송금인, 수취인, 은행이라는 여러 주체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주체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글의 화제인 ‘착오 송금’이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착오 송금인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5문단에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 형사적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021년 착오 송금 사건의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7문단에서 착오 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신중함과 공공 차원의 제도적 완성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글의 화제가 갖는 의미를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6문단에서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신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하고, 만약 수취인이 불응 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한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은행이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주체로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6문단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을 뿐, 민사 소송과 착

오 송금의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착오 송금인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착오 송금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6문단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며,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지원 계정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다. 따라서 착오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예금 보험 공사가 발행하는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민법 제741조가 아니라 형법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4문단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3문단에 제시된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수취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4문단에서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취인이 자신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입금 즉시 반환했다면, 반환 이후에는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수취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송금 실수임을 은행을 통해 고지받았다면, 수취인은 착오 송금된 돈을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선의란 착오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이고, 악의란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라고 했다. 따라서 수취인이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하여 인출했다면, 수취인의 행동을 악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수취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

서 수취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착오 송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가 착오 송금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착오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며, 수취인 B는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한다면 6문단에 제시된 신청 요건에 해당되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예금 보험 공사가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따라서 회수 비용 없이 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착오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보기>에서 수취인 B는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착오 송금인인 A는 수취인 B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② 6문단에서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은행 측이 A에게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될 것이다.

③ 6문단에서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에서 은행 측이 수취인 B에게 전화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보기>에서 수취인 B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착오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회수에 드는 행정적 노력과 비용’에 사용된 ‘들다’와 ‘잔치

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품이 많이 든다.’에 사용된 ‘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학급에서 춤을 잘 추는 축에 든다.’에 사용된 ‘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이다.
- ③ ‘이번 가을은 내장산에 단풍이 제대로 들었다.’에 사용된 ‘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이다.
- ④ ‘그는 보람찬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독서 동아리에 들었다.’에 사용된 ‘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이다.
- ⑤ ‘기상청은 올해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보했다.’에 사용된 ‘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이다.

06 사회·문화 본문 132~135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③

■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

해제 > 이 글은 혼인을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만으로도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고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나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도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제 > 법적 관점에서 본 혼인의 제도적 특징

구성 >

- 1문단: 현대 사회의 혼인 제도
- 2문단: 혼인 성립을 위한 실질적 요건
- 3문단: 혼인 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
- 4문단: 혼인 무효의 절차와 조건
- 5문단: 혼인 취소의 절차와 조건

• 6문단: 이혼의 유형별 절차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기관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된 이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서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 ② 5문단에 중혼은 혼인 취소의 사유로 언급되어 있다. 혼인 취소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었더라도 취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 ③ 6문단에 재판상 이혼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④ 2문단에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실질적 요건 중 하나인 혼인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 혼인 무효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거나,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반면 5문단에 혼인 취소는 혼인 적정 연령 미도달, 중혼 관계,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혼인 당사자 양측이 아니라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지만, 혼인 취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취소 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
- ④ 혼인 무효는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제기

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만, 혼인 취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혼인의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⑤ 혼인 무효뿐 아니라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확정 판결이 나고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척 관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완료된다.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을 확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② 혼인이나 이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③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 ⑤ 협의상 이혼에서 숙려 기간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 확인을 하기 전에 주어지는 기간이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실혼으로 인해 발생한 부부 관계에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이고 사실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 ② 법률혼은 혼인 신고와 관련 기관의 확인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사실혼은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과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법률혼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 하에 법원의 결정을 거치거나 재판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⑤ 법률혼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거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되어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사실혼은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공동생활이나 혼인 의사라는 실질적 요건에 의해 인정받는다.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07 사회·문화 본문 136~139쪽

- 01 ③
 - 02 ④
 - 03 ①
 - 04 ⑤
- 05 ②

■ 토지 행정의 주요 수단

해제 > 이 글은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토지 행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토지 행정은 20세기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가 있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규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매년 1월 1일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주제 > 토지 행정 수단인 토지 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

구성 >

- 1문단: 토지 행정의 개념과 도입 배경
- 2문단: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 ①-토지 거래 허가제
- 3문단: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의 근거
- 4문단: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 ②-부동산 가격 공시제
- 5문단: 부동산 가격 공시제의 처분성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서 공시 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 지가를 말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 지가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공시 지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토지 행정이라고 하였다.
- ④ 5문단에서 공시 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 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행정 행위 인정설이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을 통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토 전체의 조화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가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고, 한정액인 공시 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통해 토지 행정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을 통해 20세기 초까지는 토지 이용 등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지역 주민의 자치를 보장하였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토지 행정이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별 토지에 따라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므로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⑤ 3문단에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한 형태라고 하였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규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토지 거래를 희망하는 자가 거래 계약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토지 거래 희망자가 지켜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부동산 가격 공시제의 공시 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지만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 ③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 거래 가격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지가는 매년 바뀔 수 있다.
- ④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서는 공시 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토지 거래 허가제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 모두 토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공시 지가가 단순한 토지 거래의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공시 지가가 처분성이 있는 행정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시 지가를 근거로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사실상 공시 지가의 구속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시 지가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다.
- ② 공시 지가가 절대적인 기준이거나 별도의 산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인 것은 아니다. 또 공시 지가가 토지의 실제 거래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공시 지가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토지 가격의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시 지가는 토지 거래의 지표이기 때문에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 지가가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하여 구속적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④ 공시 지가는 토지 가격을 고정하는 절대적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토지 가격이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정한 행위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을 따져서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토지 수용 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 침해되는 사익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 ③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 ④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을 구속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는 허가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함께 사익도 고려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과 같이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도 있고,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들 조직은 법적 지위, 기능, 재정 구조 등에 따라 그 형태가 상이하지만, 모두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

주제 >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개념과 유형 및 기능

구성 >

- 1문단: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개념과 설립 목적
- 2문단: 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 공공 행정 조직
- 3문단: 공법상 법인의 개념과 법인격의 의미
- 4문단: 공공 조합과 공법상 재단의 성격 및 예시
- 5문단: 기능과 재정 구조에 따른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분류
- 6문단: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목적과 의의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문단에서 행정 주체로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와 공공 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법인격이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 ④ 5문단에서 서비스 제공형 조직에서는 전기·도로·수도·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을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3문단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였다. 공법상 법인은 법인격을 지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08 사회·문화 본문 140~143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⑤
- 05 ③

■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기능과 분류

해제 > 이 글은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였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므로 행정 주체가 되는 모든 공공 단체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④ 대한 변호사 협회는 공공 조합으로,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 인정된다. 공공 조합의 해산은 조합의 임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 ⑤ 한국 연구 재단은 공법상 재단으로, 공공 목적의 교육, 학술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특정 권력 기관이나 정당,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 보장이 ㉠의 이유는 아니다.
- ② 조직 규모의 확대는 ㉠과 관련이 없다.
- ④ 효율성은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설립 이유라고 볼 수 있으나 효율성이 ㉠의 이유는 아니다.
- ⑤ ㉠에서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C는 특별법을 통해 시설을 포함한 조직 전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공공 목적의 독립된 교육 기관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공법상 재단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C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법인으로, 공법상 재단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을 제외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된다고 하였으므로 공법상 법인인 A가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② A는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법인격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므로 A는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있다.
- ③ 공법상 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B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기업이므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공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C는 고등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책 집행형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는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라는 뜻으로, ‘해결하기 어려운’의 ‘어려운’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라는 뜻이다.
- ②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 ④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라는 뜻이다.
- ⑤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라는 뜻이다.

09 사회·문화

본문 144~148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③
- 05 ③

■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해제 > 이 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소와 밀은 민주주의 사회의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을 제

공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밀은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하지만 규모가 큰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형태의 완전한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다.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의 관점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페이트먼은 참여는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이론가인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가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교육으로 굳건해지며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주제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구성 ▶

- 1문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
- 2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의 견해
- 3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밀의 견해
- 4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페이트먼의 견해
- 5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바버의 견해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시민 참여라는 정치 행위에 대한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견해와 현대의 참여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치적 갈등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
- ② 비교를 통해 여러 정치 행위의 현대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정치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⑤ 시민 참여라는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견해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5문단

에 따르면, 바버는 대의제가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밀은 좋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에 있으며,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과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은 시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재라고 주장하였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3문단에 따르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를 중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시민 참여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 받게 되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밀은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되는 것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

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버가 시민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5문단에 따르면,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강한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또 참여 민주주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바버의 주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바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에서의 투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루소의 주장에 대해, 20세기 이후의 현대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평가할 것이다.

② <보기>에서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세워진 독일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경험에서처럼 과도한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반박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④ <보기>에서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시민 참여가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시민 참여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밀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⑤ <보기>에서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시민들의 민주 시민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을 해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할 것이다.

답 ③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 따르면,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페이트먼은 A국의 국회 의원 선거나 B 씨의 국회 의원 면담이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루소는 A국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 의원이 B 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밀은 A국의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B 씨의 주민 자치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것이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바버는 대의제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바버는 A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선거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⑤ 5문단에 따르면,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바버는 A국의 국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 시민의 자치에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다고 볼 것이다.

10 사회·문화

본문 149~152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④

■ 교류 욕구 이론

해제 > 이 글은 사회학자 조너선 터너의 교류 욕구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류 욕구는 인간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충족하려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고

자 하는 욕구이다. 터너는 자아가 핵심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역할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정체성을 검증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자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하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이고,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정적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제거해 억압하는 등의 다양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 터너는 활성화되는 방어 기제 중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귀인이 사회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터너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경험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구심적 편향을 보이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원심적 편향을 보인다.

주제 > 교류 욕구 이론에 대한 이해

구성 >

- 1문단: 교류 욕구의 개념
- 2문단: 자아를 이루는 네 가지 정체성
- 3문단: 정체성 검증 과정에서의 감정적 경험과 행동 조정
- 4문단: 정체성 검증이 실패했을 때 활성화되는 방어 기제
- 5문단: 사회 구조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 몰입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인 교류 욕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으려는 욕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하는 욕구 네 가지를 제시했지만, 욕구들의 분류 체계가 지닌 한계점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 ② 교류 욕구 이론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 ③ 교류 욕구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하고 있지 않다.
- ④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으려는 욕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욕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5문단에서 인간이 역할 정체성 또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는 이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 구조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정체성을 검증받으려고 할 때 타자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개인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핵심 정체성은 그 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도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였고, 집단적 정체성은 개인이 그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명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 사회 구조로부터의 소외 등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서 인간은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외부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는 민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등 보다 멀리 있는 타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원심적 편향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도록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 따르면, 자아의 정체성 검증과 관련된 교류 욕구와 같은 힘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교류 욕구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때 개인에게 항상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욕구이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때 활성화되는 욕구의 충족 여부가 상호 작용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으려는 욕구이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문단에 따르면, 핵심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모

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네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역할 정체성이 더 일반적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4문단에 따르면,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일수록 정체성 검증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강렬하다. 그러므로 역할 정체성이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면 역할 정체성 검증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경험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의 타자에게 그 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인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민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등 보다 멀리 있는 타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원심적 편향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보기>의 '갑'이 중학교 때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와 비교당했을 때 느낀 불쾌한 감정을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였다고 이해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인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자아의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도록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갑'이 고등학교 때 더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에 학습량을 늘리고 꾸준히 글을 쓴 것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는 역할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인간이 자기 경험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의 타자에게 그 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갑'이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원인을 자신과 이를 칭찬한 교사로부터 찾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타자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개인은 다양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체성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갑'은 독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담긴 A국 문화의 독특함에 열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A국 국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인간이 특정 유형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이러한 경험을 그 상황이 속한 사회 구조에 기인하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 구조가 자아의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같은 좀 더 먼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 몰입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보기>의 '갑'은 A국의 교육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하였으므로, A국의 교육 환경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서 A국의 교육 환경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11 사회·문화

본문 153~156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5 ③

■ 중세의 청빈 논쟁에서 사용과 소유의 분리

해제 ▶ 이 글은 중세의 청빈 논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물건의 사용과 소유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청빈 사상을 고수하려 했고, 초기에는 교황들도 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갈등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 외중에 새로운 교황도 이러한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법리적 논쟁과 갈등은 결국 오컴의 윌리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근원적 자유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 ▶ 청빈 논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구성 ▶

- 1문단: 청빈 사상 및 물건에 대한 사용과 소유의 분리
- 2문단: 사용과 소유의 분리에 대한 반발
- 3문단: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단순한 사용을 구별하는 보나벤투라의 견해
- 4문단: 실정법과 자연의 법의 구별을 내세운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의 견해와 이에 대한 교황의 비판
- 5문단: 근원적 자유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찰로 나아가는 오컴의 윌리엄의 견해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는 다른 수도회나 교단이, 4문단에서는 교황이

갈등의 상대방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속 권력과의 갈등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3문단에서 물건의 영구적 사용은 곧 소유라거나, 4문단에서 소비재의 사용은 곧 소유라는 비판을 통해 현실의 제도에서는 사용과 소유가 명확히 나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청빈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결국 청빈 논쟁이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자각 및 그에 기초한 논의 촉발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수도회의 청빈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그것을 대하는 종교적 권력의 관계가 1, 2, 3문단에서는 서로 우호적으로 그려지고, 4문단에서는 이후 대립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 기술되고, 5문단에서는 압박과 저항의 관계로까지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2, 3, 4, 5문단에서 수도회 내부의 견해 대립이나 다른 수도회 및 교단과의 견해 대립, 교황과의 견해 대립이 법적인 소유권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5문단을 통해 오킴의 윌리엄은 자유를 추상적 규범 질서 이전에 근원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추상적 규범 질서가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을 통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 5문단을 통해 그와 그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절대적 무소유를 선택하고 실천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청빈한 삶을 위하여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3문단을 통해 보나벤투라는 소유권이나 용익권 같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법적인 권리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사용의 구별을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단순한 사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3문단을 통해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는 단순한 사용이라는 방어 논리를 펴면서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난의 상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도회를 비

판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로 한 수도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4문단을 통해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자연의 법을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법이 인정된 내용과 충돌되도록 하위법에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실정법과 자연의 법이 충돌할 경우에 실정법이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서 법적인 권리와는 무관한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또한 영구적인 사용 가능성에 따른 비판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법적인 권리와는 무관한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② 3문단과 4문단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의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 ④ 5문단에서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용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 ⑤ 5문단에서 이러한 사용이 바로 신이 부여한 삶의 방식이 이어 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이 확인된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수도회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수도회의 소유권 보유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사용은 법적인 권리 보유 여부와 관계없는 사용이므로 권리가 수도회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도자들이 단순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4문단에서 그가 제시한 근거에 의하면 수도자들에게 법적 인격이 없거나 자연의 법에 의해 인정될 때 그러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과 2문단에서 기존에는 교황이 편의 제공 차원에서 소유권을 맡아 주는 방법만 있었는데, 그것이 비판의 빌미가 되니 수도회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청빈을 서약하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 개인들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 법적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청빈 서약을 중시하는 수도자들의 정체성 훼손 우려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과 2문단에서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황의 소유권 인수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빌미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 단순한 사용을 말하며 동물이 먹이를 먹는 경우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동물에게는 법적 인격이 없다고 봄을 알 수 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용'은 법적인 권리와 무관한 사용을 말하는데, <보기>에서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며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에 기하여 물건을 사용하되 관념적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현실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또한 4문단에 의하면 누군가 어떤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그 물건이 음식과 같은 소비재일 경우에 한하며,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항상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익권 개념이나, <보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관념성에 따라 실제 사용은 타인이 하도록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인간의 법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자기 보존을 요구하는 자연의 법이 강조하는 바는 사용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 보존에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무소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과 <보기>에서 자연의 법은 물건의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여 전자만 자기 보존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의 근거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자연의 법이 요구하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관념적인 형태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형태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12

사회·문화

본문 157~161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③

06 ④

■ 민주정과 공화정

해제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매디슨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벗어난 조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부의 형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히는 논설을 발표했는데, 이 글은 그 논설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매디슨은 자신이 순수한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글은 그가 말하고 있는 순수한 민주정 및 공화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순수한 민주정의 치명적인 결함과 그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대표 선출 및 정부 위임의 논리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제 >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에 대한 매디슨의 견해

구성 >

- 1문단: 파벌의 폐해
- 2문단: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
- 3문단: 순수한 민주정
- 4문단: 공화정의 이상과 '대표'의 개념
- 5문단: '대표'의 조건
- 6문단: '대표'를 통한 공공선의 추구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서 매디슨의 생각은 현대적 의미의 간접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 행사를 위임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적 지향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 4문단에서 순수한 민주정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없고, 오로지 공화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을 금지하면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존립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데, 사회적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결합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정치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도 시민들이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공공의 목소리가 더 잘 공명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통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는 점을 알 수 있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자유가 비록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려는 것은 더 큰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정치적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화정의 대표 시민들은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의 수호자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순수한 민주정의 단점인 혼란과 분열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을, 따라서 4문단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정을 제안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과 2문단에서 순수한 민주정은 다수의 지배가 그 본질이며 바로 그 이유로 다수 자체가 공공선을 지향하지 않고 다수 이외의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그리고 4문단에서는 공화정이 그에 대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가 아님을, 3문단에서는 정치적 권리의 평등이 보장되어도 결코 완전히 동등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대표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뜻하므로 이는 혼합 정체에서 귀족정의 요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4문단에서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귀족 세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과 4문단에서 순수한 민주정에 대비하여 공화정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표를 통한 정치권력의 행사임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과 5문단에서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의 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혼합 정체의 균형자 역할을 주로 귀족 세력이 담당했다는 점을, 그리고 5문단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중시하며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덕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3문단에서 다수의 지배를 본질로 하는 정치 체제로서 다수가 공공선이 아닌 당파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를 교정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는 점이 바로 순수한 민주정의 치유할 수 없는 약점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시민들이 몹소 정치적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순수한 민주정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1문단에 의하면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이러한 혼란을 치유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는 누구든 자기 이익이 걸려 있을 경우 스스로 보유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는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이며, 3문단에서는 민주주의만이 가지는 치명적 약점은 단순히 이러한 필연적 권력 남용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치유 불가능성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③ 2문단에서 시민들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1문단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결합이 소수일 때는 얼마든지 다수가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 침해는 민주주의의 약점 때문에 초래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약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에서 국체와 정체를 구분하는 견해는 주권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국체를 분류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이 어떠한가라는 기준으로 정체를 분류함으로써,

‘민주’와 ‘공화국’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을 구분하는 매디슨의 논의에서는 양자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와 국체의 구분 논의는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 논의를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민주 공화국 개념이 순수한 민주정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와 공화정의 대의제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문단과 5문단은 후자의 요소가 공공선과 사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 준다.
- ② <보기>에서 민주 공화국이 독재에 대립하는 정치 체제라는 점을 알 수 있고, 1문단에서는 독재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작동하는 정부를 대중적 정부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1, 4, 5문단에서 파벌의 지배 세력화 방지를 위해 대의제적 요소가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 4문단에서 매디슨은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을 각각 시민들이 품소 정부를 운영하는 것과 대표를 통해 정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는 두 개념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민주 공화국 개념은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두 개념의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유인(誘因): ‘어떤 일이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인(誘引): ‘주의나 흥미를 유발하여 끌어 이끄.’
- ② 유인(流人): ‘타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 ③ 유인(有人): ‘그것을 작동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타고 있음.’
- ⑤ 유인(遊人): ‘일정한 직업 없이 노는 것만 일삼는 사람.’

13

사회·문화

본문 162~16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④

■ 법적 의제

해제 > 이 글은 법적 의제에 관한 헨리 메인의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법적 의제란 사실이 아닌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뜻하는데, 메인은 이를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와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법적 의제가 사회의 진보 과정에서 법과 사회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쓰이면서 나름의 유용성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근대적인 법체계에서는 오히려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 법적 의제에 관한 헨리 메인의 견해

구성 >

- 1문단: 일반적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
- 2문단: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과 블랙스톤의 평가
- 3문단: 사회와 법의 조화를 위한 장치로서 법적 의제
- 4문단: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와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 5문단: 근대적 법체계에서 법적 의제의 문제점
- 6문단: 근대적 법체계의 현실과 법적 의제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서 메인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를 법 규칙의 실제적 작용이 바뀐 사실을 감추기 위한 가정의 의미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추어야 할 대상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법적 의제가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법적 장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 4문단에서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 의의는 법의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도 법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1, 2, 3, 4문단에서 법적 의제가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법과 진정한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감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점이 결국 법적 의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의제를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의 도구적 유용성이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 5문단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를 비열한 거짓말이라 비판한 벤담의 평가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 3문단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블랙스톤의 평가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 속에 좀 더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메인이 법적 의제는 근대적인 법체계가 필요로 하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를 지닌다고 봄을 알 수 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5문단에서 법적 의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사회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법적 의제는 진보하는 사회에서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적응 장치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유년기의 사회에서 법의 변화에 대한 미신적인 거부감을 극복하고 사회와 법의 조화를 위해 법적 의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유년기의 사회에서는 법의 변화에 대한 미신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화된 장치로서 법적 의제가 필요했다는 점을, 5문단에서는 성숙한 사회에서 법적 의제를 쓰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족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보다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사회 변화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민법이 도입한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취소 제도임을 알 수 있으며, 성년 의제는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법적 의제가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의 거리를 좁혀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혼인을 했지만 연령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성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년 의제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2011년 3월의 개정 이전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 기혼자가 성년 의제의 대상이고, 개정 이후에는 18세 이상 19세 미만 기혼자가 그 대상이므로 개정 이후에 성년 의제로 인한 사실과 법적 평가의 불일치 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근대적인 법체계의 체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의제를 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기>에서 민법을 다시 개정하여 성년이 되는 시기를 18세로 정하거나, 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 이상으로 정한다면 성년 의제가 불필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약 성년이 되는 시기나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성년 의제 규정을 폐지하는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이는 법체계의 체계상 혼란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미성년 기혼자의 혼인 생활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의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 힘이 가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1 ④

02 ⑤

03 ⑤

04 ③

■ 후성 유전학을 이용한 항암 치료

해제 ▶ 이 글은 후성 유전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항암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성 유전은 DNA의 염기 서열 자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DNA의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붙는 DNA 메틸화나 DNA를 감싸는 히스톤 단백질 구조가 변하는 히스톤 아세틸화와 같은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생명 현상이다. 이러한 조절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면, 세포는 분열 통제 능력을 잃고 무한히 증식하며 암세포로 변질된다. 후성 유전적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DNMT나 HDAC 같은 특정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여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함으로써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처럼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니며 암 발생 경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암 정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제 ▶ 후성 유전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항암 치료

구성 ▶

- 1문단: 후성 유전의 개념
- 2문단: DNA 메틸화와 히스톤의 아세틸화
- 3문단: 후성 유전적 오류와 암 발생의 관계
- 4문단: 기존 항암제의 한계와 후성 유전적 항암제의 작용 원리
- 5문단: 후성 유전학의 발전과 암 발생 모델의 확장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 따르면,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여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약물이다. DNA 메틸화를 제거하는 것은 DNMT 저해제인 5-아자사이티딘과 5-아자-2-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의 작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 따르면,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는 과정이며,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CpG)에서 일어난다. 또한, 메틸화된 DNA는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붙으면 DNA 구조가 변형되어 전사 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워진다.

② 2문단에 따르면, HDAC는 히스톤의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하여 DNA-히스톤 복합체의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따라서 HDAC의 활성이 높아지면 히스톤의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어 DNA와 히스톤 사이의 상호 작용이 강화된다.

③ 4문단에 따르면, 5-아자사이티딘 계열 약물은 DNMT를 저해하여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발현을 막는 정지 신호이자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므로, 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정지 신호를 제거하여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기존의 이중 적응 모델이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확장된 이중 적응 모델로 발전하였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 따르면, ㉠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삼아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며, ㉡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즉 ㉡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 따르면, ㉡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약물이다. 따라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은 세포 분열 속도를 기준으로 세포를 공격할 뿐, 돌연변이를 교정하지 않는다. 또한 ㉡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유전자 발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의 일종인 보리노스타트의 작용 결과로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는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은 분열 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 화학적 변형, 즉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한다. 따라서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진술과 ㉡이 돌연변이를 직접 교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후성 유전적 오류가 가역적인 이유는 그 변화가 DNA의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문단에 따르면, 후성 유전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화학적 변형이다. 즉 메틸기나 아세틸기 같은 화학 물질이 붙거나 제거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화학 물질을 약물 등으로 붙이거나 제거하면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 따르면,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화학적 변형이다.
- ② 3문단에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보리노스타트나 5-아자사이티딘 같은 외부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가진 복구 효소로 이를 자연 교정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이 ㉗의 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한다. 즉 후성 유전적 변화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후성 유전적 변화가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결합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㉗에서 말하는 가역성은 약물로 메틸기나 아세틸기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결합 자체의 불안정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㉗의 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 따르면, HDM은 히스톤에서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이며,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는 HDM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 HD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정상 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즉 HDM 저해제는 HDM의 작용을 방해하여 메틸기가 제거되는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킴으로, HDM 저해제가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 따르면, HDM 저해제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

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회복되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여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HDM 저해제가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암 줄기세포는 약물 배출 능력 때문에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며, 이러한 암 줄기세포의 특성 유지는 히스톤 메틸화에 의해 조절된다.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와 같은 후성 유전적 변화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조절하므로, 이러한 후성 유전적 조절에 의해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항암제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④ 5문단의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암이 생길 수 있으며,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이다. 따라서 HDM 저해제는 히스톤 메틸화라는 후성 유전적 오류는 교정할 수 있어도, 염기 서열 자체가 변한 돌연변이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HD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기 서열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기존 항암제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분열 속도가 빠른 정상 세포에도 손상을 주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반면 <보기>에 따르면, HDM 저해제는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 HDM에 의해 억제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켜 암 줄기세포를 분화시키거나 사멸을 유도한다. 즉 HDM 저해제는 분열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후성 유전적 오류를 표적으로 삼는 약물이므로, 후성 유전적 오류를 선택적으로 교정하여 암 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따를 것이다.

02

과학·기술

본문 172~175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③

■ 양자점 디스플레이

해제 ▶ 발광 물질은 전자의 에너지 변동 폭에 따라 방출하는 빛 에너지와 빛의 색이 달라지는데,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

미터 단위로 작아지면 크기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 변동 폭이 달라진다.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에너지 밴드를 갖는데, 이 경우 에너지 변동 폭이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되어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한 값을 갖는 파장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양자점은 코어, 셸,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층의 영향이 커지므로 셸과 리간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독성이 적은 갈륨, 인 등의 원소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 양자점의 특징, 구조 및 활용

구성 ▶

- 1문단: 에너지 밴드를 가진 물질에서의 에너지 변동 폭
- 2문단: 양자점의 정의와 특성
- 3문단: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장점
- 4문단: 양자점의 구조
- 5문단: 양자점과 관련한 개발 동향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5문단에 따르면, 갈륨이나 인은 카드뮴에 비해 독성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하여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추가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합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합성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이라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셸은 무기물로, 리간드는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 ③ 5문단에서 양자점의 코어는 원소들을 섞어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 궤도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물질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작다. 따라서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층의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셸, 리간드와 같은 표면층이 코어의 성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커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표면층은 코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코어를 덮는 물질이 없다고 코어가 빛을 방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공기나 수분에 노출될 경우 산화되는 것은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뿐 아니라, 다른 입자들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③ 원소의 독성은 양자점의 성능이 아니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깊다.
- ⑤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광 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빛에 노출됨으로써 양자점의 표면적이 점차 커지는 것은 아니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며, 변동 폭이 클수록 푸른 계열의 빛을, 작을수록 붉은 계열의 빛을 낸다고 했다. 또한 2문단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다고 했으며, 3문단에서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고, 작을수록 파장이 길다고 했다. 이를 정리하면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고, 푸른 빛을 내며,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다. 이를 <보기>의 순서로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것은 붉은색을 띠는 B이며, 이것은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작고,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작으며, 파장이 길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서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좁은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가 LCD 디스플레이보다 더 적은 열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보기>의 문맥을 통해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는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어 열에너지를 방출하며, ㉡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보다 더 적은 열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와 ㉡ 모두 양자점을 기반으로 한 물질이다. 양자점의 리간드는 입자의 표면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는 발열을 줄이고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방출함으

로써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고, ㉔는 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더 많은 전류를 얻는데, 이는 모두 양자점의 전자가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닌 매우 좁은 범위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④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가 되기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지만 ㉔는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값을 갖는 빛을 낼 수 있다. 파장이 1,000nm가 넘는 빛은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를 통과하지만, ㉔는 태양 스펙트럼 중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빛과 달리 전류는 셀을 뚫고 나오기 힘들므로 전류를 활용하는 ㉔는 코어 자체를 더 안정한 소재로 만들거나 리간드를 더 붙여 표면을 안정시켜야 한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현저하다’는 ‘뚜렷이 드러나 있다.’를 뜻하므로, ㉔는 ‘조금이나마’와 바꿔 쓸 수 없다. ㉔는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첩되다’는 ‘거듭 겹쳐지거나 포개어지다.’를 뜻하므로, ㉔는 ‘겹치면서’와 바꿔 쓸 수 있다.
- ② ‘방출하다’는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다.’를 뜻하므로, ㉔는 ‘내보내면서’와 바꿔 쓸 수 있다.
- ④ ‘연장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를 뜻하므로, ㉔는 ‘늘리며’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첨가하다’는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태다.’를 뜻하므로, ㉔는 ‘더하거나’와 바꿔 쓸 수 있다.

다른 호흡상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생 동물이 발달시킨 아가미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환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육상 동물은 폐가 건조해지고 탈수될 위험이 있으며, 수생 동물은 낮은 산소 가용성과 삼투압 문제, 높은 에너지 소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수생 동물은 이에 대응해 외아가미와 내아가미 같은 특수 호흡 기관을 발달시켰는데, 특히 내아가미는 라멜라와 모세 혈관을 통한 역류 교환 원리로 기체 교환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어류는 입 펌프 방식과 강제 환수 방식이라는 두 가지 환수 전략을 사용하여 산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을 지속적으로 아가미에 공급하게 한다. 그러나 물의 밀도 때문에 호흡에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는 수생 동물이 육상 동물보다 훨씬 큰 대사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 ▶ 아가미를 통한 수생 동물의 호흡과 두 가지 환수 방식

구성 ▶

- 1문단: 육상 동물과 수생 동물의 호흡의 어려움
- 2문단: 아가미의 기본 기능과 외아가미의 특징
- 3문단: 내아가미의 구조와 특징
- 4문단: 내아가미의 기체 교환 원리
- 5문단: 아가미 환수 방법 ① - 입 펌프 방식
- 6문단: 아가미 환수 방법 ② - 강제 환수 방식
- 7문단: 호흡에 드는 에너지 비용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7문단에서 공기로 숨을 쉬는 육상 동물이 고른 숨을 쉬기 위해 몸의 총사용 에너지 가운데 오직 1~2%만을 쓰는 것에 비해, 어류는 아가미를 통해 환수하는 데만 휴지 대사율의 10~20%를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어류가 물을 흡입하여 산소를 흡수한 후 다시 내보내는 데 몸의 총사용 에너지의 1~2%를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1문단에서 육상 동물은 폐의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는 폐를 손상시키고 기체를 용해하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따라서 습기가 없는 공기가 폐를 손상시키고 기체를 녹이는 폐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수생 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 아가미라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한다고 했고,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수생 동물은 아가미를 이용해 호흡하는

03 과학·기술 본문 176~180쪽

- 01 ① 02 ③ 03 ① 04 ④
05 ⑤

■ 수생 동물의 호흡

해제 ▶ 이 글은 육상 동물과 수생 동물이 처한 환경적 차이에

데,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 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7문단에서 숨을 쉬는 많은 육상 동물은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위해 간만 환기라 부르는 방법을 쓰는데, 이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를 통해 내뱉는 방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간만 환기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탁한 공기를 내뱉을 때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외아가미는 몸 밖으로 돌출된 형태로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노출되고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했고, 3문단에서 내아가미는 체내에 위치해 보호를 받으며 뒷개라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내아가미는 체내에 있고 딱딱한 껍데기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 안전하지만, 외아가미는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적절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7문단에서 입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체계라고 했다. 따라서 ㉠이 물이 양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5문단에서 ㉠은 우선 턱을 내려서 입 공간을 크게 만들고 입속의 압력을 낮추어 물이 들어오도록 한다고 했고, 뒷개가 밖으로 펼쳐져 뒷개 공간을 확장하면서 수압을 낮추어 입으로 들어온 물을 뒷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 턱을 내리는 것이나 뒷개를 밖으로 펼치는 것은 해당 공간의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수압을 낮추고, 이를 통한 수압의 차이로 물의 이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6문단에서 ㉠은 흐르는 물속에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하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 빼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입을 벌린 채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흐르는 물속에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유영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6문단에서 정체된 물속에서 입 펌프 방식을 취하다가 빠르게 유영하거나 물 흐름에 맞설 때는 강제 환수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다. 따라서 ㉠은 대부분의 어류가 흐르지 않는 고요한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취하는 방법이고, ㉠은 흐르는 물속에 가만히 있거나 유영하면서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은 입 펌프 방식에 비해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했고,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하여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필요하므로 에너지 소모량이 입 펌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따라서 ㉠은 호흡을 위해 입과 뒷개를 움직여야 하지만, ㉠은 호흡과 관련하여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므로 ㉡에 비해 ㉠이 상대적으로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적다는 것은 적절하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역류'란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 혈관의 혈류 방향과 상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하는 이유는 ㉠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물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 버리고 물은 계속해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혈액은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흐르며, 물의 흐름으로 인해 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③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에서 혈액으로 산소가 확산되므로,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이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을 만나면서 혈액 속에 포함된 산소의 대부분을 잃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산소는 어류의 입으로 들어온 물속에서 아가미 모세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으로 이동한다.

⑤ 라멜라 사이를 흐르는 물은 모세 혈관을 만나 산소를 빼앗긴 후 같은 방향으로 흐르므로, 방향을 바꾸어 원래 들어왔던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서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구심성 혈관 속을 흐르고,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원심성 혈관을 흐른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성 혈관(D)의 혈액은 구심성 혈관(E)의 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공에 부

착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필라멘트(C)가 붙어 있는 아가미 궁(A)이 아가미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물은 라멜라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른다고 했다. 따라서 라멜라(B)의 모세 혈관에서 흐르는 혈액은 아가미 내부로 들어온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하고,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 확산되는데,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 산소 압력이 높으므로,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의 모세 혈관으로 확산된다고 했다. 따라서 산소를 함유한 물이 라멜라(B)의 모세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만나면 압력 기울기에 의해 산소가 물에서 혈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 흐르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 혈관을 다시 만나는데, 물이 뒷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 혈관으로 확산된다고 했다. 따라서 어류의 입으로 들어온 물이 라멜라(B) 사이를 흘러 뒷개를 빠져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산소를 빼앗긴다는 것은 적절하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발전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이다. ‘부피나 규모가 줄어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수축’이다.

04 과학·기술

본문 181~185쪽

- 01 ③
- 02 ①
- 03 ⑤
- 04 ③
- 05 ②

■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과 응용 분야

해제 > 이 글은 하디와 바인베르크의 연구 및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기본 개념, 적용 조건, 수학적 모델,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응용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디와 바인베르크가 각각 멘델의 유전 법칙을 실제 인구 집단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이 법칙은 집단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며 무작위 교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돌연변이와 이주가 없어야 하며 자연 선택 역시 없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유전자 빈도가 세대 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예시로 제시된 유전자 빈도(p, q)와 유전자형 빈도($p^2, 2pq, q^2$)의 계산 과정은 이 법칙의 수학적 모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실제 개체군의 유전자 분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후 이 법칙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유전병 유병률 예측, 멸종 위기 종 유전자의 다양성 평가, 친자 확인, 법의학적 DNA 분석 등 다양한 실용적 분야로 확장 적용되었다.

주제 >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 및 성립 조건과 응용 분야

구성 >

- 1문단: 하디와 바인베르크의 평형 법칙 제안과 수학적 모델
- 2문단: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 유지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 3문단: 유전자 빈도 계산과 유전자형 빈도의 수학적 모델 예시
- 4문단: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 응용되는 분야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문단에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을 소개한 다음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4문단에서는 응용 분야(질병 예측, 보존 생물학, 법의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과 관련한 가설과 실험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②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발견한 학자는 소개하고 있으나, 학자 간의 논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④ 하디와 바인베르크가 각각 법칙을 발견한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험의 차이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⑤ 유전자 빈도 변화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3문단을 통해 유전자 빈도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유전자 수를 전체 개체의 유전자 수로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수를 전체 개체 수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3문단에서 이형 접합형(Aa)의 비율은 $2pq$ 로 계산되며 이는 두 대립 유전자의 조합 확률을 더한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이 충족될 때, 유전자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의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우연한 일치 확률을 배제하여 가족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포식자의 출현이 외부 요인인 것은 맞지만, 포식자의 출현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가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집단의 크기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컸으므로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실험에서 교배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실험을 위해 선택된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은 갈색 딱정벌레의 생존에 유리하였으므로 자연 선택이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실험 결과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집단의 남성의 질환 발현 빈도는 q 이고, 여성의 질환 발현 빈도는 q^2 이다. q 는 0.09이므로 $q^2(0.0081)$ 은 q 보다 작다.

따라서 이 집단의 질환 발현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작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지므로 X 염색체가 하나뿐이다. 따라서 유전자형 빈도가 곧 표현형 빈도이므로 질환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빈도는 q 와 같다.
- ②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므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따르는 경우 정상 동형 접합자의 유전자형 빈도는 p^2 이다.
- ④ 여성 중 보인자의 빈도는 $2pq(0.1638)$ 이고, 남성의 질환 발현 빈도 $q=0.09$ 이므로 여성 중 보인자의 빈도는 남성의 질환 발현 빈도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 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서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p, q)가 세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현재 세대의 정상 대립 유전자 D의 빈도 $p=0.91$ 이므로, 다음 세대에서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p=0.91, q=0.09$ 가 그대로 유지된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대립 유전자는 STR 마커가 아니라, 5회 반복형(A)과 7회 반복형(B)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통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각각 p, q 라면 AA형 빈도= p^2 , BB형 빈도= q^2 , AB형 빈도= $2pq$ 임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르면, 이형 접합형(Aa)의 빈도는 부모 중 한쪽에서 A, 다른 쪽에서 a를 받을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더해 $2pq$ 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회 반복형(A)과 7회 반복형(B)을 하나씩 가진 경우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이형 접합자에 해당하므로, 그 확률은 $2pq$ 임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을 통해 법의학 분야에서는 범죄 현장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할 때, 그 일치 가능성이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을 계산하여 증거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가령 빈도가 높을 때(예: 50%): 길 가던 사람 2명 중 1명이 가진 유전자형이라면, 용의자와 현장 샘플이 일치해도 그냥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 반면 빈도가 낮을수록(예: 0.0001%): 100만 명 중 1명만 가진 아주 희귀한 유전자형인데 용의자와 일치한다면,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강력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희귀할수록), 그 일치가 우연이 아닐 확률이 높아지므로 증거의 효력은 커진다. 따라서 계산된 해당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우연히 일치했을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용의자가 진범임을 입증하는 증거의 효력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을 통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유전자형이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여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적용해 통계적 예측을 하려면, ‘AGAT’ 반복 횟수(5회, 7회 등)의 차이가 생존이나 번식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05

과학·기술

본문 186~18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 이동식 크레인

해제 ▶ 이 글은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은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붐이 사용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양중 능력’은 크레인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크레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 최대 허용 하중과 그 외 부가되는 하중을 합한 값을 정리한 ‘양중 능력 표’를 참고한다.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크레인 받침목을 설치하거나 평형추를 사용해 하중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주제 ▶ 이동식 크레인의 작동 방식과 작업 안정성

구성 ▶

- 1문단: 이동식 크레인의 개념과 장점
- 2문단: 이동식 크레인의 작동 방식
- 3문단: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안정성 조건
- 4문단: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막는 장치들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서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록,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회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와이어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크레인 대부분은 물체를 후크에 걸고 와이어로프를 사용해 들어 올린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화물을 들어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양중 능력’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크레인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받침목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크레인이 지면에 가하는 압력을 한곳에 집중하면 전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하여 전도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동식 크레인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받침목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크레인이 서 있는 지반이 약하면 전도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크레인 안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고 하였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 따르면,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붐은 유압식 붐이다. 그러므로 크롤러 크레인에 장착된 격자형 붐이 유압 실린더로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붐과 보조 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으면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크롤러 크레인에 보조 붐을 부착해 붐과 보조 붐이 따로 기복할 수 있으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진다.

② 2문단에서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 크레인을 고정해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협지형 크레인은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했을 때가 아웃트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거운 물체를 드는 데 더 유리하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크레인의 안정 모멘트는 크레인의 중량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이동식 크레인 중 가장 무겁고 큰 크롤러 크레인이 협지형 크레인보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에 유리하다. 2문단에 따르면, 선회는 붐이나 보조 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협지형 크레인은 선회 반경이 매우 작으므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데 유리하다.

⑤ 2문단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붐은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크롤러 크레인과 협지형 크레인의 붐 모두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높이에 영향을 준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 따르면, 물체의 중심축부터 전도 축까지의 수평 거리와 물체의 무게를 곱한 것은 양중 모멘트이다.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든 물체의 중심축부터 전도 축까지의 수평 거리가 짧아지면 양중 모멘트가 작아지므로 양중 능력은 커질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 따르면, 양중 능력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로 임계 하중의 75~85% 수준이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양중 능력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양중 능력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들어 올리는 물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 부가되는 하중이 포함되어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크레인의 중량이 증가할수록 크레인의 안정 모멘트는 커진다. 4문단에 따르면,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추를 설치해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든 물체에 의해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 크레인 본체에 강철로 만든 평형추를 설치하면 양중 능력은 커질 것이다.

06

과학·기술

본문 190~193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③

■ 식물의 생장

해제 ▶ 이 글은 식물이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분열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측생 분열 조직을 통한 부피 생장과 정단 분열 조직을 통한 길이 생장을 설명하고, 뿌리 정단 분열 조직과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서의 길이 생장 원리를 밝히고 있다. 이후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련한 주요 학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제시하고, 현대 식물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WUS 유전자, CLV3 유전자 조절과 사이토키닌, 옥신 등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 식물 생장과 관련된 조직과 그 원리

구성 ▶

- 1문단: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측생 분열 조직과 정단 분열 조직
- 2문단: 측생 분열 조직을 통한 부피 생장
- 3문단: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을 통한 길이 생장
- 4문단: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통한 길이 생장
- 5문단: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한 여러 학술
- 6문단: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한 유전자와 호르몬의 작용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 따르면,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 것은 관다발 형성층이다. 코르크 형성층은 표피 바로 아래에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에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③ 5문단에서 슈미트는 세포 분열 면의 차이를 근거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초층과 내체로 구분하는 초층-내체설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포스터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를 기능에 따라 시원 세포 구역, 주변 구역, 형성 중심부로 나누어 설명하는 세포 조직학적 구역화설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네겔리는 하나의 큰 정단 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라는 정단 세포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자식물에서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각 층이 다른 분열 양상과 분화 과정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스타인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층으로 나뉘어 분화한다는 조직원설을 주장하였으나 많은 종자식물에서 이 세 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두 학설 모두 식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네겔리는 관찰을 통해 하나의 큰 정단 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단 세포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었던 것은 아니다.

③ 네겔리와 한스타인이 어떤 식물에서도 정단 분열 조직의 층 구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④ 네겔리와 한스타인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식물의 위쪽 부분, 즉 줄기, 가지, 잎, 꽃 등의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해 연구한 것이므로 식물의 길이 생장을 다룬 것이다.

⑤ 한스타인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여러 층의 세포에 대해 말한 것은 조직을 구조적으로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신장대에서는 분열된 세포가 길게 늘어나 뿌리의 길이가 자란다. 신장대가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구역은 분열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식물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끝무의 바로 안쪽, 분열대에 있다. 뿌리의 분열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 내면 길이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열대에 정단 분열 조직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④ 성숙대에서는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잉크 점을 찍었기 때문에 잉크 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다.

⑤ 관다발 형성층의 방추형 세포와 방사형 세포는 각각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의 조직으로 분화된다고 하였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사이토키닌이 WUS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발현된 WUS 유전자는 시원 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고도 하였다. <보기>의 실험군 ④에서 중심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길어졌다는 것은 WUS 유전자의 발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시원 세포의 미분화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옥신은 슈트 주변에 모여 잎과 결눈이 생길 위치를 정하는데 관여한다.

③ WUS 유전자는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주변대의 세포가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유도한다.

④ WUS 유전자가 CLV3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CLV3 유전자는 다시 WUS 유전자를 억제해 시원 세포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WUS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면 CLV3 유전자의 발현도 증가한다.

⑤ WUS 유전자의 발현은 CLV3 유전자에 의해 억제되는데, CLV3 유전자는 시원 세포 수가 많을 때 많이 발현된다. 시원 세포 수가 감소하면 CLV3 유전자 발현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WUS 유전자 억제도 약화되어 WUS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으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금지하다’는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라는 뜻이다.

- ② ‘방관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다.’라는 뜻이다.
- ④ ‘제지하다’는 ‘막거나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⑤ ‘훼손하다’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07 과학·기술 본문 194~197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②

■ **임베딩과 유사도 표현**

해제 > 이 글은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원-핫 인코딩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단어 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 임베딩의 방법 중 워드투벡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를 문맥 속에서 예측하거나 특정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맞추는 방식이 있다. 숫자로 표현되는 단어들 간의 관계는 유클리드 거리, 코사인 유사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도를 나타낼 수 있다.

주제 > 임베딩을 통한 단어 표현과 유사도

구성 >

- 1문단: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원-핫 인코딩
- 2문단: 임베딩 기법과 워드투벡
- 3문단: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방법
- 4문단: 단어의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
- 5문단: 단어들의 유사도 표현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5문단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 값이라고 하였으며, 코사인 유사도는 두 점을 각각 원점과 연결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1, 0, -1의 값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코사인 유사도가 0이라는 것은 두 선분이 서로 직각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 경우 유클리드 거리는 0이 될 수 없다. 유클리드 거리가 0이라는 것은 두 점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마지막에서 원-핫 인코딩은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

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의 처음에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이라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임베딩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워드투벡이며,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워드투벡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과 ‘정말’이 주어졌을 때, ‘오늘’과 ‘정말’에 해당하는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h_1, h_2]$ 를 만드는데, 이때 $[h_1, h_2]$ 는 주변 단어들을 참고하여 만든 중간 계산 결과라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날 것이고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임베딩은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핫 인코딩이 $[1, 0, 0, 0]$ 과 같이 4차원의 숫자를 부여한다면 임베딩은 $[0.1, 0.2], [5, 2]$ 등과 같은 2차원의 숫자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베딩은 차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차원을 낮추어 임베딩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원-핫 인코딩은 $[1, 0, 0, 0], [0, 1, 0, 0], \dots$ 과 같이 0과 1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② 임베딩은 1과 0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④ 임베딩은 원-핫 인코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1, 0, 0, 0], [0, 1, 0, 0], \dots$ 과 같이 0과 1만으로 부여된 단어 집합을 적절히 계산하여 $[0.1, 0.2], [5, 2]$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 ㉡ 모두 텍스트를 단어 집합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⑤ 원-핫 인코딩과 임베딩 모두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문단에서 원-핫 인코딩은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단어들

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이다. 따라서 [0, 0, 1, 0]과 같이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된 값을 적절히 계산하여 $[h_1, h_2]$ 와 같이 만드는 이유는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어 집합을 만드는 것은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각 성분을 $[h_1, h_2]$ 로 만드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원-핫 인코딩의 표현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 ④ 원-핫 인코딩의 표현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각 성분을 $[h_1, h_2]$ 로 만드는 것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된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⑤ 원-핫 인코딩에서는 색인 값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0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성분을 $[h_1, h_2]$ 로 만드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고려한다면 '오늘'의 이웃한 단어는 '기분'과 '날씨'가 된다.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2로 고려한다면 '기분', '날씨', '정말', '매우'가 된다.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3으로 고려한다면 '날씨', '기분', '정말', '매우', '좋다', '나쁘다'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단어 집합은 대상 텍스트의 단어를 원소로 이루어진다. 대상 텍스트에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도 단어 집합의 원소에는 추가되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단어 집합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대상 텍스트의 단어는 모두 7개이므로 단어 집합의 크기는 7이고, 0과 1로 이루어진 7차원의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좋다'에 해당하는 $[h_1, h_2]$ 는 이웃한 단어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산된다. 이웃한 단어는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된 고유한 숫자들로 표현될 것이므로 '좋다'의 h_1 과 h_2 는 적절한 계산을 통해 이웃한 단어의 원-핫 인코딩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된다.
- ⑤ '날씨'는 '정말'이나 '매우'와 이웃하고 있다. 따라서 '정말'의 $[h_1, h_2]$ 와 '매우'의 $[h_1, h_2]$ 는 '날씨'를 고려하여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그에 비해 '정말'과 '나쁘다'는 한 문장 내에서

이웃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말'과 '매우'의 거리에 비해 멀게 나타날 것이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②의 '나오다'는 '처리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생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진이 잘 나온다.'의 '나오다'는 ②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웃음이 나오면'에서 '나오다'는 '감정 표현이나 생리 작용 따위가 나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②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③ '시장에 나온'에서 '나오다'는 '새 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②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④ '씩이 나오기'에서 '나오다'는 '속에서 바깥으로 솟아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②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⑤ '녹물이 나오는'에서 '나오다'는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②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08

과학·기술

본문 198~202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④

05 ③

■ 연산 환경 변화와 GPU

해제 > 이 글은 연산 환경 변화에 따라 컴퓨터의 중심 장치로 떠오르게 된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는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순서가 수시로 바뀌며 연산 간 종속성이 큰 작업들을 주로 수행해서 여러 개의 고성능 코어로 구성된 중앙 처리 장치(CPU)를 활용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등 대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GPU를 활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연산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CPU와 GPU의 장점을 모두 고려하는 컴퓨팅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 > 컴퓨터 연산 환경의 변화와 GPU의 특징

구성 >

- 1문단: 연산 환경의 변화가 컴퓨터 장치에 미친 영향
- 2문단: GPU의 구조와 활용 분야
- 3문단: GPU의 작동 원리
- 4문단: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GPU의 메모리 구조
- 5문단: GPU의 단점과 한계
- 6문단: 최근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 방향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은 컴퓨터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코어를 병렬로 작동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GPU를 더 많은 연산 처리에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CPU와 GPU를 구성하는 세부 장치들의 작동 원리 비교·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연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GPU의 데이터 저장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저장 방식의 발전에 따라 GPU의 연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앞으로의 연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GPU와 CPU의 결합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GPU와 CPU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연산 방식의 특성을 설명할 뿐 두 장치에서 사용되는 병렬 연산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CPU는 개별 코어가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GPU는 동일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CPU가 사용되는 컴퓨터 환경은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그 순서가 수시로 바뀌며, 연산 간 종속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 코어를 직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GPU가 사용되는 컴퓨터 환경은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백수천 개의 단순 연산 전용 코어를

병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 ③ CPU는 운영 체제 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 문서 작성 등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④ CPU는 여러 개의 고성능 코어로 구성되어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연산을 처리한다. GPU는 수백수천 개의 단순 연산 전용 코어로 구성되어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CPU와 GPU는 구조와 연산 처리 방식은 다르지만 연산 환경에 따라 모두 컴퓨터의 중심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CPU의 코어와 GPU의 코어는 모두 주어진 명령어를 해석하고 연산을 실행하지만, CPU는 고성능 코어를 사용하고 GPU는 단순 연산 전용 코어를 사용한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 전역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지만 접근 속도가 느려 연산 중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는 연산 중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산 중 접근 경로가 막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 스케줄러는 명령어에 따라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 분배하며, 균등하게 분배되면 대기 상태 없이 병렬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② 3문단에 GPU에서 전달된 명령어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 해석되며, 스케줄러는 이 명령어에 따라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 분배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③ 4문단에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면 충돌이 발생하여 병렬성이 저하되고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⑤ 3문단에 스레드 블록은 명령어에 따라 각 연산 유닛에 분배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현재의 연산이 끝나고 새로운 연산을 수행하면 새로운 명령어에 따라 스레드 블록은 새로운 연산에 맞게 다시 분배된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GPU는 스레드 블록 내 모든 스레드가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이

삽입되면 스레드마다 실행할 작업이 달라져 일부는 대기 상태에 놓이고 하나의 연산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연산을 진행할 수 없어서 병렬성이 손실된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 ① 메모리 계층 간 데이터 이동으로 인한 효율의 저하는 메모리 구조와 관련된 것이지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 ② 전역 메모리의 접근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메모리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블록 내 스레드가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GPU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㉗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 ⑤ 분기문이 삽입되어 연산 흐름이 갈라질 경우 일부 스레드는 대기하고 일부 스레드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병렬성이 손실된다. 블록 내 스레드가 동시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서 GPU는 연산 성능 최적화를 위해 연산 중에는 레지스터나 공유 메모리를 활용하며,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지역 단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동일 연산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므로 충돌 발생 위험이 있다. 따라서 메모리 접근 방식을 조정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 ① 각 지역의 초기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은 복잡한 제어 흐름을 다루는 것이므로 CPU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 ② 시간 단위로 지구 대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는 연산은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스레드들이 순차적으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연산 지연이나 처리 속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은 상황에 맞게 연산 흐름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CPU나 GPU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데이터 처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산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CPU와 GPU 간 연산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⑤ 바람의 급격한 변화나 예외적인 대기 조건이 나타난 것은 분기문이 나타난 상황으로 이때 GPU를 사용한다면 일부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병렬성이 손실된다.

09

과학·기술

본문 203~206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②

■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항상성

해제 > 이 글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이 체내에서 분해되고 저장되며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섭취한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가 불균형한 경우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체는 각종 호르몬의 조절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하여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또한 인체 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 변경이나 환경 조절 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 인체 내 에너지 대사와 에너지 균형 유지

구성 >

- 1문단: 에너지 대사의 개념과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 2문단: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 3문단: 인체 내 에너지 균형 유지에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
- 4문단: 인체 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방법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서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적정 수면 시간의 양이나 수면 방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불균형일 때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체내로 유입된 음식물이 에너지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인 ATP로 전환된 후 필요한 조직에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백색 지방 세포를 베이지 지방 세포로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에서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은 탄수화물 일부는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ATP로 전환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된 포도당이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ATP는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하였고 섭취된 음식물은 ATP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체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갈색 지방 세포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갈색 지방 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의 경우 동일한 음식물 섭취량에서도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 지방산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1문단에서는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량보다 많을 때 남는 에너지가 지방산 형태로 지방 세포에 저장되고, 이로 인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였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인체가 소비한 후 남는 에너지가 지방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시상 하부는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이 기능이 저하되어 에너

지 불균형이 악화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그렐린은 공복 시 수치가 증가하고 식사 후에는 감소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중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하였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서 시상 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여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므로 GLP-1 유사체가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하여 식욕 억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는 것은 렙틴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렙틴의 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렐린은 공복 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므로 GLP-1 유사체는 그렐린 수치를 낮게 해서 식욕을 억제할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GLP-1 유사체는 호르몬을 조절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이다. 에너지 섭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② GLP-1 유사체는 외부에서 인체 내로 주입하는 비만 치료제이다. 백색 지방 세포에서 직접 분비되는 것이 아니다.

③ GLP-1 유사체는 그렐린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렐린 변동과 무관하게 포만감을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GLP-1 유사체는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하여 식욕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백색 지방 세포를 갈색 지방 세포로 전환시키는 것은 GLP-1과 무관하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심화되다’는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다.’의 의미이므로 ‘깊어지면’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생기면’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입되다’는 ‘병원균 따위가 들어오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들어온’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분포하다’는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다.’의 의미이므로 ‘퍼져 있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배출되다’는 ‘안에서 밖으로 밀려 내보내지다.’의 의미이므로 ‘나가도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확장하다’는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히다.’의 의미이므로 ‘넓힌다’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블래킷은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그것의 각운동량에 비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블래킷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네덜란드의 과학자 휘턴이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휘턴은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관련지어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1960년대에 돌, 콕스, 델림플은 잔류 지자기 연구에 포타슘-아르곤 연대 측정을 도입했고 1963년에 신생대 홍적세의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둘은 동료들과 함께 포타슘-아르곤 연대 측정을 사용해서 지자기 역전 시기를 탐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1965년에 콕스와 델림플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하라미요 셋강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요 역전’의 시기를 약 100만 년 전으로 확정했다고 하였다.

10 과학·기술 본문 207~210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③

■ 지자기 역전의 발견

해제 > 이 글은 지자기 역전의 발견이 이루어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다. 물리학자 블래킷이 지구 자기장을 설명하는 가설을 제기한 후 촉발된 고지자기 연구는 암석에 잔류하는 지자기 연구를 통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을 부활시켰다. 이후 잔류 지자기 연구를 통해 지구 자기장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포타슘-아르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통해 지자기 역전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주제 > 고지자기 연구를 통한 지자기 역전의 발견

구성 >

- 1문단: 블래킷의 지자기 설명 시도
- 2문단: 대륙 이동설을 부활시킨 잔류 지자기 연구
- 3문단: 지자기 역전 가설의 대두와 수용
- 4문단: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지자기 역전 시간표 제시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3문단에서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더 많은 관측 결과를 근거로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 뒤바뀌었으리라고 추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지자기 역전은 전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콕스와 델림플이 미국 뉴멕시코주의 하라미요 셋강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요 역전’의 시기를 약 100만 년 전으로 확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약 100만 년 전에 하라미요 셋강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자기 역전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과학자들이 잔류 지자기를 연구하다가 또 다른 발견을 하였다며 잔류 지자기의 증거들은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변칙, 즉 지자기 역전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자기 역전은 잔류 지자기가 검출되기 전에 발견된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잔류 지자기 증거는 베게너의 주장대로 대륙의 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베게너는 암석의 잔류 지자기 증거에 근거하여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③ 2문단에서 1910년대에 베게너는 대륙들이 이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1960년대 초 영국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잊혀진 베게너의 이론을 되살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대륙 이동설과는 별개로 과학자들의 잔류 지자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발견인 지자기 역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과학자들이 잔류 지자기 검출을 통해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륙이 움직인 경우에도 잔류 지자기 검출을 통해 지자기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 흐름의 연대 측정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팀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그들은 굳은 용암을 채취하는 깊이가 몇 미터만 달라져도 다른 시대의 암석이 채취되므로 엄청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깊이에 따라 분출 시기가 다른 용암이 채취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지자기 역전 시기의 확정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잔류 지자기의 증거들은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변칙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잔류 지자기가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역전된다는 것이었지만 물리적 증거가 전무했고,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얻었다고 하였다. 두 가설은 상반된 견해를 전제하므로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잔류 지자기 역전을 근거로 전 지구적 지자기 역전이 일어남을 인정할 수는 없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 잔류 지자기의 증거들은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변칙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두 가지 상충되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잔류 지자기가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역전된다는 가설은 물리적 증거가 전무했고,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다는 가설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얻었고 정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더 많은 관측 결과를 근거로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로 뒤바뀌었으리라고 추론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후속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한쪽 가설을 지지하고 다른 가설은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판정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이 한쪽의 가설만을 지지하여 논쟁을 종식한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② [A]에서 서로 상충하는 가설을 판가름하는 것은 더 많은 관측 결과에 의한 지지였지 더 철저한 논리로 논증을 뒷받침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 잔류 지자기가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역전된다는 가설보다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얻었다고 하였으므로, 다수 과학자가 지지하는 가설이 소수 과학자가 지지하는 가설을 이기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니다.

⑤ [A]에는 가설을 판정하기 위해 확정된 이론으로부터 수학적 연역을 통해 특정 가설을 지지했다는 언급이 없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되는데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성 포타슘은 줄어들고 아르곤은 늘어난다. 따라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 비율이 200:1과 50:1 중 방사성 포타슘에 대한 아르곤의 비율이 큰 쪽은 후자이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원자핵이 변환된다.

②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고 처음에 용암이나 마그마에서 기체 아르곤이 방출되어 없어졌을 것이므로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르곤 원자핵이 방사성 포타슘 원자핵으로 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아도 아르곤이 없었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아르곤 원자핵이 방사성 포타슘 원자핵으로 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고 처음에 용암이나 마그마에서 기체

아르곤이 없어졌을 것이므로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제3의 물질이 조사 대상인 암석에 방사성 포타슘을 공급해 준다면, 현재의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아도 아르곤이 없었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3의 물질이 조사 대상인 암석에 방사성 포타슘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되는데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용암의 초기 온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방사성 포타슘 원자핵의 변환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함을 알 수 있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문단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과거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바위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 안의 자성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정렬되면서 남긴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는 해저 산맥인 해령은 가장 젊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령에서 시작하여 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지자기 정상 구역과 지자기 역전 구역이 띠 모양으로 번갈아 평행하게 분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령에서 용암이 솟구쳐 해저에서 현무암이 형성될 때 가장 늦게 형성된 현무암, 즉 해령 근처의 현무암은 최근의 지자기 역전 이후에 생성되어 지자기 정상 구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1965년에 록스와 델림플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하라미요 셋강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요 역전'의 시기를 약 100만 년 전으로 확정하였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는 해령 근처의 해저 잔류 지자기의 패턴은 해령을 사이에 두고 대칭적으로 나타나는데 해령에서 시작하여 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지자기 정상 구역과 지자기 역전 구역이 띠 모양으로 번갈아 평행하게 분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자기 역전은 육상 암석뿐 아니라 해저 암석에서도 잔류 지자기로 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연구자들은 암석에서 얻은 잔류 지자기의 관측 결과를 근거로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역전 되었으리라고 추론하였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해령은 가

장 젊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령 근처의 해저 잔류 지자기의 패턴이 해령을 사이에 두고 대칭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해령에서 시작하여 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지자기 정상 구역과 지자기 역전 구역이 띠 모양으로 번갈아 평행하게 분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해령에서 생긴 해저 지각이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자기 역전 개념이 해령으로부터 해저 지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과거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바위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 안의 자성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정렬되면서 남긴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는 탐사 팀이 해령에서 시작하여 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지자기 정상 구역과 지자기 역전 구역이 띠 모양으로 번갈아 평행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탐사 팀은 해저 암석에 남아 있는 자성 물질이 배열된 방향을 조사하여 해저 잔류 지자기의 정상 구역과 역전 구역의 띠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되는데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했고, <보기>에서는 해령에서 생긴 해저 지각이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저 지각의 샘플들에 포타슘-아르곤을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을 적용한다면 해령에서 먼 곳의 현무암이 가까운 곳의 현무암보다 생성 시기가 오래되었으므로 방사성 포타슘에 대한 아르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과학·기술

본문 211~213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④

■ CFC의 오존층 파괴

해제 ▶ 이 글은 CFC에 의한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극 오존 구멍의 발견과 그에 대한 인류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성층권에서 고에너지 태양 복사선인 자외선에 의해 오존이 생성됨으로써 오존층이 만들어진다. 1974년에 몰리나와 롤런드는 C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FC는 반응성이 낮은 물질이지만 성층권에 이르러 분해되어 염소 원자를 내놓고 이 염소 원자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참여하면서 오존을 분해한다. 1985년에 '남극 오존 구멍'이 발견되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되어 CFC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주제 > CFC의 오존층 파괴와 오존 구멍의 발견

구성 >

- 1문단: 오존층의 형성과 유지
- 2문단: 성층권에서 CFC에 의해 오존이 분해되는 과정
- 3문단: 남극 오존 구멍의 발견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노력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서 키네틱 케미컬 사가 1930년대 CFC를 발매했을 때 알려진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CFC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명되었는지는 이 글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에 태양 복사선이 부딪쳐 오존이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CFC가 성층권 상층부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가 나와서 오존을 분해하고, 이후 염소 원자는 다른 물질과 결합했다가 분해되어 나와서 다시 오존을 분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CFC가 오존층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남극 오존 구멍 발견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1문단에서 성층권은 전형적인 역전층을 이루고 있어서 지상 10~15km에 해당하는 성층권의 저층에서는 기온이 -60°C에 가깝지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성층권 상층부인 50km의 고도에서는 기온이 0°C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2문단에 CFC가 성층권에서 분해되어 나온 염소 원자가 오존 분자를 분해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CFC가 성층권에서 합성된다는 내용은 이 글 어디에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1문단에서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에 태양 복사선이 부딪쳐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고 했다. 2문단에

서는 CFC가 성층권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태양 복사선인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염소 원자를 내놓는데, 그중에서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는 오존을 분해한다고 했고, 또한 CFC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염소 원자나 그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일산화 염소 라디칼에서 만들어진 '염소 원천 화합물'이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 주고, 이것들이 활발하게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양 복사선은 성층권에서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모두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CFC는 발매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낮아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도 않는 무독성, 비가연성 기체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CFC는 냉매, 용매, 스프레이 캔의 추진제, 다양한 플라스틱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발포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CFC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 스프레이 캔에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되면서 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그 후 남극 오존 구멍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2년과 1993년에는 통상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 14~17km 상공에서 99%의 오존이 사라졌고, 2000년과 2006년에는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큰 오존 구멍이 보고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몬트리올 의정서 발표 후에 2000년에도 남극의 오존 구멍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CFC는 키네틱 케미컬 사가 발매할 당시만 해도 상온과 상압에서 기화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CFC의 발매 당시에는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분해할 가능성이 인지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서 성층권 상층부에 도달한 CFC에 태양 복사선이 부딪쳐 생성된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선 때문에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 주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는 염소 원자가 반응성이 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하는데 이것들은 활발하게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는 성층권에서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CFC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염소 원자나 그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일산화 염소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염화 수소(HCl), 질산 염소(ClONO₂), 하이포아염소산(HOCl)을 생성하는데 이들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는 CFC에서 분리되어 나온 염소 원자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는 성층권에서 염소 원천 화합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문단에서 오존의 생성과 분해는 균형을 이루면서 오존층의 오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오존의 분해가 촉진된다면 오존층의 오존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그래프에서 1987년 8월에 남극 상공 20km 근처에서 오존 농도가 다른 고도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87년 8월에 남극 상공에서는 다른 고도보다 20km 근처에서 오존 분해가 더 촉진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1985년에 파면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 상공에서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즉 ‘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였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1987년 남극의 봄인 10월에 남극의 상공 20km 근처에서 8월과 비교하여 오존 농도의 70% 이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면이 최초로 발견한 오존 구멍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1974년 초에 몰리나와 롤런드는 CFC가 성층권에서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오존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1985년에 파면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 상공에서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였다. <보기>는 1987년 봄에 남극 상공 20km 근처, 즉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오존 구멍’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몰리나가 1974년에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남극 상공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성층권은 지상 10km에서 50km의 범위임을 알 수 있고 <보기>의 그래프에서 1987년 10월인 남극의 봄에는 8월인 직전 겨울에 비해 고도 20km 근처에서 오존 농도가 현격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87년 남극의 봄에는 직전 겨울에 비해 남극 상공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현격히 줄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1985년에 파면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 상공에서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즉 ‘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였고 이에 CFC의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의 그래프는 1987년 봄에 남극 상공에서 오존 농도가 70% 이상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보기>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될 때 지적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2

과학·기술

문 214~217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6 ①

■ 물리적 실재 개념

해제 ▶ 이 글은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 세계인 물리적 실재에 대한 개념은 추론에 의해 도출된다. 뉴턴의 물리적 실재 개념은 입자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뉴턴은 입자인 질점들이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받아 움

직이는 운동으로 역학을 기술하였고 광학에서는 빛을 무게 없는 입자로 보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18세기에는 뉴턴주의자들에 의해 전자기 현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현상을 무게 없는 입자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19세기에는 패러데이가 전자기 현상을 역선과 장을 중심으로 하는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패러데이의 물리적 실재 개념을 맥스웰은 수학적으로 표현하였고, 전자기 현상을 기계적 작동으로 이해하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견하였다. 이후 전자기파가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로렌츠는 전자기적 연속체 개념에 따라 물리적 현상을 해명하려 하였고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은 중력조차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따른 중력장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주제 >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 과정

구성 >

- 1문단: 물리적 실재 개념의 속성과 변천
- 2문단: 역학에서 시작된 뉴턴의 물리적 실재 개념
- 3문단: 광학과 뉴턴주의로 확장된 뉴턴의 물리적 실재 개념
- 4문단: 전자기학에서 창안된 패러데이의 새로운 물리적 실재 개념
- 5문단: 패러데이의 물리적 실재 개념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맥스웰
- 6문단: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의 확장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은 물리적 실재 개념의 속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뉴턴의 입자적 물리적 실재 개념의 시작과 확장, 패러데이의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의 시작과 확장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이 적절한 제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의 내용이 물리적 힘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물리적 실재 개념의 변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전개되므로 ‘물리적 힘 개념의 발전사’는 글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 ③ 글에서 물리적 실재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물리적 실재의 개념적 구성 방법’을 다루지는 않는다. 1문단에서 물리적 실재가 지각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의 기본 가정이라고 했으므로 물리적 실재는 사람이 개념적으로 구성할 대상이 아니다.
- ④ 글에서 미적분학이 물리적 실재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미분과 적분이 일변수를 쓰는가 다변수를 쓰는가가 물리적 실재 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을 언급하지만

글 전체가 ‘미적분학이 물리학에 일으킨 혁명’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글에서 역학에서의 물리적 실재 개념을 논의하고 있지만 역학에 한정하지 않고 광학과 전자기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물리적 실재 개념도 다루고 있으므로 ‘역학에서 물리적 실재 개념의 형성 과정’은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6문단에서 로렌츠의 체계에서 물리적 실재는 기계적 특성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전자기적 연속체로서 기술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로렌츠가 물질을 전자기적 연속체로 본 것은 맞으나 질점 사이의 중력을 장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뉴턴은 빛을 무게 없는 입자로 보고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던 빛의 직진과 굴절, 분산을 입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고 했으므로, 뉴턴은 빛을 무게 없는 입자로 보고 광학 현상을 설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뉴턴의 물리적 실재 개념은 공간, 시간, 입자라는 개념과 입자 간의 상호 작용인 힘 개념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입자는 질점이라고 불렀고 질점은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질점 간에 작용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뉴턴은 입자와 중력 개념을 사용해서 물리적 사건을 설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전자기 유도와 같은 많은 현상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을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패러데이는 전자기 분야에서 연속체에 기반한 물리적 실재 개념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18세기에 이르러 뉴턴의 뒤를 잇고자 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은 빛, 전기, 자기와 관련하여 당시에 관찰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게 없는 입자와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힘을 상정하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사용하여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18세기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은 무게 없는 입자 개념으로 전기와 자기 등을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서 뉴턴의 세계는 빈 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였기에 이에 따라 유럽 대륙의 쿨롱이나 앙페르는 입자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서 전기나 자기를 다룬 반면,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창안한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은 빈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사용하여 전기나 자기를 다룰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5문단에서 패러데이의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인물은 맥스웰이었는데, 그는 전자기 현상을 패러데이의 장 개념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처럼 다변수 함수를 2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은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나 미분을 통해 전자기적 현상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맥스웰은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과정에서 빛을 전자기적 파동의 일종으로 보았고 전자기적 파동의 주파수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이 아닌 전자기파가 에테르를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은 빛을 전자기적 파동으로 간주하여 수학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맥스웰은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은 전자기 현상을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6문단에서 로렌츠의 전자 이론은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현상을 맥스웰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전자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는데, 이로써 로렌츠의 체계에서 물리적 실재는 온전히 전자기적 연속체로서 기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은 전자기적 개념을 활용하여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가능케 한다고 말할 수 있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6문단에서 ㉠이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을 표현함으로써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 해명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중력 현상을 해명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6문단에서 패러데이에 의해 제안되었고 맥스웰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교화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중력을 해명하는 데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활용한 점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 중력을 해명하는 데 패러데이가 창안한 수학적 방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③ 6문단에서 패러데이에 의해 제안되었고 맥스웰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교화된 새로운 물리적 실재 개념의 확장 사례인 로렌츠의 전자 이론은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현상을 온전히 전자기적 연속체로 기술하였으나 ㉠은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했고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 왜곡을 통해 해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물질을 전자기적 연속체로 보는 개념에서 중력장 개념을 도출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④ 6문단에서 20세기 들어와 뉴턴의 입자적 실재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는 동안, ㉠이 나와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뉴턴의 입자적 실재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게 한 것은 아니다.

⑤ 6문단에서 ㉠이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 개념을 따라 중력을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는 관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6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은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

서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 왜곡을 통해
해명하였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중력이 제3 원
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서 제2 원소로 된 미세한 물질이 물
체에 접촉하면서 물체를 소용돌이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압력
으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아인슈타인과
달리 중력이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유발하는 압력으로 생긴다
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입자들이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
어 우주에 진공은 없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데카르
트는 패러데이처럼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뉴턴은 질점이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에 의해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데카
르트는 입자들이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어 우주에 진공
은 없다고 보았고, 중력을 제3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
서 제2 원소로 된 미세한 물질이 물체에 접촉하면서 물체를 소
용돌이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압력으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뉴턴과 달리 진공 속에서 중력이 전달된
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뉴턴은 질점이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으로부터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중력을 제3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서 제2 원소로 된 미세한 물질이 물체에
접촉하면서 물체를 소용돌이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압력으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데카르트는 뉴턴과 달리 중력
을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작용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하였다고 하였고, <보기>에
서 데카르트는 기계적 모형에 의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는 중력을 제2 원소로 이루어진 소용돌이 속에서 물
체에 작용하는 미세한 물질의 압력으로 보는 것이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맥스웰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 처
럼 중력의 작용을 기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압력이 그에게 미쳤다.’에서 ‘미치다’는 ‘영향이나 작용 따
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적 의미
와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결승점에 못 미처서’에서 ‘미치다’는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적 의미
와는 거리가 멀다.

③ ‘기가 막혀 미칠 지경’에서 ‘미치다’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
리가 멀다.

④ ‘노래에 미쳐’에서 ‘미치다’는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
중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⑤ ‘미친 듯 소리쳤다.’에서 ‘미치다’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
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3

과학·기술

본문 218~221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①

05 ⑤

■ 사당

해제 ▶ 이 글은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일종인 사당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분산 파일 관리 체계는 다수의 저렴한 저성능 기
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비용과 성능에서 이득
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하
나로서 사당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기계에 저
장하고 활용한다. 사당은 라우터와 설정 서버를 마련하여 실행
하는데 저장소 분산과 부하 분산의 장점이 있다. 사당은 성능
병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장애 허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나
샤드와 복제를 결합함으로써 장애 허용성의 문제는 줄일 수 있
다. 사당과 복제를 결합할 때 데이터 일관성이 일시적으로 깨
지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사당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 ▶ 사당의 개념과 실행 방법

구성 >

- 1문단: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장점
- 2문단: 샤딩의 구현 방법과 장점
- 3문단: 샤딩의 약점과 극복 방법
- 4문단: 샤딩의 개선 방향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서 저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느라 유발되는 부하로 인한 지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중 하나인 샤딩의 약점으로 언급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서는 다수의 저렴한 저성능 기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기계에 분산되어 있으면 고장 나지 않은 기계에 있는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는 서버의 부하를 줄여 신속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기계적 성능과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전략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하나인 샤딩의 장점으로 데이터의 쓰기, 읽기 및 연산을 다른 기계가 분산하여 처리할 때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해킹을 당하더라도 해커에게 단일 서버에 접근하여 단번에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탈취하지 못하고 여러 기계를 뚫어야 하는 어려움을 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서 샤딩을 운용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 샤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라우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라우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샤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샤딩은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샤드 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샤딩은 데이터를 샤드 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이고, 샤드는 관리하기 쉽도록 분할한 후 서로 연결된 기계들에 나누어 저장한 데이터 세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샤딩을 운영할 때 설정 서버에는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샤드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로그 정보가 저장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샤딩을 운용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샤드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판별하고, 그 샤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라우터가 필요하며,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샤드의 분할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설정 서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서 샤딩이 갖는 약점으로 샤드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법적 변조나 기계적 에러가 발생할 경우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장애 허용성이 낮다고 했고, 복제는 샤딩과 달리 각기 다른 기계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방법으로 데이터의 불법 변조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른 기계가 복제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에러를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장애 허용성을 확보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장애 허용성은 데이터의 불법적 변조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비해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해도 복구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㉔의 의미와 거의 일치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데이터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능력’은 데이터에 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결함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㉔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② ‘해킹과 같은 공격에 대비하여 마련한 보안 대책’은 해킹으로 결함이 생기기 전에 결함을 방지하려는 대책에 관련된 것이므로 데이터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결함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㉔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④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받아들여서 향후 사용을 위해 준비한 상태’는 데이터에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을 복구하지 않

고 사용하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이므로 데이터에 결합이 발생했을 때 결합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㉔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데이터를 모아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능력’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결합이 있는 데이터를 직접 변환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수리 능력을 의미하므로 데이터에 결합이 발생했을 때 결합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비한다는 ㉔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3문단에서 사당에 복제를 결합하면, 사당에 따라 기계마다 다른 내용의 샷드가 저장되므로 가령 기계 A에 샷드 s1, 기계 B에 샷드 s2가 저장될 수 있고, 복제에 따라 기계 B에 s1의 복제본 s1'이 저장되어 기계 B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샷드 s2와 복제본 샷드 s1'이 함께 저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㉖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복제이며, 원본 데이터 세트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슬레이브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㉖를 채택할 때에는 마스터가 하나이므로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샷드로 존재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3문단에서 사당에 복제를 결합하면, 특정한 샷드의 내용이 하나의 기계에만 저장되지 않고 다른 기계에도 그 샷드의 복제본이 저장되므로 하나의 기계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샷드와 복제본 샷드가 함께 저장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㉖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복제이며, 원본 데이터 세트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슬레이브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㉖를 채택할 때에는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샷드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사당에 복제를 결합하면, 특정한 샷드의 내용이 하나의 기계에만 저장되지 않고 다른 기계에도 그 샷드의 복제본이 저장되므로 하나의 기계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샷드와 복제본 샷드가 함께 저장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복제를 구현하려면 원본 데이터 세트와 그것 전체를 복사한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여 저장해야 하며, ㉔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어라고 부르며 대등하게 취급하는 복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를 채택할 때에는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샷드들이 피어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사당에 복제를 결합하면, 특정한 샷드의 내용이 하나의 기계에만 저장되지 않고 다른 기계에도 그 샷드의 복제본이 저장되므로 하나의 기계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샷드와 복제본 샷드가 함께 저장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복제를 구현하려면 원본 데이터 세트와 그것 전체를 복사한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여 저장해야 하며, ㉔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어라고 부르며 대등하게 취급하는 복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를 채택할 때에는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샷드들이 피어로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사당과 복제의 결합을 구현할 때 기계와 기계의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복제를 구현하려면 원본 데이터 세트와 그것 전체를 복사한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여 저장해야 하며, 쓰기 요청에 의해 수정된 데이터 세트는 마스터 슬레이브 방법에서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피어 투 피어 방법에서는 수정된 피어에서 다른 피어로 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㉖나 ㉔ 중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보관하는 샷드들 간에 일시적으로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평화가 깨지는’에서 ‘깨지다’는 ‘지속되던 분위기 따위가 일순간에 바뀌어 새로운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여서 ㉔처럼 ‘일관성이 깨지는’의 ‘깨지다’와 문맥상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항아리가 깨졌다.’에서 ‘깨지다’는 ‘단단한 물건이 여러 조각이 나다.’의 의미로 쓰여서 ㉔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② ‘계약이 깨졌다.’에서 ‘깨지다’는 ‘일 따위가 틀어져 성사가 안 되다.’의 의미로 쓰여서 ㉔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③ ‘이마가 깨졌다.’에서 ‘깨지다’는 ‘언어맞거나 부딪쳐 상처가 나다.’의 의미로 쓰여서 ㉔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 ④ ‘기록이 깨지는’에서 ‘깨지다’는 ‘어려운 관문이나 기록 따위가 돌파되다.’의 의미로 쓰여서 ㉔의 문맥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01

주제 통합

본문 223~227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②

■ 왕필과 곽상의 사상

가

해제 > 이 글은 위나라 철학자인 왕필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가 사상의 발전 과정과 왕필이 ‘무’를 존재의 근원으로 해석한 철학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왕필은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관점에서, 존재의 본질을 무형의 원리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질서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위를 단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적극적 삶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정치에도 무위와 명분론을 적용하여 이상적인 통치 방식을 제시하였다.

주제 > 왕필의 무(無) 중심 세계관과 무위 철학, 그리고 이를 통한 자연적 질서와 이상적 사회 통치의 모색

구성 >

- 1문단: 도가 사상의 발전과 형이상학적 논의의 전개
- 2문단: 왕필의 무(無) 개념과 존재론적 해석
- 3문단: 정치 철학에서의 무위 개념과 군주의 역할
- 4문단: 무위이치의 통치론과 유가 사상과의 융합

나

해제 > 이 글은 진나라 시대 철학자인 곽상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가 『장자』를 해석하며 강조한 자연의 자발성, 개체의 독립성, 그리고 상대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상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이념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은 왕필의 일원론적 존재관을 비판하면서 무를 존재들의 개별성과 차이를 가능케 하는 배경 조건이자,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존재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기반하여, 존재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자율성 속에서 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곽상의 철학은 자유, 다양성, 실천적 성찰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후대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

주제 > 곽상의 독화론을 중심으로 한 존재의 자율성 강조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유연한 인식의 철학

구성 >

- 1문단: 제물론의 개념

- 2문단: 곽상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혜의 실천 강조
- 3문단: 왕필의 ‘무’에 대한 곽상의 비판
- 4문단: 도가 철학의 전통 계승과 현대적 의의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는 왕필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그 철학이 후대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며, 후대 사상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나) 역시 곽상의 철학을 소개하고 후대 명·청 시대 철학에서는 그의 사유가 실천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 모두 철학자의 사상을 제시하고 그 사상이 후대 사상에 미친 영향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가 ‘도’, ‘무’ 등의 개념을 밝히면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나, (나)는 철학자의 주장에 대한 예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② (나)에서 곽상이 왕필의 ‘무 일원론’을 비판하므로 (나)는 (가)에 언급된 철학자의 사상을 반박하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가)는 현상에 대한 철학자의 문제 제기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가)는 인과적 서술 방식을 통해 사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나) 역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양한 철학자의 대조적 관점을 인용하고 이들의 논쟁을 시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3문단에서 “곽상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왕필의 일원론적 존재관을 비판하였다.”를 통해 곽상은 왕필의 ‘무 일원론’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무를 절대적 실체라기보다,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서로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적 조건으로 이해하였다.”를 통해 무를 실제 존재하는 사물로 인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왕필에게 무는 단순한 ‘없는 것’이 아니

라, 형제도 이름도 없지만 만물을 낳는 근본적 실재, 즉 모든 유(有)의 존재 조건이 되는 절대적 원리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왕필이 ‘무(無)’를 단순한 공허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근원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그는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제를 통해 세계의 생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는 무와 유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가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왕필이 무와 유의 관계를 대립으로 보지 않고, 무가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 본성을 성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관상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 본성을 성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그는 ‘도(道)’를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고, 이를 ‘무(無)’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왕필은 이러한 원리를 삶과 정치에도 적용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왕필은 ‘무’의 원리를 중심으로 세계의 근원을 탐구하며 이를 정치 질서에 적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3문단에서 “관상은 모든 존재는 단일한 근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존재들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각 존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성과 그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관상은 존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을 통해 왕필은 군주가 백성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위의 정치 실현 방식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왕필의 정치적 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에는 이미 스스로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있어야 하며, 인간 역시 그 질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왕필이 말한 여건 마련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등의 외적 방어 조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 것이다.

② 왕필은 인간의 의지나 판단과 같은 인위적 행위가 도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③ 왕필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내적 조화로 생각하므로 외적 강제에 의한 실현을 정치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④ 백성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며, 지속적인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1문단에서 “인간이 설정한 가치나 규범은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존재는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였으므로, ㉡는 존재 간의 차별을 부정하는 관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문단에서 “존재는 타자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변화하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였으므로 ㉢는 각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관상의 입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2문단에서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는 모든 존재를 동일한 본성의 표현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라는 내용은 있으나, 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나)의 2문단에서 “관상은 이러한 제물론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라고 하였으므로 관상이 ㉦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라고 하였으므로 ㉧는 존재들의 동등함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2문단에서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하였으므로 ㉣가 개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개체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또 ㉣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물을 단일한 도의 원리로 환원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⑤ (나)의 1문단에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옳고 그름·귀하고 천함·생과 사와 같은 구별 또한 상대적임을 강조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니며, 2문단에서 “모든 존

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하였으므로 ㉔ 역시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철학자 A는 인위적 교화와 규범이 필수적이라고 보므로 광상이 주장한 존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비판하지만, 철학자 C는 모든 사람은 공리적 사랑과 실용적 이익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광상의 사상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학자 A와 C 모두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회적 조화와 규범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철학자 A는 인간과 사회는 자연 질서에 맡겨 둘 수 없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혼란을 낳는다고 하였으므로 왕필이 주장한 무위의 통치를 비판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인위적 제도와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철학자 B는 사물은 이름과 구별을 통해 인식되며,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므로 광상이 절대적 기준 없이 존재 간의 동등함과, 개별적 차이의 상대적 가치를 강조한 점을 비판하며, 존재의 차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철학자 C는 현실적 효용을 잃게 하는 지나친 형이상학적 논의에 대해 비판하므로 왕필과 광상이 도(道)나 무(無)와 같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광상이 모든 존재를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독립적 실체로 본 점에 대해서는 평등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긍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철학자 A는 예와 법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왕필이 말한 ‘무위’의 비현실성을 비판할 것이며, 철학자 B는 사물은 이름과 구별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왕필이 말한 이름도 없는 ‘무’의 근본적 실재로서의 가치를 비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업무를 맡겼다.’에서 ‘맡기다’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사물의 본성에 일체를

맡기는’에서 ‘맡기다’와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건을 맡기다.’에서 ‘맡기다’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㉔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③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기고’에서 ‘맡기다’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㉔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④ ‘통장은 아무에게나 맡기면’에서 ‘맡기다’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㉔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⑤ ‘떡을 주문 맡긴’에서 ‘맡기다’는 ‘주문 따위를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㉔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멀다.

02 주제 통합

본문 228~232쪽

- 01 ③
- 02 ①
- 03 ④
- 04 ②
- 05 ⑤
- 06 ③

㉔ 세계화에 대한 부르디외와 기든스의 견해

㉔

해제 > 부르디외는 자본을 ‘경제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상징 자본’으로 구분하고, 세계화를 통해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세력 간 위계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지배층이 비가시적, 비물리적 폭력인 상징 폭력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적 습성인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권력의 약화를 우려하며,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하여 세계화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주제 > 세계화에 대한 부르디외의 견해

구성 >

- 1문단: 부르디외가 제시한 네 가지 자본
- 2문단: 상징 폭력과 아비투스
- 3문단: 부르디외가 제시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방법

㉕

해제 > 기든스는 세계화를 근대성의 확장이라고 정의하고, 시간과 공간의 분리, 장소 귀속 탈피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는 제조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세계화에는 위험뿐 아니라 정치 민주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회 획득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제3의 길을 제시하며, 국가들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 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고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위험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제 > 세계화에 대한 기든스의 견해

구성 >

- 1문단: 세계화에 대한 기든스의 정의와 이해
- 2문단: 제조된 위험과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
- 3문단: 기든스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제3의 길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권력이 약화되어 공공 서비스와 복지 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며 세계화에 대항하려 했던 부르디외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제조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 기든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부르디외가 제시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기든스가 제시한 세계화의 위험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세계화에 대한 부르디외의 주장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나)는 세계화에 대한 기든스의 주장이 가진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나)는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세계화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관점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나)는 세계화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관점을 제시한 뒤,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상징 자본은 명예, 권위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상징적 가치가 자본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문화 자본은 개인이 보유한 문화적 지식, 기술, 교육 및 문화적 자산 등이며, 사회 자본은 학연·지연·혈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다. 따라서 상징 자본과 문화 자본은 사회 자본과 마찬가지로 무형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힘과 영향력의 근원으로서 사회 활동에서 다양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자본’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삶의 영역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장소 귀속 탈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지역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벗어나 매우 넓은 공간에 걸쳐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외부적 위험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위험으로서,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인 반면, 제조된 위험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에 의한 위험이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사회 투자 국가는 물질적 지원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신흥합 경제 체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예방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해방의 정치가 아닌 삶의 정치를 실현하려 하는 국가이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기득권 세력이 언론, 교육 등을 활용한 상징 폭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 하였다. 즉 아비투스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지만, 기존의 질서가 재생산되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부르디외는 아비투스가 계층 간의 통합과 조화가 아닌 위계의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② 부르디외는 아비투스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지배 질서가 재생산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 ③ 부르디외는 아비투스가 기존의 사회 구조가 불평등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것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 ⑤ 아비투스는 개인의 의식적인 사고, 행동이 아니라,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로 인해 갖게 된 무의식적 습성을 나타낸다.

04 중심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단순히 취약 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정신적 가치의 고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지배를 위한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세계화의 숨은 본질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상징 자본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작용하며, 그 결과 불평등한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세계화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한 부르디외와 달리 세계화로 인해 서구의 부유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경제 세계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일반 시민들도 포함하는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장하고 복지를 축소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논리에 대항하고자 하였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정신적 가치의 고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세계화로 나타나는 위험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권력이 약화되어 복지 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며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시장과 정부,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익과 시장 경제가 모두 활성화되는 신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복지 재원의 마련을 위해 경제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고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의 비중이 높은 구혼합 경제 체제 대신에, 시장과 정부,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익과 시장 경제가 모두 활성화되는 신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과 사회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득권 세력이 언론, 교육 등을 활용한 상징 폭력을 통해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 자본의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르디외는 갑이 B국의 문화를 C국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비투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부르디외는 언론, 교육 등을 활용한 상징 폭력에 의해 사람들은 세계화가 지배를 위한 통합이 아닌 협동과 조화를 위한 통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 '무제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B국의 시장 지배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A국 국민들로부터 B국의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상징 폭력을 활용한 일종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갑이 다른 나라의 수입을 온라인으로 들고 을이 A국과 B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은 삶의 영역이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게 되는 장소 귀속 탈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든스는 이러한 것들을 근대성이 확장되어 사회적 관계가 지역적 상호 작용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분업의 원리에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었고, 특정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전이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국의 경제 불황이 C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분업의 원리에 따라 보편화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인한 제조된 위험이라고 볼 것이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국한되다'는 '범위가 일정한 부분에 한정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은 '놓이지'와 바뀌 쓸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장하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는 '부추겨'와 바뀌 쓸 수 있다.

② '대항하다'는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⑥는 '맞서고자'와 바꿔 쓸 수 있다.

④ '토대하다'는 '기초하거나 근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④는 '바탕을 둔'과 바꿔 쓸 수 있다.

⑤ '창출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⑤는 '만들어 내어'와 바꿔 쓸 수 있다.

간의 경계면이 생기는데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 경계면의 면적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체-액체 간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가 고체-기체 간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보다 작으면 고체 면에 대한 액체의 접촉각이 90°보다 작아 액체가 고체 면에 납작하게 퍼진다. 고체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0°에서 180°로 커지면서 친수성, 소수성, 초소수성 고체 표면이 나타난다.

주제 > 표면 에너지에 의한 접촉각의 결정 원리

구성 >

- 1문단: 젖음성과 접촉각의 관계
- 2문단: 표면 에너지의 의미
- 3문단: 표면 에너지가 접촉각을 결정짓는 원리
- 4문단: 접촉각에 따른 친수성, 소수성, 초소수성의 구분

03 주제 통합 본문 233~237쪽

- 01 ①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6 ①

■ **찾주전자 효과와 젖음성**

가

해제 > 이 글은 찾주전자 효과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찾주전자 효과는 병이나 주전자의 액체를 따를 때 유속이 낮아지면 액체가 주둥이 끝에서 이탈하지 않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뒤에즈 연구 팀이 연구한 결과, 주둥이에서 액체의 이탈 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주둥이의 젖음성,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액체의 속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찾주전자 효과를 줄이려면 액체의 속력을 올리거나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을 줄이거나 주둥이를 초소수성 재료로 코팅하면 된다.

주제 > 찾주전자 효과의 원리

구성 >

- 1문단: 찾주전자 효과의 의미
- 2문단: 찾주전자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
- 3문단: 찾주전자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나

해제 > 이 글은 젖음성과 접촉각 및 표면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젖음성은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젖음성이 클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물에 대한 접촉각이 작은 것을 친수성, 친수성이 작은 것을 소수성이라고 한다. 표면 에너지는 경계면의 면적을 줄이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액체가 고체에 부착되면 고체-액체, 고체-기체, 액체-기체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3문단에서 드리블링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젖음성이 매우 작은 초소수성 재료로 주둥이 끝을 코팅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초소수성 재료는 왜 물에 대한 젖음성이 작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나)의 1문단에서 토머스 영은 기체 중에서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이 떨어졌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서 고체-액체 간 경계면과 액체-기체 간 경계면이 이루는 각인 접촉각이 작을수록 고체의 액체에 대한 젖음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고체-액체 간 표면 에너지가 고체-기체 간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 고체-액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줄고 고체-기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액체 방울이 고체 면 위에서 뭉치면서 동그래져 접촉각이 90°보다 커진다고 하였고, (나)의 4문단에서 물에 대한 접촉각이 150° 이상인 고체 물질을 초소수성 물질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초소수성 재료는 왜 젖음성이 작은가?'라는 의문에 대해 초소수성 재료는 물에 대한 표면 에너지가 공기에 대한 표면 에너지보다 매우 커서 물에 대한 젖음성이 작다고 답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언급된 찾주전자 효과에 대하여 '유속이 크면 찾주전자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답은 (가)의 2문단에서 액체를 주둥이 가장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으나 (나)에는 답이 없다.

③ (가)의 2문단에서 드리블링과 주전자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이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고 ‘드리블링과 주전자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이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가)의 2문단에서 액체가 일정한 속력 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에는 액체가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휘어진 곡면을 따라 벽을 타고 흐르지만, 액체가 일정한 속력 값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이탈하는데 이는 액체가 주둥이에서 주둥이 아래쪽 가장자리의 곡면을 타고 이동할 경우에 액체를 주둥이 가장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그리고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반면 (나)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유속이 충분히 클 때에는 이탈 각이 90° 가까이 유지되지만 유속이 줄어들면서 이탈 각이 감소한다는 언급에서 ‘액체의 속력이 줄어들 때 주둥이에서 이탈 각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가)의 2문단에서 주둥이의 젖음성, 주둥이의 곡률, 유속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나)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와인병의 끝에 꽂는 와인 따르개는 끝부분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작아서 액체 속력이 느려도 드리블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와인 따르개가 와인이 병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반면 (나)에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3문단에서 고체 면에 부착된 액체 방울과 관련해서 고체-액체 간 표면 에너지가 고체-기체 간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 고체-액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줄고 고체-기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늘기 때문에 액체 방울이 고체 면 위에 뭉치면서 접촉각이 90° 보다 커져 180° 에 더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서 고체 면에 부착된 물방울에서 고체-액체 간 표면 에너지가 고체-기체 간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 물의 접촉각이 90° 보다 커져 180° 에 더 가까워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문단에서 물에 대한 젖음성이 큰 정도는 친수성, 작은 정도는 소수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물에 대한

젖음성이 작아지면 소수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왈각 따를 때에는 잘 쏟아지던 액체가 쏟는 속력이 줄면 바깥 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런 현상을 ‘찾주전자 효과’ 또는 ‘드리블링’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찾주전자 효과는 액체의 유속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찾주전자 효과를 막는 방법 중 하나가 젖음성이 매우 작은 초소수성 재료로 주둥이 끝을 코팅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초소수성 재료로 와인병 입구를 코팅하면 드리블링이 방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고체-액체 간 표면 에너지가 고체-기체 간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 고체-액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줄고 고체-기체 간 경계면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액체 방울이 고체 면 위에서 뭉치면서 동그래져 접촉각이 90° 보다 커져 180° 에 가까워진다고 하였고, (나)의 4문단에서는 어떤 고체 물질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90° 에서 180° 사이이면 그 물질을 소수성 물질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수성 물질은 물과의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가 공기와의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1문단에서 기체 중에서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이 떨어졌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서 고체-액체 간 경계면과 액체-기체 간 경계면이 이루는 각인 접촉각이 작을수록 고체의 액체에 대한 젖음성이 크다고 하였으므로, 접촉각은 고체-액체 사이 면과 액체-기체 사이 면이 만나는 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1문단에서 접촉각 θ 가 10° 이면 액체가 고체 표면에서 납작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지만, 접촉각이 150° 이면 액체가 구의 일부가 잘린 채 동그런 모양을 유지하며 고체 표면에 달라붙은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평면에 떨어진 액체가 널리 퍼질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토머스 영이 같은 액체라도 어떤 고체 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접촉각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접촉각은 액체가 떨어진 곳에 관계없이 액체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다.

④ (나)의 1문단에서 접촉각 θ 가 10° 이면 액체가 고체 표면에서 납작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지만, 접촉각이 150° 이면 액체가 구

의 일부가 잘린 채 둥그런 모양을 유지하며 고체 표면에 달라 붙은 상태인데, 전자는 고체 면이 젖음성이 큰 상태, 후자는 젖음성이 작은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고체 면에 대한 젖음성이 매우 큰 액체는 접촉각이 180° 가 아니라 0° 에 가깝다.

⑤ (나)의 4문단에서 물의 접촉각이 150° 이상인 고체 물질을 초소수성 물질이라고 하였으므로, 어떤 고체 면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145° 이면 그 고체는 초소수성을 띠지 않는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2문단에서 액체가 일정한 속도 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에는 액체가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휘어진 곡면을 따라 벽을 타고 흐르지만, 액체가 일정한 속도 값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이탈하는데 이것은 액체가 주둥이에서 곡면을 타고 빠르게 이동할 경우에는 액체가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면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그리고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둥이 끝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이탈 각은 커진다. <보기> (b)에서 곡률 반경을 $c1, c2, c3, c4$ 로 다르게 했을 때 유속이 줄어들어도 이탈 각이 가장 크게 유지되는 것은 $c1$ 이다. 그러므로 $c1, c2, c3, c4$ 중 곡률 반경이 가장 작은 것은 $c1$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문단에서 뒤에즈 연구 팀의 실험에서 주둥이의 젖음성이 클수록 같은 유속에서 액체의 이탈 각은 작아졌다고 하였고 <보기>의 (a)에서 같은 유속에서 이탈 각이 가장 작은 것은 $w3$ 이므로, (a)에서 젖음성이 가장 큰 것은 $w3$ 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이탈 각이 작을수록 찰주전자 효과가 커진다고 하였고, <보기>의 (a)에서 유속 U 가 작아지면 이탈 각이 작아지는데 $w1, w2, w3$ 사이의 이탈 각의 차이가 점점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a)는 유속이 작을 경우가 클 경우에 비해 젖음성의 차이에 따른 찰주전자 효과 차이가 커짐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유속이 같을 때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이탈 각은 커짐을 추론할 수 있고, (가)의 3문단에서 와인병의 끝에 꽂는 와인 따르개는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이 작아서 액체의 속력이 느려도 드리블링이 잘

일어나지 않다고 하였다. <보기> (b)에서 유속이 느려도 이탈 각이 가장 크게 유지되는 것은 $c1$ 이다. 그러므로 $c1 \sim c4$ 중 와인 따르개의 주둥이 가장자리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c1$ 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찰주전자 효과는 드리블링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가)의 2문단에서 이탈 각이 작을수록 찰주전자 효과가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 (a), (b)에서 그래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탈 각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기> (a), (b)에서 결괏값을 나타내는 도형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치우칠수록 드리블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05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의 2문단에서 표면 에너지는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A]에서 이웃한 두 가지 경계면에서 표면 에너지가 크고 작음에 따라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지고 커져서 접촉각을 결정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의 상대적 크기가 크면 해당 경계면의 면적은 줄어들면서 이웃한 경계면의 면적은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A]에서는 어떤 경계면 A의 표면 에너지가 이웃한 다른 경계면 B의 표면 에너지보다 크면 A의 면적은 줄어들고 B의 면적은 늘어난다는 원리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2문단에서 표면 에너지는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면 A의 표면 에너지가 이웃한 다른 경계면 B의 표면 에너지보다 크면 A의 면적은 늘어나고 B의 면적은 줄어든다는 것은 옳지 않고 [A]에서의 설명과 합치하지 않는다.

③ (나)의 2문단에서 표면 에너지는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A의 표면 에너지가 양수일 때 A의 면적은 늘어나려는 경향을 띤다는 진술과 상충된다.

④ (나)의 2문단에서 표면 에너지는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B의 표면 에너지가 음수일 때 B의 면적은 줄어들려는 경향을 띤다는 진술과 상충된다.

⑤ 이웃하는 경계면 A와 B가 고체-액체 간 경계면인지, 고

체-기체 간 경계면인지, 액체-기체 간 경계면인지 지정되지 않았는데 A의 표면 에너지가 B의 표면 에너지보다 크다는 조건만으로 접촉각이 90°에서 줄어들어 0°에 더 가까워진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원인을 밝히겠어.’에서 ‘밝히다’는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상 의미에 가장 가깝게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시골길을 환하게 밝혔다.’에서 ‘밝히다’는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③ ‘밤을 뜯눈으로 밝히고’에서 ‘밝히다’는 ‘자지 않고 지내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④ ‘돈을 밝히는’에서 ‘밝히다’는 ‘드러나게 좋아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⑤ ‘눈을 밝혀’에서 ‘밝히다’는 ‘눈, 신경, 두뇌 따위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의 문맥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04 주제 통합

본문 238~242쪽

- 01 ②
- 02 ②
- 03 ③
- 04 ①
- 05 ⑤
- 06 ③

■ 사변적 실재론, 사변적 실재론에 대한 비판

㉠

해제 > 이 글은 20세기 후반 상관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사변적 실재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변적 실재론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를 인정하고, 이를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변적 실재론은 브라시에의 소멸 개념과 메이아수의 사실론성의 원리를 통해 설명되었으며, 실재를 인간의 언어나 의미에 가두지 않고 세계 그 자체를 사유함으로써 철학 본연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제 > 사변적 실재론의 주장과 철학적 의의

구성 >

- 1문단: 상관주의 경향에 따른 철학의 변화
- 2문단: 사변적 실재론의 등장과 상관주의에 대한 비판
- 3문단: 브라시에의 사변적 실재론
- 4문단: 메이아수의 사변적 실재론
- 5문단: 사변적 실재론의 의의

㉡

해제 > 이 글은 사변적 실재론이 지닌 철학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브리엘과 페라리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실재의 존재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체의 인식과 완전히 분리된 실재를 상정하는 것은 철학이 실재를 사유할 수 있는 언어적 정당성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가브리엘은 실재가 다양한 ‘의미의 장’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보고, 페라리스는 기록·언어·제도라는 매개 구조를 통해서만 사회적 실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실재가 ‘의미의 장’이나 언어, 문화와 같은 매개 구조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학은 주체와 실재를 단절시키기보다 그 관계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 > 사변적 실재론의 탈상관주의에 대한 비판

구성 >

- 1문단: 사변적 실재론의 의의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
- 2문단: 가브리엘의 사변적 실재론 비판
- 3문단: 페라리스의 사변적 실재론 비판
- 4문단: 사변적 실재론의 한계와 철학적 사유의 방향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상관주의가 인식을 주체와 대상의 관계 내에서만 한정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관점을 벗어난 실재 중심의 사유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는 사변적 실재론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실재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며, 실재는 가브리엘의 ‘의미의 장’이나 페라리스의 ‘매개적 구조’와 같은 의미 구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사변적 사유를 과학적 방법인 실험이나 관찰이 아닌 순수한 이성적 사유로 정의하며 경험적 인식 너머의 실재를 탐구하려 하므로 방법론적 통합을 시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실재가 드러나는 매개 구조의 분석을 주장할

뿐 경험적 인식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험적 인식의 우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인간 중심적 사유의 한계를 수용하여 그 안에서 실재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나)의 가브리엘과 페라리스는 철학적 사유가 결국 인간의 '의미의 장'이나 '매개적 구조'라는 맥락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즉 (나)는 철학적 사유가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의 비판은 실제 자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실재를 사유하는 철학적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나)가 상관주의의 관점에서 실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변적 실재론의 주장을 비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주체와 실제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전제하는 상관주의를 비판하며, 실제의 독립성과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페라리스를 통해 사변적 실재론이 '언어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가브리엘을 통해 실재가 '의미의 장'이라는 인식론적 조건 속에서만 파악된다는 점을 통해, (가)의 시도에 대한 언어적·인식론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사변적 사유란 실험이나 관찰 같은 과학적 방법이 아닌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사변적 실재론은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 너머의 실재를 이성의 논리로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이다. 이는 사변적 실재론이 과학적 방법론, 즉 경험에 기반한 실험과 관찰을 배제하고, 순수 사유를 통해 실재에 접근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사변적 실재론은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가 존재하며,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 너머의 실재를 이성의 논리로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기획으로서, 인간의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실재를 사유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상관주의는 주체와 대상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인식 주체의 관점을 벗어난 실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다. 즉 상관주의는 인식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인식 주체와 분리된 실재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부정한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메야아수는 '사실론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존재도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라는 점을 실제의 특성으로 제시한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브라시에는 우주의 소멸이나 생명체의 멸종과 같은 인간의 의미 구성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들을 실제의 일례로 보고, 존재와 소멸의 구조 자체를 사변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브라시어가 존재의 소멸 구조를 통해 실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가브리엘은 실재가 단일하고 외재적인 실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의미의 장'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실재를 이해하고 사유하는 방식은 특정 의미 맥락에 의해 조건 지어지며, 이러한 의미의 장은 주체의 인식 및 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탐구 가능해지려면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은 주체와 독립된 실재가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인식론적 맥락이자, 주체의 사유와 실재를 연결하는 매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 따르면, ㉠은 사변적 실재론을 비판하는 가브리엘이 제시한 개념이며, 사변적 실재론자들이 개발한 방법론적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사변적 실재론은 이러한 매개 구조를 건너뛰려 한다는 점을 가브리엘은 비판한다.

② (나)에 따르면, ㉠은 주체의 인식 및 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인식 구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④ (나)에 따르면, ㉠은 실재가 철학적으로 탐구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 즉 실재가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므로, 철학이 실재에 접근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한계가 아니라 철학이 실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자 통로에 해당한다.

⑤ (나)에 따르면, 사회적 기록과 제도를 통해 실재에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가브리엘이 아니라 페라리스이다.

또한 주체의 개입 없이도 철학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주체와의 연관성에 바탕을 둔 개념인 ㉠과 배치된다.

0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브라시에는 인간의 의미 구성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들, 예컨대 우주의 소멸이나 생명체의 멸종과 같이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나 목적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제의 일례로 보며, 철학은 인간 주관성에 기반한 의미 분석을 넘어 존재와 소멸의 구조 자체를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에 따르면, 실재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철학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속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철학은 이 맥락들을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만 실재를 사유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시에는 관점에서는 철학적 사유를 인간의 맥락 분석으로 한정하는 ㉠의 태도가 우주의 소멸과 같이 인간의 의미 구성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철학의 사유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브라시에는 ㉠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철학의 대상을 인간 중심으로 축소시키는 협소함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즉 브라시에는 관점에서 ㉠은 철학이 마땅히 사유해야 할, 인간의 의미 구성을 초월하는 실재의 본질적 측면을 외면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 ③ ㉠은 실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은 실재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철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방식이 인식 주체의 맥락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 ④ 모든 존재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메이아수의 관점이며, 브라시에는 소멸과 같이 인간의 의미 구조를 넘어서는 사건을 통해 실재를 사유하려 한다. 따라서 브라시에는 ㉠에 대해 모든 존재가 우연적이라는 점을 배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브라시에는 소멸이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실재의 본질적 측면이며, 철학은 인간 주관성에 기반한 의미 분석을 넘어 그 구조 자체를 사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철학이 소멸이라는 실재에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의미 부여를 거부하는 브라시에는 관점과 배치된다.

답 ①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페라리스는 실재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주체와 실재 사이의 직접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기록과 언어, 제도라는 매개적 구조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철학적 사유는 언제나 인간의 언어, 개념,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이는 실재가 사회적 합의나 기록 행위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재에 대한 접근과 파악이 이러한 매개 구조를 거친다는 의미이다. <보기>의 X 입자는 지구의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을 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측정 기기마다 다른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들어 X 입자가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기록 행위로 구성된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페라리스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변적 실재론은 실재를 인식의 산물로 환원하는 상관주의를 넘어서려 하며, 실재를 단일한 법칙이나 의미로 환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X 입자의 불확정성을 인간 인식 조건의 문제로 환원하려 하기보다 실재 자체의 비결정성을 사유할 단서로 삼으려 할 것이다.
- ② 브라시에는 인간의 의미 부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를 강조한다. 브라시에는 X 입자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인간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실재 자체가 인간의 이해 범주를 초월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해석할 것이다.
- ③ 메이아수는 실재가 어떤 필연적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연적이라는 사실론성의 원리를 주장한다. X 입자가 지구의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현상은 실재가 기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례이므로, 메이아수는 이러한 현상의 존재를 사실론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재를 탐구해야 할 이유로 볼 것이다.
- ④ 가브리엘은 실재가 다양한 의미의 장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파악될 수 있고, 우리가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특정 의미 맥락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본다. 연구 팀이 X 입자에 대해 관찰자나 측정 방법에 따라 물질 자체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학계에 보고한 것은 각각의 관찰자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른 의미의 장을 형성하여 X 입자를 다르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브리엘은 이를 인간의 이해가 특정 의미의 장에 의해 조건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인식 주체의 관점을 벗어난 실제 자체’라는 표현은 ‘인식 주체의 관점’이라는 인식의 체계와 떨어져서 그것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재를 뜻한다. 즉 ‘규범이나 이치, 체계 따위에 어긋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지금까지의 판례를 벗어난 것’의 ‘벗어난’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간적 범위나 경계 밖으로 빠져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구속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④ ‘남의 눈에 들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⑤ ‘신분 따위를 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05 주제 통합

본문 243~247쪽

- 01 ② 02 ③ 03 ① 04 ⑤
- 05 ⑤

■ 조세 법률주의, 상속세와 증여세

가

해제 > 이 글은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무에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인 조세 열거주의와 법조문의 문언뿐 아니라 입법 취지나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포괄주의로 구체화된다. 현대 조세 실무에서는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주제 > 조세 법률주의의 특징과 조세 실무에서의 적용

구성 >

- 1문단: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과 역할
- 2문단: 조세 열거주의의 개념과 특징
- 3문단: 조세 포괄주의의 개념과 특징
- 4문단: 현대 조세 실무에서의 조세 법률주의

나

해제 > 이 글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받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의 공정성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본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제 >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특징

구성 >

- 1문단: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
- 2문단: 상속세의 개념과 특징
- 3문단: 증여세의 개념과 특징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조세 법률주의의 두 가지 해석 방식으로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를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기준, 세율, 납세 의무자 등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부과되는 조건을 설명할 뿐 이와 관련된 쟁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조세 법률주의를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나)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조세 법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을 설명할 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문가의 견해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에는 조세 법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고, (나)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조세 포괄주의가 과세 목적이나 현실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법조문보다 이를 항상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문과 입법 취지, 과세 목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가)의 1문단에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라는 절차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법률은 과세의 근거가 되며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가)의 4문단에 법률의 문언만을 따를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가)의 4문단에 현대의 조세 실무는 조세 열거주의적 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포괄주의적 해석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균형적 태도를 취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의 3문단에 증여세는 친구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과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의 1문단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③ (나)의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비과세나 공제 등의 기준도 다르므로 동일한 금액이 이동하더라도 부과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3문단에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1회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문단에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건물을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였고 조세 심판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은 B 씨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조세 심판원이 이를 조세 포괄주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면제되고 건별로 부과되며 상속세는 전체 금액을 합쳐서 한 번에 부과된다고 하였으므로 상황에 따라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더 적을 수 있다. 따라서 A 씨가 생전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려고 한 것은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세무서는 건물을 상속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31억 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다만 B 씨가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31억 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다.

③ B 씨는 건물의 명의 이전을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에 근거하여 납부한 부분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으로 조세 열거주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세무서가 B 씨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열거주의적 해석에 해당한다.

05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공제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과세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납세자의 재정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은 맞지만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것은 아니다.

② 상속은 현재의 세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가 아니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상속 재산을 일부 공제받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재정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④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 재산을 일부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 예술 형식과 매체

가

해제 ▶ 시와 회화의 관계에 관해 레싱이 제시한 관점은 예술 형식 간의 매체적 차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레싱은 서로 다른 예술 형식의 매체와 그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시와 회화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매체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레싱은 시적인 묘사가 회화보다 상상의 공간을 더 확장한다고 하여 이 미지 예술에 대해 문자 예술이 가지는 우월성을 선언한다.

주제 ▶ 문자 예술과 이미지 예술의 차이에 대한 레싱의 관점

구성 ▶

- 1문단: 시와 회화의 관계에 관한 관점
- 2문단: 시와 회화의 관계에 관한 당시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레싱의 비판
- 3문단: 예술의 형식 안에서 매체와 그 효과에 주목한 레싱
- 4문단: 이미지 예술에 대해 문자 예술이 가지는 우월성

나

해제 ▶ 매체 간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인 상호 매체성 개념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미는 예술의 이상을 예술 형식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매체가 가지는 특수한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폐히는 예술 형식과 매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예술 형식 간의 차이를 주된 매체의 차이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 상호 매체성 개념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구성 ▶

- 1문단: 상호 매체성 개념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2문단: 상호 매체성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
- 3문단: 상호 매체성 개념에 대해 각각의 매체가 가지는 특수한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는 관점
- 4문단: 예술 형식과 매체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폐히의 관점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시와 회화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 관점과 다른 레싱의 관점을, (나)에서는 상호 매체성 개념의 이해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인,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과 각각의 매체가 가지는 특수한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라오콘 군상」이라는 작품에 관한 레싱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나)는 상호 매체성이라는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나)는 상호 매체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는 특정 학자의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사회적 변화가 특정한 대상에 관한 이해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1, 2문단에 따르면, ‘시는 그림과 같이’라는 호라티우스의 경구는 시가 회화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예술 형식을 구현하는 수단인 매체의 자리를 두고 경쟁한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는 매체 연구의 주된 주제이다.
-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변화하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예술 형식들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다른 매체들이 경쟁하거나 혼합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통합적인 관점의 상호 매체성은 오늘날 모든 개별 매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제공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매체 간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상호 매체성을 이해하면 매체와 예술 형식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03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예술 형식 안에서 매체와 그 효과에 주목하여, 시와 회화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며 매체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폐히는 예술 형식과 매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예술 형식 간의 차이를 주된 매체의 차이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시와 회화는 미메시스라는 공통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폐히는 정보를 저장, 전달, 처리하는 매체가 가지는 특성에 관심을 갖고 예술 형식과 매체를 구분하였다.
-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시와 회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나)의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새로운 예술 작품이 고전적인 예술 형식이 가진 매체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지만 폐히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폐히는 예술 형식의 구조화에 매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바로 그 과정에서만 매체는 인식 가능하다고 보았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시적인 묘사가 독자의 머릿속에 감각적인 환상을 만들도록 자극하여 회화보다 상상의 공간을 더 확장하게 한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동시적 묘사에 탁월한 것은 이미지 예술이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문자 예술과 이미지 예술은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다.
-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문자 예술은 독자의 머릿속에 감각적인 환상을 만들도록 자극한다.
- 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문자 예술과 이미지 예술 모두 미메시스의 특징이 있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미메시스로 통칭되어 왔던 예술 형식의 공통 기능을 회화적 묘사에서는 표현으로, 서술적 묘사에서는 재현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레싱은 루벤스가 그린 ㉞를 재현이 아니라 표현으로 볼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레싱은 조형 예술에서 대상의 비운동성은 현실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함으로써 환상의 완성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레싱은 ㉞에 그려진 프로메테우스의 비운동성이 현실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한다고 볼 것이다.
-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지마는 예술의 이상을 예술 형식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마는 다른 예술 형식들을 통합한 ㉞가 ㉞보다 예술의 이상에 가깝다고 볼 것이다.
-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폐히는 작품이 생성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매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폐히는 회화 작품인 ㉞가 생성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이미지라고 볼 것이다.
-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폐히는 매체에 의하여 그 형식이 결정된 모든 예술은 다른 예술에 있어서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폐히는 ㉞의 회화라는 예술 형식이 영상 작품인 ㉞에서는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07 주제 통합

부문 252~257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③

■ 건축물과 공간

가

해제 > 이 글은 건축 설계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말하면서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를 설명하고 있다. 내력과 응력의 개념, 트러스·아치·골조 구조 등 다양한 구조 방식의 특성을 제시하고, 콘크리트, 철근, 목재, 유리 등 건축 재료의 기능적·미적 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건축이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창의성이 결합된 종합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

구성 >

- 1문단: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
- 2문단: 하중과 내력에 따른 건축 구조의 원리
- 3문단: 주요 건축 재료의 기능과 특성
- 4문단: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의 조화를 이룬 현대 건축물

나

해제 > 이 글은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공간을 사회적 실천과 권력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산물로 설명하고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지각된 공간, 개념화된 공간, 체험된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 제도적으로 기획된 공간을 비판하며 차이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시민이 공간 형성과 변화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였다. 이 글은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을 통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

구성 >

- 1문단: 공간을 사회적 산물로 보는 르페브르의 관점
- 2문단: 지각된 공간·개념화된 공간·체험된 공간의 개념
- 3문단: 모순 공간에 맞서는 차이 공간의 필요성
- 4문단: 현대 건축에서 르페브르의 이론의 의의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내력, 응력, 건축 구조의 안정성 등 구조적 측면과 건축 재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과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공간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건축 구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나)에서는 공간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가 아니라,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건축 설계가 과학이자 예술로 기능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건축사에 있어 과학과 예술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 공간의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에서 건축 설계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건축 구조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도시 내 새로운 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건축물의 가치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

로는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는 건축의 미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 건축물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 따르면, 내력이란 하중에 대응하여 구조물 내부에 생기는 힘으로, 정하중뿐 아니라 활하중 등 모든 외력에 대해 나타나며, 인장력과 압축력, 전단력, 굽힘 모멘트 등을 포함한다. 건물의 내력은 인장력과 압축력을 합한 값이 아니며, 하중에 대응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하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도시 개발이나 신도시 설계와 같은 공간 구성은 사회 계층을 고착화하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모순 공간이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을 가리키므로, 도시 개발의 결과로 모순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가)에서 우리는 개방감을 주고 공간적 확장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벽체를 나무에서 유리로 바꾸면 공간의 확장감이 커질 것이다.
- ④ (가)에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조합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밀워키 아트 뮤지엄은 트러스 구조를 활용해 접히고 펼쳐지는 날개 형태를 구현하여 건축미를 극대화하였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 건축 재료는 건축물의 내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단열 성능과 방수 능력, 건축물의 수명과 효율성, 공간 체험의 감성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 재료로 철근을 썼을 때와 콘크리트를 썼을 때의 단열 성능은 다를 수 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아치 구조는 하중을 인장력이 아닌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아치 구조에는 압축 강도가 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좌굴은 압축력에 의한 구조 변형으로, 정하중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②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므로, 단면적이 작아지면 응력이

커진다.

- ③ 활하중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가구가 추가되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④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보다 인장 강도가 크다. 당겨질 때 견디지 못하면 균열이 발생하므로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보다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04 중심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르페브르는 현대의 공간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으로서 제도적으로 기획된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을 모순 공간이라고 칭하고, 모순 공간에 맞서는 대안적 공간의 형성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가 권력과 자본의 독점적 영역이 아닌, 시민의 일상적 실천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르페브르가 말하는 공간의 탈영토화란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의 제도적 기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공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탈영토화는 시간 활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경제적 효율을 위한 공간 기능의 전문화는 공간이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탈영토화의 핵심은 공간의 사회적 기획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다.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탈영토화의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탈영토화를 설명하면서 건축 설계를 과학이나 기술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에서 체험된 공간은 개인이 공간을 통해 느끼는 감정, 상상, 기억 등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된 공간이며, 개념화된 공간은 전문가가 법규, 계획 등을 통해 구성하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는 정치적 의도를 담아 기획된 공간이 사용자의 체험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센터의 공간 사용자가 국가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 것이 체험된 공간이 개념화된 공간으로 한정되어 활용된 것은 아니다. 개념화된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에 해당하며, 지각된 공간, 개

답 ⑤

답 ③

념화된 공간, 체험된 공간은 하나의 공간 안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디드는 곡면 설계, 복합 소재 활용, 구조-외형-체힘의 통합을 고려하여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를 설계하였다. 물리적 힘의 작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외형, 공간에 대한 체험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 ②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권력과 자본의 산물이다. 국가 정체성 확립을 의도한 건축은 중립적이지 않은 공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④ 건축이 사회의 이념과 권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공간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르페브르의 주장과 상통한다.
- ⑤ 철근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는 벽체나 기둥 없이 곡선 자체가 힘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현이 가능한 재료이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부여’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의 뜻이다. 장항 증서는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여하는 것이다. ‘수여’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의 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탱’은 ‘오래 버티거나 배겨 냄.’의 뜻이다.
- ② ‘고려’는 ‘생각하고 헤아려 봄.’의 뜻이다.
- ④ ‘입장’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섰.’의 뜻이다.
- ⑤ ‘교차’는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의 뜻이다.

08 주제 통합

본문 258~261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⑤
- 05 ③ 06 ⑤

■ 정치에 대한 바디우와 랑시에르의 입장

㉠

해제 > 이 글은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정치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를 단순한 제도의 운영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리의 절차'로 본다. 바디우는 기존 질서를 뒤엎는 '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충실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진리가 형성된다고 보며, 이를 통해 사회가 변혁된다고 주장한다. 바디우 정치 철학에서 진정한 정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충실하고, 사건의 충격을 지속시키려는 집단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주제 > 바디우의 사건을 통한 진리 탐색

구성 >

- 1문단: 정치에 대한 바디우의 견해
- 2문단: '사건'의 개념
- 3문단: '탐색'의 개념
- 4문단: '진리'의 개념과 정치

나

해제 > 이 글은 자크 랑시에르의 정치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를 제도나 행정인 아닌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주체성을 드러내는 '불화'의 과정으로 본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사회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는 질서 속에서 특정한 역할과 목소리를 배정하지만, 정치는 이 분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권력관계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이 말하고 등장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랑시에르는 사회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평등을 전제로 한 불화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주제 > 랑시에르의 불화를 통한 사회 발전

구성 >

- 1문단: 정치에 대한 랑시에르의 견해
- 2문단: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랑시에르의 통찰
- 3문단: '불화'와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
- 4문단: 불화를 통한 평등의 재구성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사건', '탐색', '진리'의 개념을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정치'에 대한 바디우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불화',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평등의 재구성 과정이 사회의 발전이자 정치적 행위라는 랑시에르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사회 변화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진리 탐색을 통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기존의 사회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문제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을 소개하거나 그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사회 구조의 변화나 정치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1문단에서 바디우는 지도자를 뽑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 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사회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4문단에서 바디우가 말한 '진리'는 거짓의 반대가 아니라 한 사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실체라고 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들이 사건이 일으킨 충격을 이어 갈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과정을 '탐색'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정치는 소외된 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평등함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⑤ (나)의 2문단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전체적인 인식 구조를 말한다고 하였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1968년 3월 낭테르 대학 학생들의 시위는 학내 시설 및 학문의 자유를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질서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랑시에르는 사회 질서와 배분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다. 선지에서는 불화를 사회 질서와 배분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서술했는데, 이는 랑시에르가 비판한 기존 질서의 속성이며, 그가 정의한 정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프랑스 전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이다. 이것이 바디우가 설명하는 ‘사건’이며 ‘프랑스 5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 ② 바디우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5월 혁명’이라는 사건은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이름’을 남겨 사건의 독특함을 사회 속에서 이어 가려는 씨앗이 되었다.
- ③ 랑시에르에 따르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삶을 바꾸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감을 표출하는 것은 그동안 말할 수 없던 자들이 말을 하는 순간이 발생한 것이다.
- ⑤ 랑시에르에 따르면 ‘프랑스 5월 혁명’이 새로운 주체성과 사회적 상상력을 이끌었다는 것은 불화를 통해 새로운 평등을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실천이란 모든 인간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04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ㄱ. (가)의 1문단과 (나)의 4문단에서 바디우와 랑시에르가 사회 구조의 변화나 평등의 재구성을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디우와 랑시에르 모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 ㄴ. (가)의 3문단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들이 사건이 일으킨 충격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였고, 바디우는 이러한 판단 과정을 ‘탐색’이라고 하였다.
- (나)의 3문단에서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불화’라고 하였고, 이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랑시에르의 입장에서 이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주도적인 자들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이다.
- ㄷ. (가)의 1문단에서 바디우는 정치 제도나 법체계 같은 것들이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해야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바디우의 입장에서 사회 구조는 정치 제도나 법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나)의 1문단에서 랑시에르는 사회가 질서와 배분을 통해 구성되며 기존의 질서에 의해 구성원들의 역할이 규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는 이러한 질서에 도전하는 ‘불화’의 과정이므로 더 나은 세상의 사회 구조는 기존 정치 제도

나 법체계의 한계를 넘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ㄹ. (가)의 1문단에서 바디우는 진정한 정치를 위해 사회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문단에서 정치를 기존 사회 체제를 벗어나는 새로움으로 정의했으므로, 바디우의 입장에서 기존 권력관계에 순응해야 한다는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나)의 1문단에서 랑시에르는 정치를 규정되어 있는 역할 분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천이라고 하였다. 또 3문단에서 랑시에르는 권력관계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의문을 제기할 때 불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랑시에르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존의 권력관계에 순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5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이름’이 사건의 독특함을 사회 속에서 이어 가려는 씨앗이 된다고 하였다.
- ② (가)의 4문단에서 진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언어와 사실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불화’는 단순한 의견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인 ‘감각적인 것의 분할’의 구조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구분이 제도화된다고 하였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의미는 ‘어떤 사물에 구멍, 자국 따위의 형체 변화를 만들다.’이다.
- ㉡의 의미는 ‘소리, 냄새 따위를 밖으로 드러내다.’이다.

01 ⑤

02 ④

03 ③

04 ①

■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 개념

가

해제 > 이 글은 형사법상의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개념과 조건설이 채택하고 있는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인 '조건 공식'의 의미를 기술하고, 조건 공식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

구성 >

- 1문단: 조건설의 개념
- 2문단: 조건 공식과 가설적 소거법
- 3문단: 결과 발생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
- 4문단: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와 조건설

나

해제 > 이 글은 조건설의 대안으로 제시된 합법칙적 조건설을 소개하고,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 공식에 따른 인과 관계의 판단 과정을 기술함과 동시에,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 인과 관계에 관한 합법칙적 조건설

구성 >

- 1문단: 인과 관계의 본질로서 '야기'의 개념
- 2문단: 합법칙적 조건 공식에 의한 인과 관계 판단의 구조
- 3문단: 합법칙적 조건설의 의의와 한계
- 4문단: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와 합법칙적 조건설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2문단, 3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법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에서 조건설이 가설적 소거법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등가설에서는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원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조건 공식이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1문단, 3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이 인과 관계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거나 확인해 주지 못한다고 본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02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3문단에서 조건설이 취하는 조건 공식에는 사건의 원인이 필요조건이라는 사상이 피력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3문단에서는 그러한 조건 공식을 합법칙적 조건설이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의 2문단에서 전건 긍정식을 (가)의 3문단의 명제들과 비교해 보면 전건 긍정식의 전제에 등장하는 원인 사건은 결과 사건에 대한 충분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서 조건설은 조건 관계가 있으면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만, (나)의 3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으로 발견되는 조건 관계를 인과 관계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법칙에 대한 포섭 절차를 진행시킴을 알 수 있으나, (가)의 2문단에서 조건설은 단지 조건 공식을 통한 사고 실험을 수행할 뿐 법칙에 대한 포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3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을 통해 인과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4문단에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를 구성하는 복수의 행위에 대해 각각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이들 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2문단을 바탕으로 ㄴ의 상황을 보면 A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B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X의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것이다. 즉 여전히 X의 기계의 고장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2문단을 바탕으로 ㄱ의 상황을 보면 A의 행위가 없었으면 X의 물건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기 시작하게 만드는 무게의 5%에 해당하는 하중만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손상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물건이 손상되게 한 원인이라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을 바탕으로 ㄱ의 상황을 보면 B의 행위가 없었으면 X의 물건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기 시작하게 만드는 무게의 95%에 해당하는 하중만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손상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설에 따르면 B의 행위를 X의 물건이 손상되게 한 원인이라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1문단을 바탕으로 ㄴ의 상황을 보면 X의 기계는 A가 창고에 놓아둔 추를 들어 올리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합법칙적으로 결과로 이어진 행위는 B가 아니라 A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B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1문단을 바탕으로 ㄴ의 상황을 보면 합법칙적으로 결과로 이어진 행위는 A가 아니라 B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4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반사실적’ 사고 실험이란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후의 상황 전개를 생각해 보는 실험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규범적: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잘 따르는.’
- ③ 잠정적: ‘우선 임시로 정한.’
- ④ 추정적: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 ⑤ 평가적: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하는.’

10

주제 통합

본문 265~268쪽

- 01 ②
- 02 ④
- 03 ②
- 04 ④
- 05 ⑤

■ 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

ㄱ

해제 >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으로, 1849년 헨리 소로가 제시한 개념이다.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따라 상위 규범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처벌을 감수한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 킹 목사의 인권 운동, 3·1운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 정부에서는 합법적 방법이 있어 논란이 되나, 소수 의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주제 > 시민 불복종 찬반론

구성 >

- 1문단: 시민 불복종 개념의 등장 배경
- 2문단: 시민 불복종의 내용
- 3문단: 시민 불복종의 사례와 정당성
- 4문단: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
- 5문단: 민주 정부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된다는 주장

ㄴ

해제 > 플라톤의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하며 법률과의 계약 준수를 강조한다. 그는 법률이 의인화되어 말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했으므로 시민은 국가의 자손이자 노예라고 주장한다. 70년간 아테네에서 살며 법률에 만족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 합의이므로, 개인이 법정 판결을 무시하면 국가 전체가 파멸한다며 합의 이행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주제 > 탈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견해

구성 >

-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 자식이며 노예인 시민이 국가와 법률에 반대할 수 있는가?
- 묵시적 합의를 어겨도 되는가?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1~3 문단에서 시민 불복종의 내용과 정당성을 설명한 다음에, 4문단에서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되는지 묻고서 4문단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5문단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보여 준다. 한편 (나)는 소크라테스가 “법정 판결들이 무력하게 되고 개인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되는 것이라며, 곧 시민 불복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

권을 제시하고, (나)는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는 것의 부당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가)와 (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시민 불복종의 처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처벌받는 사례를 보여 주지 않는다.
- ④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가 시민 불복종이 어떤 때 정당화되지 않는지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시민 불복종을 실천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시민 불복종이 어떤 때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ㄱ. 1문단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 ㄴ. 2문단에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시행 중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불사”한다고 하였다.
- ㉢ ㄷ. 2문단에서 “법이 나 정책이 부당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ㄹ. 3문단에서 “항의의 수단으로 모든 폭력이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기는”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에서 정의하는 시민 불복종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5문단에서 “만약 다수결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법에 금지

된 수단을 이용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쪽이 다수일 때는 오히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게 되므로 옹호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쪽이 민주 정부에서 시민 불복종이 옹호되지 않는 이유로 말하는 “선거 등의 방법”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민주 정부에서도 소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는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권리”는 시행 중인 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 권리가기 때문에”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시민 불복종은 법이 무엇이든 간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말하므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법 자체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라는 내용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서 “법이 나 통치가 충분히 불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법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통치 나 법이 불의할 때 합법적 방법만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적절하다.

04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말에서 국가를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나라를 설득하지 않고”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든 아버지든 설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말에서 소크라테스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행해야” 함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말에서 “어떤 나라에서 법정 판결들이 무력하게 되고 개인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된다면, 이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계속 존립할 수 있겠소?”라는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판단보다 국가의 판결이 우선한다.”라

는 것은 적절하다.

③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말에서 “해롭게 해서 안 될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적절하다.

⑤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말에서 “법률과 국가 공동체가”라고 말하거나 “법률인 우리와 나라 전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은 적절하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소크라테스가 세 번째 말에서 ‘숙고한 끝에 합의’했다고 한 것은 법률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국가와 맺은 계약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다. 그는 법률의 말을 빌려 “법률인 우리와 나라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이유로 그것에 반대한다.

② 법률은 “정의로운 것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고 그래서 되갚아 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소크라테스는 판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정의로운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유로 탈옥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④ (가)에서 민주 정부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고,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민주적인 방법’이 가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

해제 > 이 글은 유추를 단순히 법의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추를 법 해석과 대비시키는 대신에 유추야말로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와 같다고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유추의 논리적 구조가 법 해석에서 요구되는 사실과 규범의 동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 > 법 해석의 본질로서의 유추

구성 >

- 1문단: 법 해석과 유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
- 2문단: 전통적인 이해 방식의 문제점과 유추의 개념 구조
- 3문단: 법 해석의 본질로 이해된 유추

㉡

해제 > 이 글은 사례와 사례의 직접 비교에 의한 추론이라는 유추의 전통적 이해가 실제로는 모순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종래에 유추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상황들이 실제로는 비추론적 상황이거나 혹은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 사법적 판단의 형식으로서 유추의 한계

구성 >

- 1문단: 사례와 사례의 직접 비교에 의한 추론으로서 유추
- 2문단: 종래의 유추 개념에 내재된 모순점
- 3문단: 유추에 의한 판단의 문제점

01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3문단에서는 유추를 흠결 보충의 논리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고 있지만, (나)의 1문단에서는 유추의 의미를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라고 보는 판례법 국가에서의 일반적 관점을 소개한 뒤, 2문단과 3문단에서는 그러한 관점에 의할 경우 유추가 아닌 일반적 명제가 사례를 결정한다고 보게 되거나 혹은 유추에 의한 판단이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됨을 보임으로써 결국 애초에 일반적 관점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유추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더 나은 이해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11 주제 통합

본문 269~272쪽

- | | | | |
|-------------|-------------|-------------|-------------|
| 01 ④ | 02 ⑤ | 03 ② | 04 ⑤ |
| 05 ⑤ | 06 ④ | | |

(나)에서는 판례법 국가에서의 일반적 관점이 전제하고 있는 유추의 개념이 해소할 수 없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유추를 더 이상 단순한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봄을 알 수 있고, (나)의 1문단을 통해 유추를 판례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는 특징을 보여 주는 추론 형태로 봄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유추의 개념 자체가 일반적 명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의 1, 2, 3문단에서 유추의 개념 자체는 일반적 명제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고 그러한 유추 개념이 지지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나)의 견해가 유추의 개념을 일반적 명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명제의 요소를 법원이 수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규칙이나 원리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사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규칙과 원리의 해석 및 적용 그 자체이지 유추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에서는 어디까지나 '사례의 직접 비교'로 이해되는 유추가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과 그 개념을 수정하려는 순간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 ③ (가)의 3문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형사법의 영역에서 유추 금지 원칙에 반하여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부정적으로 볼 뿐이며, (나)의 3문단에서는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가 전혀 확장을 해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과거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유추의 위험성 때문에 형사법 영역에서 유추가 금지된다고 보았지만, (가)의 3문단에서는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유추의 위험성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법 해석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3문단에서는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례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중심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2문단에서 해석의 한계 지점에서 유추를 통해 법의

답 ⑤

흠결을 보충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고, (나)의 3문단에서 유추가 규범을 확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유추는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3문단에서 유추를 법 해석과 본질상 구별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유추가 단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의 2문단, 3문단에서 유추의 본질을 사례에서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유추가 규범을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유추는 이질적 대상들을 일치시켜 가는 작업임을 알 수 있고, (나)의 1문단에서 서로 다른 사례 사이의 비슷한 점을 찾고 그에 따라 법적 규율도 비슷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2문단에서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나)의 2문단에서도 일반적 명제의 기준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3문단에서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새로운 입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형사법에서의 유추 금지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것을 더 잘 구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유추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 규범이 미치지 않던 대상까지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가)의 3문단에서 형사법 분야에서는 유추를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금지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법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형사법상 유추는 금지하되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처벌 규범을 확대 적용하면 형사법 분야에서 유추 금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규범의 확대 적용 방식을 우회적인 수단으로 좌절시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처벌 규범을 굳이 금지된 유추를 통해 확대 적용하려 하지 않아도, 동일한 목적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2문단에서 사법적 판단이란 우선 선례와 뒤에 발생한 사례 사이에서 사실 관계의 유사성 및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판단이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규칙과 원리에 기초하여 구분·판단하는 작업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3문단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과정에서 근거 규범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순전히 판단자의 주관적인 직관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사법적 판단은 비이성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합당한 추론의 과정 없이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3문단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과정에서 판단자의 자의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객관적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1문단에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는 일관성이 사법적 판단에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사안에 따라 취사선택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2문단에서는 사례의 직접 비교로 이해되는 유추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례 비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며, 특히 사례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려 내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규칙 또는 원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추가적인 규칙 또는 원리를 도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유추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렇게 도입된 규칙 또는 원리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도 알 수 있다. 나아가 3문단에서 유추에 대해서는 애초에 규범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칙 또는 원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유추의 규범 확장 효과를 강화할 수 있

다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유추의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을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 등 좁은 의미의 법 해석 방식에 의해서도 달성한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실상 유추와 법 해석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 ② (가)의 3문단에서 유추와 차별화한 좁은 의미의 법 해석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방만한 규범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사실상 금지되는 유추를 자행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는데, (가)의 3문단에서는 해석과 유추의 구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별 기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게 볼 것이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유추에는 근본적으로 법의 확장 효과가 없지만 만일 정말로 사례의 직접 비교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사법적 판단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험한 판단일 것으로 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확대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최소한 객관적 규범인 법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준용(準用):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용(盜用): '남의 것을 몰래 씬.'
- ② 선용(善用):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씬.'
- ③ 전용(專用):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씬.'
- ⑤ 중용(重用): '중요한 자리에 임용함.'

12 주제 통합

본문 273~277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③

05 ①

페니실린

㉓

해제 ▶ 이 글은 우연히 이루어졌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는 발견을 가리키는 세런디피티의 대표적 사례인 페니실린 발견과 상용화를 설명하고 있다. 세균학자 플레밍은 폐기된 배양 접시에서 푸른곰팡이가 일으킨 항균 효과로부터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의 임상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실용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후 플로리와 그의 연구팀은 페니실린의 약효에 다시 주목하였고 페니실린을 정제할 뿐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페니실린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게 되었다.

주제 ▶ 페니실린의 발견과 상용화 과정

구성

- 1문단: 세런디피티의 의미
- 2문단: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 3문단: 플레밍의 페니실린 특성 연구
- 4문단: 플로리 연구 팀의 페니실린 약효 연구
- 5문단: 플로리 연구 팀의 페니실린 상용화

㉔

해제 ▶ 이 글은 페니실린의 생화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페니실린은 베타-락탐이라는 사각형 고리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은 박테리아에서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한다. 펩티도글리칸은 동물 세포에는 없지만 박테리아의 세포에서는 세포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벽의 중요 성분이다. 이런 이유로 페니실린은 동물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람 양성균과 달리 그람 음성균에는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람 음성균에는 세포벽 외막 구조가 있어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주제 ▶ 페니실린의 화학 구조와 항균 효과의 원리

구성

- 1문단: 페니실린의 화학 구조
- 2문단: 페니실린 항균 효과의 원리
- 3문단: 페니실린이 그람 음성균에 효과가 없는 이유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3문단에서 페니실린은 사람의 백혈구를 파괴하지 않았고 토끼와 생쥐에게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페니실린이 동물에는 무해하나 박테리아는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은 (나)의 2문단에서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이 동물에는 없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박테리아를 죽게 한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4문단에서 페니실린이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의약품이 되는 데에는 영국의 병리학자 플로리의 공이 결정적이었다고 한 것에서 “의약품으로서 페니실린의 상업적 가치는 어떻게 인식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답은 (나)에 없고 (가)의 4문단 이후 내용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살아 있는 동물에서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의 연구팀이 8마리의 생쥐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주입하고 그중 4마리에게만 페니실린을 주사했을 때 페니실린을 맞은 4마리만 목숨을 구한 것에서 페니실린이 살아 있는 동물의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한 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나)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④ “페니실린이 부작용 없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되었나?”라는 질문은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 연구팀이 자원자에게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페니실린에 섞여 들어간 불순물 때문임이 밝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페니실린 제제를 다시 자원자에게 주입했을 때 그것의 무해함이 밝혀졌다고 한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나)에서 찾을 수 없다.

⑤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에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 임은 어떻게 입증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 (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1문단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 목적과는 관계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발견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 발견을 세런디피티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가)의 2문단에서 플레밍이 푸른곰팡이의 일부를 채취해 영양액이 담긴 플라스크에서 대량으로 배양했고, 푸른곰팡이를 배양한 영양액을 조금 채취해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에 떨어뜨렸더니 예상대로 푸른곰팡이 배양액이 포도상 구균의 배

양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플레밍이 푸른곰팡이 배양액이 포도상 구균의 배양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3문단에서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즉각적이지 않은 점 때문에 더 진척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가)의 5문단에서 페니실린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플레밍이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것은 페니실린이 사람의 감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플레밍이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담긴 고체 영양 젤리 위에 환자의 종기에서 뽑아낸 포도상 구균을 배양했고, 그해 여름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휴가 기간 방치되었던 배양 접시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푸른곰팡이가 핀 영양 젤리 주변의 포도상 구균의 집락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플레밍이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다가 푸른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알게 된 것은 탐구 목적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 연구 팀은 자원자에게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자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플로리 연구 팀이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킨 것은 페니실린 발견의 엄청난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될 뻔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가)의 5문단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생산된 페니실린이 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대단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자 페니실린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생산된 페니실린이 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대단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페니실린 발견의 엄청난 의미가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가 자신의 기관에서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자금을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 냈다고 하였으므로 체인이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자금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요청하여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 냈다는 것은 틀린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는 1935년 생화학자인 체인과 함께 항박테리아 제제를 연구하면서 페니실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서 플로리 연구 팀에 합류한 히틀리는 수백 개의 배양 접시와 그것에서 푸른곰팡이를 키울 인력을 확보하고 배양을 통해 필요한 양의 페니실린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하였다.

④ (가)의 5문단에서 플로리와 히틀리는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농무성 소속의 북부 지역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푸른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였다.

⑤ (가)의 4문단에서 페니실린 제제에 불순물이 섞여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자 화학자 에이브러햄의 도움으로 플로리 연구 팀은 간단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페니실린 제제를 다시 자원자에게 주입하였고 그것은 무해함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2문단에서 페니실린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받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삼투압 변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세포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 그 박테리아는 죽게 된다고 하였고, (나)의 3문단에서 그람 음성균은 그람 양성균과 달리 페니실린에 죽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람 음성균에는 세포벽 바깥에 외막이 있어서 페니실린에 노출되어도 세포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람 음성균은 페니실린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하지 않아 죽지 않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2문단에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했고, (나)의 3문단에서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층의 두께가 그람 양성균은 약 20~80nm, 그람 음성균은 7~8nm라고 하였으므로 펩티도글리칸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에 모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식물 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나,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주성분이 셀룰로스여서 펩티도글리칸이 없는 반면,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과 지질,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펩티도글리칸은 박테리아와 달리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④ (나)의 2문단에서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 전이 효소, 즉 트랜스펩티데이스와 임의로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고 하였으므로 펩티도글리칸은 박테리아에서 트랜스펩티데이스가 작용해야 정상적으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페니실린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받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삼투압 변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세포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 결국 박테리아는 죽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그람 음성균은 그람 양성균과 달리 페니실린에 죽지 않는데 이는 그람 음성균에는 그람 양성균에 없는 외막이 있어서 페니실린이 세포벽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펩티도글리칸은 그람 양성균에서 페니실린에 의해 정상적인 합성이 방해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채취하다’는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받아서 언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채취해’를 ‘골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희석하다’는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묽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희석한’을 ‘뭉힌’으로 바꿀 수 있다.

③ ‘확인하다’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확인하기’를 ‘알아보기’로 바꿀 수 있다.

④ ‘존재하다’는 ‘현실에 실재로 있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존재하며’를 ‘있으며’로 바꿀 수 있다.

⑤ ‘구성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구성되어’를 ‘이루어져’로 바꿀 수 있다.

실전 학습 1회

본문 280~295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④	14 ④	15 ③
16 ②	17 ⑤			

01~03

■ 독서 공간

해제 이 글에서는 책을 읽는 공간인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의 확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 공간 중 물리적 독서 공간은 본원적 독서 공간과 전용된 독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 외에도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상황을 독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 인식적 독서 공간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독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독서 공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 독서 공간의 의미와 독서 공간 확장의 중요성

구성

- 1문단: 물리적 독서 공간의 의미와 구분
- 2문단: 물리적 독서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3문단: 인식적 독서 공간의 의미와 특징
- 4문단: 독서 공간 확장의 중요성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독서를 전제한다고 본다면 교실은 본원적 독서 공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독서실은 처음부터 독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므로 본원적 독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독서 공간이란 책을 읽고 있는 공간,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 ② 1문단에서 구체적인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물리적 독서 공간이 있다고 했고, 3문단에서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인식적 독서 공간이 있다고 했다.
- ④ 1문단에서 버스나 지하철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전용된 독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했고, 2문단에서 카페는 그곳에 가야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독서 공간이 된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가상 공간 속에서 독서 공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02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물리적 독서 공간에는 본원적 독서 공간과 전용된 독서 공간이 있으므로, 전용된 독서 공간은 물리적 독서 공간의 일부이다. 인식적 독서 공간은 면적 혹은 부피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공간이고 전용된 독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일부이므로, ㉠이면서 ㉡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물리적 독서 공간은 전용된 독서 공간을 포함하지만, 인식적 독서 공간은 전용된 독서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전용된 독서 공간이면서 인식적 독서 공간인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인식적 독서 공간은 물리적 독서 공간과 달리 물리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용된 독서 공간은 물리적 독서 공간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제약에 구속받는다.
- ④ 물리적 독서 공간 중에서 전용된 독서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물리적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가 본원적 독서 공간에서만 책을 읽는다면 전용된 독서 공간은 없을 것이며, 본원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책을 읽는다면 그곳이 전용된 독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인식적 독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공간이므로, 이에 따라 전용된 독서 공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가독서는 조선 시대에 젊은 관료들에게 주어진 독서 휴가이므로, 물리적 독서 공간이 아니라 인식적 독서 공간에 해당한다. 전용된 독서 공간은 물리적 독서 공간의 일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버스, 교실 등의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 독서 모임과 같은 인식적 독서 공간에서 꾸준히 독서를 한다고 했다.
- ② ‘나’는 학교 화장실과 휴게실에서도 독서를 한다고 했으며

로, 학교 화장실과 휴게실은 ‘나’에게 모두 전용된 독서 공간이 된다.

③ 학교 도서관이나 조선 시대의 독서당은 모두 독서를 위해 존재하는 본원적 독서 공간에 해당한다.

⑤ ‘나’는 휴가나 독서당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 주는 휴대폰이 있다고 했다. 휴대폰을 통해 ‘나’는 물리적 제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독서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04~07

■ 아스퍼스의 한계 상황

해제 > 이 글은 인간이 한계 상황의 경험을 통해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아스퍼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아스퍼스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과 같이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였다. 한계 상황은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좌절은 인간이 초월자를 감지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월자는 인간에게 암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암호의 해독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제 > 한계 상황을 통한 초월자와의 만남과 실존 회복

구성 >

- 1문단: 상황 내 존재로서의 인간
- 2문단: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 3문단: 한계 상황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
- 4문단: 한계 상황을 통한 초월자와의 만남
- 5문단: 초월자의 암호 해독을 통한 실존 회복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문단에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아스퍼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 인간은 모두 상황에 구속되어 있으며, 상황에 대한 물음에서 철학이 시작된다는 아스퍼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일상에서 접하는 일반적 상황과 달리 인간이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변경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아스퍼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④ 4문단에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완결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안전한 것이라는 아스퍼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⑤ 2문단에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이 한계 상황에 해당하며, 인간이 이러한 한계 상황 앞에서 불안을 감지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아스퍼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05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서 한계 상황은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좌절은 인간이 초월자를 감지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이 과정을 거쳐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간은 유한하고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한계 상황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계 상황은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②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한계 상황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한계 상황이 초월자의 암호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초월자에게 다가가게 되고, 이때 초월자가 암호로 나타나는 것이다.

④ 한계 상황은 소멸되지 않고 인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한계 상황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6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5문단에서 초월자의 암호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다의적인 것이며, 실존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해독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한다고 해서 암호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초월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② 5문단에서 초월자는 오직 한계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실존을 찾고자 하는 인간, 즉 가능성적 실존에게만 암호로 나타난다고 했다.

③ 4문단에서 세계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초월자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⑤ 5문단에서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07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야스퍼스는 인간이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과 같은 한계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사르트르는 죽음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무화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적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오직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야스퍼스는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서 초월자와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사르트르는 그렇지 않다.
- ②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으나, 야스퍼스는 그렇지 않다.
- ③ 사르트르는 인간이 실존을 찾기 위해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야스퍼스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를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의 책임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08~11

■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해제 > 이 글은 기존의 주파수 판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사나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통신 주파수를 판매해 보았으나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시행한 기존의 경매 방식 역시 주파수를 판매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폴 밀그럼 등은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를 제안하였고, 이 방식은 주파수 경매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주파수 경매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제 >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등장 배경과 성과

구성 >

- 1문단: 미국의 심사 방식을 통한 주파수 판매의 문제점
- 2문단: 미국의 제비뽑기 방식을 통한 주파수 판매의 문제점
- 3문단: 뉴질랜드의 기존 경매 방식을 통한 주파수 판매의 문제점
- 4문단: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과정
- 5문단: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의 성과

08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 따르면,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비뽑기로 통신 주파수를 판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의 결과로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많은 투기꾼들이 제비뽑기에 참여해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실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이들로부터 주파수 사용 권리를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되었던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미국 정부는 심사나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다가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매를 통해 주파수 대역들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 것은 무선 통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1989년 뉴질랜드 정부에서 시행했던 주파수 경매는 기존의 경매 방식들이 주파수 경매에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할 때 기존의 경매 방식들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각 주파수의 낙찰자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낙찰자가 지불한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가 효율적 분배와 판매자의 최대 수익이라는 목표를 둘 다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통해 미국의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무리한 경쟁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었고, 정부도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영국이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을 활용하게 된 것은 미국의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9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미국에서는 경매를 통해 통신 주파수를 판매하기 전에 심사나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심사 방식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 절차와 이의 제기 과정을 전부 거쳐 주파수를 할당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상당수의 참여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판매하기 전에 심사와 제비뽑기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으나, 이 둘이 동시에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 ② 미국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주파수를 판매했을 때 실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투기꾼들로부터 주파수 사용 권리를 사들여야 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통해 무선 통신 사업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분배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미국의 경매를 통한 주파수 판매 방식은 심사 방식의 장점과 제비뽑기 방식의 장점을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 두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⑤ 미국 정부는 심사 방식으로 주파수를 판매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뽑기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때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재판매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주파수 재판매를 금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10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 따르면,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에 이기는 것과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경매 주관자는 경매 참여자들이 평가 금액을 낮추어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근거할 때,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게 한 것은 승자의 저주를 걱정한 경매 참여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게 한다고 해서 각 주파수의 낙찰자가 운에 의해 결

답 ④

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게 한다고 해서 각 주파수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③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게 한 것은 경매 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입찰가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경매 참여자들의 입찰가를 낮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낙찰자가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게 한 것은 경매 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을 줄여 줌으로써 경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매 참여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1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경매 참여자가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주파수 개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입찰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경매 참여자들 간의 무리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 라운드에서 자신의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공개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는 뉴질랜드에서 기존의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판매할 때 드러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폴 밀그럼 등이 새롭게 제안한 방식이다.
- ②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하는 경우 여러 주파수를 사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번 경매를 고려하여 입찰을 주저하게 되므로,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여 이를 방지하였다.
- ③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입찰가가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다. 결국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라운드가 거듭될 수밖에 없었고,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입찰가가 올라가므로 정부 수입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매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각 라운드에서 모든 주파수의 입찰이 끝나면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와 그 입찰가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경매 참여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찰 전략을 수정하여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었다.

12~17

■ 초전도체와 초유체의 발견

해제 ⑤ 이 글은 오너스가 발견한 거시적 물리계에서의 양자 역학적 현상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너스는 액체 헬륨을 사용하여 수은의 온도를 절대 온도 4.2K에 가깝게 냉각시킬 수 있었는데, 이때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져 초전도체가 되었다. 그리고 오너스는 헬륨을 고체화하기 위해 액체 헬륨의 온도를 더 낮추어 보았는데, 절대 온도 2.2K 근처에서 액체 헬륨의 밀도와 비열 등이 최댓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이 온도에서 액체 헬륨이 상전이를 하여 점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초유체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제 ⑤ 오너스가 냉각 실험을 통해 발견한 초전도체와 초유체

구성 ⑤

- 1문단: 거시적 물리계에서 양자 역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
- 2문단: 냉각된 도체의 전기 저항 변화에 대한 견해들
- 3문단: 오너스가 수은의 냉각을 통해 발견한 초전도체
- 4문단: 오너스가 헬륨의 냉각을 통해 발견한 양자 액체
- 5문단: 상전이를 한 헬륨에서 확인된 초유체로서의 특성

12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은 오너스가 초전도체와 초유체라는 두 가지 양자 역학적 현상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은 오너스가 발견한 두 가지 양자 역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이 글은 액화된 헬륨을 사용하여 수은의 온도를 절대 온도 4.2K으로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초전도 현상, 그리고 액체 헬륨을 절대 온도 2.2K으로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초유체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액화된 헬륨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자 역학적 현상의 발견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양자 역학적 현상은 온도가 아주 낮을 때 물리계가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양상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수은이 초전도체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헬륨이 초유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 글에서는 절대 영도 근처의 수은과 액체 헬륨에서 나타나

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양자 역학적 현상이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3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3문단에서 단일 원소로 된 금속 중 대기압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29가지가 있다고 했다.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초전도 현상이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불순물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수은 이외의 물질 중 일부는 온도를 충분히 낮출 경우 대기압하에서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거시적 물리계에서는 온도가 낮아야 양자 역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온도가 낮아야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를 때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큰 물리계에서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절대 영도라는 개념이 정립된 후 물리계에서는 도체의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깝게 되었을 때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오너스가 액체 헬륨을 사용하여 수은의 온도를 낮추는 실험을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너스가 이러한 실험을 한 것은 전기 저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에 비해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나 오너스는 이러한 수은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마티센이 가정된 불순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속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녹는점이 높으면 용해 과정에서 불순물이 녹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너스는 다른 물질이 녹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을 선택하여 실험을 한 것이다.
- ⑤ 오너스는 절대 온도 2.2K 근처에서 액체 헬륨의 밀도와 비열 등이 최댓값을 갖는다는 것까지 측정하였지만, 이 액체 헬륨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는 액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1937년 다른 물리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14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듀어는 불순물이나 결함의 영향이 없는 도체를 만들 수 있

다고 보았고, 이러한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기 저항이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마티센은 실제 금속에는 불순물이나 결함이 존재하여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어도 전기 저항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켈빈은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자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전기 저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불순물이나 결함의 영향이 없는 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사람은 마티센이 아니라 듀어이다.
- ② 듀어와 달리 마티센은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어도 전기 저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켈빈은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자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전기 저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 ③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기 저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본 사람은 켈빈이다. 마티센은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어도 전기 저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마티센은 실제 금속에는 불순물이나 결함이 존재하여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어도 전기 저항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절대 영도 근처에서도 불순물이나 결함의 영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5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에 따르면, 비활성 기체인 헬륨은 단일 원자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 원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약한 인력만이 작용한다. 이러한 점이 대기압하에서 헬륨 원자의 영점 운동을 구속할 힘이 부족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헬륨은 절대 영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헬륨이 수소 다음으로 질량이 작다고 했으므로 수소가 헬륨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소는 비활성 기체가 아니므로 대기압하에서도 온도를 낮추어 고체로 만들 수 있다. 4문단에서 헬륨은 삼중점이 없지만 대기압하에서 다른 물질들은 삼중점이 있다고 했으므로, 대기압하에서 수소가 고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헬륨 원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점 운동을 한다고 했다. <보기>에서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질량이 작다고 했으므로,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모두

헬륨보다 질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헬륨 원자보다 큰 영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로 매우 약한 인력만 작용하고, 그중에 헬륨의 질량이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헬륨 외에 다른 물질들은 대기압하에서 삼중점이 있다고 했으므로, 헬륨보다 질량이 큰 나머지 원소들이 대기압하에서 고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헬륨은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모두 차 있는 비활성 기체라고 했으므로, 헬륨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모두 차 있지 않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비활성 기체와 달리 헬륨은 전자껍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인 것이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모두 차 있는 상태인 것이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오너스는 헬륨의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삼중점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헬륨이 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헬륨은 절대 온도 2.2K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았다. 이에 근거할 때, 헬륨의 삼중점은 절대 온도 2.2K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헬륨의 비열이 최댓값을 나타내는 지점이므로 절대 온도 2.2K임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헬륨은 절대 온도 2.2K 근처에서 밀도와 비열 등의 물리량이 모두 최댓값을 갖는다고 했다.
- ③ 헬륨은 절대 온도 2.2K보다 낮아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 ④ 헬륨은 절대 온도 2.2K에서 상전이를 하며, 그 아래 온도에 존재하는 액체는 저항 없이 흐르는 초유체이다.
- ⑤ 헬륨은 절대 온도 4.2K에서 액화되므로 이 온도보다 낮을 때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 온도보다 높을 때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발산'의 사전적 의미는 '함수 $f(x)$ 에서, 함숫값이 어느 일

정한 수의 근방에 모이지 않고 극한에서 양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거나 진동하는 일.'이다.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은 '발현'의 사전적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점유'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이다.
 ② '제거'의 사전적 의미는 '없애 버림.'이다.
 ③ '공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이다.
 ④ '측정'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이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296~310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②	09 ①	10 ③
11 ②	12 ①	13 ②	14 ③	15 ④
16 ②	17 ②			

01~03

■ 담화 공동체 독자

해제 ▶ 이 글은 독자를 담화 공동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담화 공동체는 특정 쓰기 및 읽기 방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필자와 독자는 이곳에서 지식, 사고, 표현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의 담화 생산자로서 대등한 위상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상호 텍스트성과 밀접하며, 담화 공동체 구성원은 텍스트 내 반복과 전제를 통해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담화 공동체 독자 개념은 독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실제 독자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명료한 관습이나 규약이 없는 담화 공동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주제 ▶ 독자 개념의 변화 및 담화 공동체 독자의 특성과 한계

구성 ▶

- 1문단: 독자 개념의 확장과 담화 공동체 독자의 등장
- 2문단: 담화 공동체 독자의 개념과 특성
- 3문단: 담화 공동체 독자와 상호 텍스트성의 관계
- 4문단: 담화 공동체 독자 개념의 한계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2문단에서 담화 공동체는 담화 관습이나 규약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특정한 쓰기 방식과 읽기 방식을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화 공동체에 속한 독자들은 읽고 쓰는 데서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 공동체 독자 개념은 공동체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독자가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4문단에서는 실제 독자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담화 공동체를 독자로 보는 관점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4문단에서 담화 공동체 독자는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 명료한 관습이나 규약을 지닌 학문적 글쓰기나 학문 공동체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문적 글쓰기에는 담화 공동체의 관습이나 규약이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모든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그것들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은 특정한 내용이 여러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독자를 담화 공동체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화 공동체 독자 개념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명료한 관습이나 규약을 갖고 있지 못한 담화 공동체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텍스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02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는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사례로 들었을 때 또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또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것은 A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한 것이다. 이는 담화 공동체 독자를 고려한 것으로, 담화 공동체 독자가 A가 글을 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 공동체 독자가 글의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필자와 마찬가지로 담화 형성에 참여한 것이다. 이를 담화 공동체 내에서 필자와 독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아 독자는 필자 자신을 글의 독자로 보는 개념이다. A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은 글을 쓰는 데 자아 독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수신자 독자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필자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이다. B는 A에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었다. 따라서 B는 수신자 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또래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표현, 말투 등은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담화 관습

이 A의 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A가 담화 공동체 독자를 고려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A의 글에 또래 친구들의 말이나 글에 담겨 있는 고민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은 A의 글이 다른 텍스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A의 글이 상호 텍스트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03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자아 독자’와 ‘타자 독자’ 개념은 독자를 필자와 구별하는 개념이다. 담화 공동체 독자는 필자와 마찬가지로 담화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필자와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이것은 독자와 필자가 분명한 경계에 따라 나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담화 공동체 독자의 등장이 자아와 타자, 실제와 허구로 구분되던 독자 개념의 범주에 변화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담화 공동체에는 공통의 담화 관습이나 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통의 담화 관습이나 규약이 있기 때문에 독자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다.

③ 담화 공동체는 특정한 쓰기 방식과 읽기 방식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독자의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④ 담화 공동체의 독자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아와 타자, 실제와 허구로 구분되는 독자 개념의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⑤ 담화 공동체 독자는 공동체의 범주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해 존재하는 것이다.

04~09

■ 마음 업로딩

가

해제 ⑤ 이 글은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기억과 자아를 구성하는 정보 패턴을 디지털 형태로 옮겨 담아 신체적인 죽을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을 뇌에서 추출하여 전혀 다른 물질적 기반으로 이전하는 ‘업로딩’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⑤ 인간 의식의 디지털 업로드를 통한 영생 가능성

구성 >

- 1문단: 심리적 연속성 이론과 관련 있는 커즈와일과 보스트롬의 입장
- 2문단: 심적 상태의 본성에 대한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
- 3문단: 복수 실현 가능성에 의거해 업로딩을 인정하는 입장
- 4문단: 업로딩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나

해제 > 이 글은 인간 의식의 업로딩을 통한 영생의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업로딩이 성공하려면 ‘나’의 핵심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손실 없이 보존되어야 하지만, 신체적 특성이 정신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체화된 인지’ 이론은 이를 반박한다. ‘체화된 인지’는 인지가 뇌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와 환경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몸의 종류에 따라 마음의 구조와 작동 방식, 심지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달라지므로, 인간 정신을 다른 신체로 온전하게 이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 > 인간 의식의 디지털 업로딩이 지닌 한계와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

구성 >

- 1문단: 업로딩으로 자아 동일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 2문단: 계산 기능주의에 입각해 업로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3문단: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업로딩에 대한 비판
- 4문단: 인간의 개념이 신체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

0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업로딩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업로딩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연속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업로딩으로 자아 동일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업로딩이 가능하다는 계산 기능주의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심적 상태의 본성에 대한 커즈와일, 보스트롬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학자들의 입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가)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뇌의 관계에 대한 계산 기능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가)에서 제시한 논증 방법의 한계와 의의를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심적 상태에 대한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 (가)에 제시된 관점들로부터 비롯된 철학적 쟁점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서로 다른 물질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복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서 그 방법의 구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05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2문단에서는 계산 기능주의에서 뇌를 생물학적 컴퓨터로 본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생각이나 기억이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구현되어 작동하는 데이터 정보 구조나 그에 관련된 계산적 조작으로 본다. 즉 물리적 기반에서 정신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롬이 기억, 가치관, 태도, 정서적 성향 등이 인간의 자아를 구성한다고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을 통해,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에서는 심적 상태의 독특한 인과적 역할이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을 통해,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신체 차이가 크면 그에 따라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도 크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신체별 특성이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을 다른 동물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신 상태의 유형이 다른 복수의 물질적 상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상태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떤 대상이 지닌 하나의 정신 상태의 유형을 다른 대상에 옮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입장에서는 신체의 특성이 인간 정신의 구조나 종류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참인 경우에는 ㉡도 참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거짓이면 신체의 특성이 인간의 정신의 구조나 종류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도 거짓이 된다.
- ③ ㉠은 인격 동일성에 관한 심리적 연속성이 물리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은 신체의 특성이 인간 정신의 구조나 종류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 ㉡은 상반된 입장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 ④ ㉠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의 논리에 동의할 수 있다.
- ⑤ ㉡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다.

07 중심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심적 상태가 뇌에만 존재한다는 뇌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몸을 갖느냐가 마음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롬은 업로딩을 통해 신체적인 죽음이 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업로딩으로 뇌의 하드웨어를 바꾸어도 전과 같은 알고리즘과 계산적 구성이 유지되지만 하면 인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인간의 개념이 신체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신체의 차이에 따라 세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는 자아 동일성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 ④ 계산 기능주의에서는 정신 작용을 두뇌에 구현된 계산 체계의 작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구현하면 업로딩을 통해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가 재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계산 기능주의에서는 인간의 사고나 인지 과정을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정보가 조작·처리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업로딩을 위해 두뇌의 시냅스 과정을 스캔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나 인지 과정을 수행하는 뇌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0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계산 기능주의 관점을 취하는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롬은 기억, 가치관, 태도, 정서적 성향처럼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들을 특정 정보 패턴으로 만들어 보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계산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A가 인간의 원격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 정신적 속성이 특정한 정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정신을 물질적인 것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적 상태의 독특한 인과적 역할이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계산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심적 상태가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A는 원격지의 복제 인간이 원본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완벽히 보존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신 작용을 계산 체계의 작동으로 이해하는 커즈와일은 동의할 것이다.
- ④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몸을 갖느냐가 마음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나’와 외계 별의 클론의 모든 신체 기관이 동일하다면 마음의 구조나 작동 방식도 같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 ⑤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계산 기능주의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계산 기능주의가 몸의 종류에 따라 마음이 세상의 특징을 표상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개념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는 정보 처리에 관한 기능적 동일성이 심적 상태가 가지는 내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어떤 하나의 정신 상태의 유형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적 상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복수 실현 가능성 논제를 전제하는 계산 기능주의의 입장을 비판적 입장에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9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인격 동일성에 관한 심리적 연속성이 물리적 동일성이 성립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의미를 ‘잘 간직하여 두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내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은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④ ㉡는 '거리끼거나 얽매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0~13

■ 법인세

해제 > 이 글은 법인세의 개념과 특성, 경제 주체 간 부담 귀착,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감가상각 방식,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등 법인세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실무적 특수성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법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과세된다. 이 글은 여러 국가가 단순하거나 누진성이 낮은 구조를 채택하는 이유, 조세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법인세의 핵심적인 성격과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주제 > 법인세의 복합적 성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성 >

- 1문단: 법인세의 개념과 특성
- 2문단: 법인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
- 3문단: 중립적 성격의 법인세 제도의 필요성과 요건
- 4문단: 실제 감가상각 처리와 정책적 의도
- 5문단: 인플레이션에 따른 법인세 부담

10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서 가격 중심적 접근 방식은 시장에서 조사된 자본재 가격에 기초해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비가격적 접근 방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본재의 물리적 특성에 일어나는 변화에 기초해 감가상각을 측정해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의 감가상각이 자본재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기초하는 가격 중심적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본재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기초하는 것은 비가격적 접근 방식과 관련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에서 법인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조세와 구별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법인세는 누진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단순한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법인세제에서 감가상각은 해당 자본재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인 '역사적 비용'에 기초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법인의 투자 결정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의 법인세 제도를 위해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을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법인세를 기업의 총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윤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 현행 법인세제에 따를 때 법인의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보는 ㉠의 입장에서는 ㉡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경제적 이윤으로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차입된 자금을 대해 지급되는 이자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과 관련이 있다. 차입된 자금을 대한 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을 근거로 삼아 법인세 부담이 법인의 주주에게 귀착된다고 보는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이다.

③ 노동 공급자나 소비자도 일부 법인세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를 법인 부문에 투자한 자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을 근거로 삼아 법인세 과세 대상을 경제적 이윤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때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한계 투자가 차입된 자금을 의해 조달된다는 것은 ㉠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근거로 ㉡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법인세를 기업의 수입 중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입장이

다. 이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문을 좁혀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1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법인세에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기업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현행 법인세 제도에서는 편의상 자본재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③ 자본재의 경제적 감가상각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개의 그룹으로 자본재를 분류하고 각 그룹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④ 정부가 기업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는 법인이 법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법인세의 영향을 받는 상태이지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이다.
- ⑤ ㉠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 기업의 감가상각을 산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 기업의 감가상각이 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정액법은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경제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인 내용 기간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에서는 내용 기간이 n년인 자본재에 대해 1년에 구입 가격의 1/n씩 감가상각을 해 나가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내용 기간이 짧아지면 감가상각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법인세에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내용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지기 전보다 ㉡ 기업의 제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태에서 재고가 먼저 팔

려 나간다고 보는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증가한 비용이 법인세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 기업이 선입 선출법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생산된 것이 우선적으로 팔려 나간다고 보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법인세 계산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 ③ ‘역사적 비용’은 해당 자본재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다. 2025년에 자본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 기업에서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자본재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역사적 비용보다 커진다.
- ④ 법인세를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감가상각의 허용 폭을 늘린 것은 감가상각으로 처리되는 비용을 늘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14~17

■ 역노화 기술

해제 > 이 글은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첨단 연구인 세포 리프로그래밍과 부분적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야마나카 인자를 활용한 리프로그래밍이 세포의 노화 징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로 세포의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포 정체성을 유지한 채 노화를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이 연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역노화 기술의 실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성, 최적 조절법, 지속성 등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난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실현된다면 불로장생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 >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의 역노화 기술

구성 >

- 1문단: 생물학적 노화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 2문단: 세포 리프로그래밍의 원리와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개념
- 3문단: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의 필요성과 방법
- 4문단: 역노화 기술의 한계와 과제

14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3문단에서 근래에 c-Myc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야마나카 인자만을 이용하는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세포의 역노화에 성공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야마나카 인자 4가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역분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을 보면 줄기세포에서 체세포 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줄기세포에서 피부 세포, 신경 세포, 간세포처럼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세포로 분화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생겨 비정상적으로 세포들이 분화하면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DNA의 손상 복구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세포 노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줄기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면 재생 능력이 떨어져 노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줄기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는 속도가 느릴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역노화 기술은 체세포로서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의 리프로그래밍 주기를 완료하는 대신 중간 단계까지만 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체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역노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세포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② 세포의 리프로그래밍 주기를 완료하면 역분화 이전에 지녔던 고유의 정체성과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

③ 과학자들은 종양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지만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⑤ 세포를 부분적으로 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회춘 지점'이 어디인지, 세포별로 야마나카 인자를 며칠간 발현시켜야 회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

태이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전에는 세포가 분화되면 다시 줄기세포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연구를 통해 세포가 가역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기>의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야마나카 인자를 사용해 세포의 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절 세포의 가역적 특성을 비가역적 특성으로 변화시켰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 교수 연구 팀은 안구에 있는 세포들의 노화로 인해 시신경에 손상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역노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망막 신경절 세포의 수가 2배 증가했다는 것은 노화를 초래한 세포핵의 구조 변화, DNA 손상 문제가 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③ A 교수 연구 팀은 악성 종양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이는 c-Myc가 악성 종양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노화가 되면 줄기세포의 활성이 감소하고 분열 빈도가 줄어든다. 망막 신경절 세포의 수가 2배 증가하고 신경이 5배 성장한 것은 세포 분열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처럼 세포 분열이 증가한 것은 역노화의 증거가 된다.

⑤ A 교수 연구 팀은 망막 신경절 세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줄기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막 신경절 세포의 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포 고유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정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에 사용된 '줄이다'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이다.

③ '살림의 규모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이다.

④ '시간이나 기간을 짧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이다.

⑤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적게 하거나 무게를 덜 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이다.

